

작가 윤청광
"가는 날까지
원고 쓰겠습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7월 8일) · 주간

제953호 2013년 8월 14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베어내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광복절 68주년… 일제 만행의 상흔 보듬는 한국불교

위안부 원폭2세 '정당한 평가' 노력 과제





나눔의 집의 '일본 위안부 역사관' 전시부스 모습〈사진 왼쪽〉과 합천 평화의 집이 8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 제2회 비핵평화대회〈사진 오른쪽〉. 두 단체 모두 불교계 주도로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일제 상흔이 빨리 치유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과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로 한국이 일본의 제국주의에서 벗어난 지 꼬박 68주년을 맞는다. 이미 반세기가 지났지만 일제의 상흔은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된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원폭 피해자 2, 3세들이다. 시대의 아픔이 돼 버린 이들을 보듬는 활동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위한 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6명으로 2년 사이 14명이 더 줄었다.

불교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21년 전인 1992년부터 노력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대표 월주)'이다. 경기도 광주 퇴촌에 있는 나눔의 집은 현재 강일출, 김군자, 김순옥, 박옥선, 배춘희, 이옥선, 이용녀 등 7명의 할머니가 생활하고 있다.

1991년 7월 일본군 '위안부' 실상 첫 증언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내 생존자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1991년 12월 불교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했고, 이후 시민들의 정성으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할머니 7분을 찾았다.

그렇게 해서 나눔의 집은 1992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처음 개소식을 가졌지만, 재정 마련 부족으로 명륜동과 혜화동 등 전셋집을 옮겨 다녔다. 그러다 1995년 12월 불자 건축업자인 조영자 씨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소재 650여 평을 기증하면서 현재 위치에 자리 잡았다. 1998년에는 세계 최초의 성노예 테마 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건립됐으며, 2002년에는 올바른 역사와 여성인권 세우기를 위한 국제평화인권센터가 설립됐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는 고통을 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육성증언과 고통스러운 기억을 회상하며 직접 그린 그림, 일제의 강제연행 입증자료 등 전시물이 6개의 주제로 나뉘어 전시되고 있다. 국제인권평화센터는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와 여성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나눔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은 연간 1만 여명에 달하며 봉사활동을 위해 찾는 사람도 400여 명이 된다. 이들의 방문은 할머니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나눔의 집 할머니의 평균연령은 88세.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생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최근 해외를 방문해 일본군의 만행을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할머니들이 다 떠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지 생각해야 한다"며 "주권을 빼앗긴 나라에서 나와 내 이웃이 당할 수도 있었던 '전쟁범죄' 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은 자발적인 참여와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나눔의 집

불교계 중심으로 설립된
첫 위안부 할머니 쉼터
현재 7명 할머니 생활
연간 10000여 명 방문
21년간 인권 운동 펼쳐

합천 평화의 집

원폭 피해 2,3세 위한
한국 최초 지원 센터
불교 주도 2010년 창립
비핵화 운동 등 전개
전문 요양 시설 계획

국내 유일 원폭 2,3세 지원처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일제의 상흔은 '원폭 피해자 2,3세'들이다. 원폭 피해 자녀들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된 과거사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을 당시 한국인 피폭자는 7만여 명으로 생존자 2만 3000명은 한국으로, 2000명은 북한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사망했거나 남겨졌다. 원폭피해자 1세대 상당수는 사망했고 2010년 현재 남은 이는 2600여 명이다. 피폭의 상처는 1세대에 그치지 않았고 그들의 자녀에게 병마와 가난은 대물림 됐다. 이들 중 적지 않는 사람들이 다운증후군, 정신지체장애, 골다공증, 무혈성괴사증 등 정신 · 육체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많은 원폭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불교계를 중심으로 2010년 3월 합천 평화의 집(원장 윤여준)이 설립되면서 부터다.

불교계 구호단체 위드아시아(대표 지원)가 운영하는 합천 평화의 집은 △원폭2세 환우들의 건강과 복지 프로그램 운영 △가정방문 케어 및 생활지원 △환우 치료비 지원 및 지원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비핵화 운동을 위한 '비핵평화 국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도 비핵평화 영화상영회, 평화한마당, 원폭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68주기 한국인 원폭희생자 추모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했다.

또한 합천 평화의 집은 2세 환우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과 원폭피해자를 위한 국회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경남도와 합천군의회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조례로 명문화하기도 했다.

이남재 합천 평화의 집 사무총장은 "원폭 피해 자녀들은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빈약하다. 이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절실하다"며 "불교계를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불자와 스님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 이나은 기자

종교인 과세, 2015년부터 본격 시행

'기재부' 세법개정안서 밝혀… 해묵은 논란 종식

이제는 스님을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이 201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종교인 소득세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이하 기재부)는 8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세입기반 확대 차원에서 2015년 종교인 과세 추진 등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던 소득 분류 방법을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규정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 · 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 · 인세 · 자문료 · 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교인 납세부담협력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찰과 교회에 반기 납부특례를 부여해 1년에 2번만 세금을 내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 외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의 대상과 규모에

기타 소득 '사례금' 규정
1년 유예기간 두고 시행
조계종, 중앙종무기관부터
내년 근로소득세 납부 계획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유예기간동안 각 종교와의 협의 거쳐 세부 시행령 제정한다는 1차적인 계획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세부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 단체는 법률상 등록 · 신고 절차가 전혀 없어 정확한 공식 통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역시 순전히 종교인 개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

현재 불교계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회 여론의 문제도 있지만 불교계 내부에서도 재정 투명화 등 긍정적 효과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를 이해하고 있다. 중앙종회, 교구본사 등과 협의 거쳐 종단적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월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예방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해서라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 종단은 거부감이 없다. 내년부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세 부분에 있어서 불교가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앞으로는 자발적이면서 앞서 가는 과세 정책이 불교계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민추본-조불련 8.15 남북동시법회 연다

서울 봉은사, 평양 광법사서

남북 평화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광복 68돌을 맞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본부장 지홍)가 8.15 남북 동시 법회를 갖고 남북불교 교류 실무회담도 연다.

민추본과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이하 조불련, 위원장 강수린)는 '조국통일기원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8월 15일 서울 봉은사와 평양 광법사에서 각각 동시 개최한다.

민추본은 "지난 7월 25일 북측 조불련 측에 8.15남북불교도 동시법회와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조불련은 8월 2일 우리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전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추본은 8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남북불교 교류 실무회담을 중국 심양에서 갖는다. 민추본은 "이번 '조국통일기원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와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은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불교도들이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실천행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8월 7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인모임은 인도주의 구현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혜숙 기자

953호 INDEX

시방세계 5
파리 7대학 한국방문현장



강의실중계 8
방한한 종사르 켄체 린포체

학술 9



방미 결정된
국보 반가사유상
종정제 100년, 논문 발표
근대문화유산연구서 발간



Since 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늘 푸른 정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가산불교대사림』 제14권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모든 功德을 伽山智冠大宗師 大覺靈前에 그리고 大衆에게 回向합니다."



"'항심[恒心]'으로 고군분투하라! '항심'이 중생을 이익케 하는[饒益衆生] 원력[願力]과 함께할 때, 세간[世間]은 불멸[不滅]의 공덕을 얻는다" 하신 가산지관대종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변함없이 정진하겠습니다.

가산지관대종사 열반후591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모두 분향후 올림

서울시 창경궁로26길15(명륜4가206-6)
TEL 02)765-9602~3 FAX 765-5673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현악기가 소리를 내려면

울림통과 현의 조합이 있어야 하듯이

현상은 행위와 조건이 결합될 때 일어난다

현악기는 아주 좋은 목재로 만들어집니다. 줄들은 이 악기에 알맞은 소리가 나도록 조율되지요. 만약 어떤 것 하나라도 빠진다면 악기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행복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지 않았다면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행복과 고통은 우리들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행위의 복합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현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려면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듯이 행복을 성취하려면 꾸준한 다르마 수행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숙련돼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즐거움과 고통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고통은 상대적인 속제의 수준에 의존합니다. 이들은 아주 냉혹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릅니다. 마치 음악이 화성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요.

수행도 마찬가지이지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역경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만 이는 모든 고통의 자국들을 넘어선 부술 수 없는 지복으로 이어집니다. 선택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실수나 모호함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불교광장, 총무원장 추대 5대 기준 결의

5일 추대위 첫 회의서… 종단화합 · 원력 등 덕목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의 후보 추대를 위해 최대 종책 모임이 추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책모임 불교광장은 8월 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총무원장 추대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추대위원으로 선임된 불교광장 대표와 운영위원회, 감사를 비롯해 20개 교구본사주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수좌회, 선원, 율원, 강원 대표자, 연대를 선언한 前 무차회, 비구니회와 前 보림회 대표자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날 추대위원들은 이번 총무원장 후보 추대의 5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5대 기준으로는 △종단화합 △원력 △리더십 △수행 및 교육, 포교 △공심과 쇄신 의지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수행이 구족하고 행해개 원만해 종단의 원융화합을 이뤄낼 인물 △사부대중의 뜻을 두루 반영할 수 있는 후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변화를 통해

각 종책모임 · 교구본사 · 직능 등

54명 참여… 확대 가능성도

9월 7일까지 후보 추대 회의

별도 조직 구성해 후보 검증

추대위원 자성 선언 · 서약도

미래지향적인 종단 운영을 이뤄낼 인물 △불교 대중화와 국제적 역량을 강화시킬 인물 △새로운 불교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후보 △친소관계 배제, 공평무사한 인사제도 정착과 폭넓은 인재 등용을 이뤄낼 후보 △도덕성과 청정성을 갖춘 후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배척하고 공심에 입각해 종단을 이끌 후보 등의 기준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기준을 통해 추대위원회는 9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회의를 갖고 후보 추대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 추천 절차 및 방식도 정해졌다. 추대위원 3~5명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법계 대덕 이상 종도 30명 이상이 서명 날인으로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복수 후보 추천은 불가하다. 또한 차기 회의에서 추대위 9인 위원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종헌 종법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도 검증할 방침이다.

불교광장 대변인 적문 스님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교구본사 스님들의 참여를 열어 놓고 있어 추대위 인원은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시대에 맞는 인물을 총무원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대위원들은 후보 추대 과정에 대한 비밀 엄수, 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으며, 불교광장은 어떠한 이권에도 청탁 · 개입하지 않겠다는 자정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불교 광장은 5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우리는 선거 악행을 솔선해 막고 어떠한 기득권도 요구하지 않겠다"며 "종단 선거 문화를 혁신하겠다는 대덕, 중진스님들의 이러한 결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일체의 종무직을 비롯해 어떠한 기득권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공심의 자세로 종책과 인물로서 차기 총무원장 후보를 추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자세로 종도로부터 배우고 종책을 구하겠다"며 "종도들이 보내준 합리적인 의견을 발전시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태종은 8월 5일 구인사에서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천태불자들 하안거 정진 들어가다

천태종 8월 5일 구인사서 결제식… 9월 4일까지 주경야선

천태종 재가불자들이 여름 한 달간 안거에 들어갔다. 천태종은 8월 5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종정 도용 스님, 원로원장 운덕 스님, 총무원장 도정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안거에 든 재가불자들은 이날부터 총본산인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천태종 사찰서 한 달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관음정진을 하는 주경야선(晝耕夜禪)을 실천한다. 해제식은 9월 4일 오후 10시 구인사서 열린다.

결제식에서 도용 종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한 달 동안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고불총림 방장에 지선스님 추대키로

공석으로 남아 있는 고불총림 방장에 지선 스님을 추천하기로 했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8월 2일 임회를 열고 방장에 대해 고사의 뜻을 밝힌 광제 스님의 추천안을 철회하고 지선 스님을 새로운 방장후보자로 추천키로 결의했다.

임회는 지선스님 방장 추천안을 산중총회를 통해 결정해 오는 11월 열리는 중앙종회 정기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임회위원들은 운문암에서 안거중인 지선스님을 찾아 뵙고 방장직을 수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중일 기자**

동화사 방장 진제 스님 추대 법회 열린다

19일 승좌 법회, 대불마당서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성문)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초대 방장으로 추대하는 승좌 법회를 오는 8월 19일 대불마당에서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지성, 성우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각 정당 대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동화사는 이날 승좌 법회를 위해 전승이 끊어졌던 종사 이운식을 복원했으며, 이를 식전 행사로 재현할 계획이다.

동화사는 "이번 법회를 통해 팔공산을 더욱 새롭고 활기찬 수행정진의 선풍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법등 스님 원장 선거 불출마 선언



前 조계종 호계원장 법등 스님〈사진〉은 8월 9일 서울 연화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스님은 "처음부터 총무원장 선거에 나설 생각이 없었고 주변에도 밝혔다"며 "내 한계를 알기에 총무원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이끌어주고 밀어준 스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래 전 부터 내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불출협에 '적반하장' 해명

불교출판문화협회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을 주관한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해당 기관이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판진흥원은 "종교분야에 접수된 불교학술서의 대다수가 우수도서 선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도서들로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심사위원 위촉에 대해 "타분야와 마찬가지로 종교계파나 다종교 각각의 전공별 심사위원 위촉은 불가능해 한국종교문화연구소와 한국종교학회에서 추천한 2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해명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덕현 기자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께 드리는 호소문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불법문중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께 삼가 예경합니다.

6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문화 공연장에서 **힐링넌버벌 템스**를 기획 제작하여 공연한 부명스님이 불교신문에 게재한 호소문 광고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혼자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천만 불자들이 한마음씩 보태어 십시일반의 도움으로 템스의 성공적 공연을 위한 후원을 발원하며 이 광고를 냅니다.

본인은 불자로서 부명스님이 기획 제작한 힐링넌버벌 템스공연을 3차례 관람하였습니다.

부명스님의 호소문 내용처럼 대중언론과 방송에서는 호평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브로드웨이나 유명 뮤지컬과는 분명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작품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원력으로 처음부터 성공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출연진들의 열성적인 타악공연은 가히 일품이다. 이것은 온전히 제작부터 연출 감독 등 1인 5역을 맡아 온 몸으로 불사르고 있는 부명스님과 출연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얼마나 많은 젊은 불자들이 불교에 매료되고, 그 불교를 음악으로, 공연으로 전하려 몸부림쳤던가. 그리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좌절과 한탄으로 마음을 접었던 것일까. 그 지나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족히 알고 있기에, 많은 아쉬움이 눈에 띔에도 불구하고 종단 지하 공연장에서 울려 퍼져지고 있는 힐링 넌버벌 타악공연 템스가 남달리 느껴진다."

위의 글은 대한불교조계종 전 문화 부장이셨던 효탄스님께서 불교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1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천만 불교도 여러분!
템스가 불교적 한류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산사음악회나 지방공연을 유치하고 1만원, 10만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하여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템스의 부명스님 돕기를 발원해봅니다.

부명스님의 발원처럼 불교가 20년, 30년의 미래를 지향 한다면 역사와 전통을 겸비한 시중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부명스님께서는 부루나 존자의 원력처럼 템스가 일천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고 대한민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의 한 축을 책임지는 작품으로써 불교적 한류 트렌드를 만들어 내어 문화포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법문중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혜안과 대 자비심으로 템스를 비롯한 불교문화로 시절인연을 만들어 불국정토가 이룩되길 발원 드리며 적극적으로 함께 후원 동참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은행 910601-01-347509 (예금주 : 사단법인 이뭣고)
- 부명스님 전화 010-8743-9711, 070-8827-0108

2557년 8월 7일

불자 혜명화 손모둠

템플스테이, 국민 정신건강 중심으로

문화사업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탁 평가

한국 전통문화체험의 대표 아이콘으로 부상한 템플스테이가 사회공익적 가치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평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최근 발간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조사, 연구한 것으로 기존 만족도 조사와는 달리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인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템플스테이는 관광, 교육, 정신건강, 사회소통, 복지 등 5가지 사회공익적 가치 평가에서 전체 평균 4.57점(7점 만점)으로 그 가치성을 인정받았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정신건강이었다. 특히 세부 항목인 '심신의 휴식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5.51점)와 '자아성찰(5.38점)'가 현실적 성취도에서 높게 평가됐다.

또한 한국적 전통문화체험, 생태 친화적인 식생활 습관 형성, 한국 전통문화 및 역사 이해 증진 등도 템플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중심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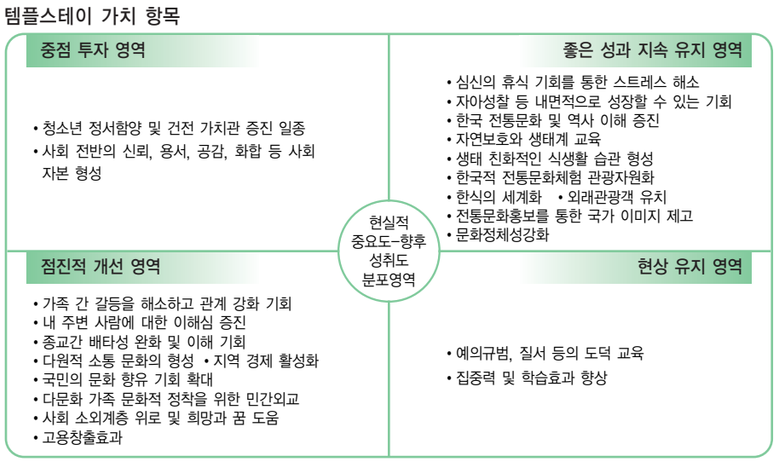
향후 중요도 조사에서도 템플스테이는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가치가 6점대로 가장 높았으며, 전통문화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점 만점 중 4.57점 받아
정신건강 성취 가장 높아
기대도 역시 고무적 평가
정서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특화형 사찰 개발 필요도

또한 연구보고서는 사회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템플스테이가 사회 소외계층을 보듬는 문화복지의 구현처로 거듭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향후 템플스테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 정서 함양 및 건전 가치과 증진'과 '사회 전반의 신뢰, 용서, 공감 등 사회 자본 형성' 등의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사찰이 대부분 천예의 자연환경에 있는 만큼 아토피 어린이, 천식 등 환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향후 공익적 가치 향상에 상당히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템플스테이 가치 항목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 사회 공익 운영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사찰별 특화 모델 구축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 자문위원회 구성 △심리 상담 전문 인력 양성 △지정 여행사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템플스테이 사회 공익 인정체계 구축을 위해서 △템플스테이 박람회 개최 △한·중·일 불교 및 국내 이웃종교와의 정보 교류 사업 △한류 스타를 활용한 홍보사업 등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조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보고서, 학계 논문 등의 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 특히 템플스테이 전문가와 실무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신중일 기자

SBS '궁금한이야기 Y' 사과 약속

김태성 제작본부장, 9일 조계종 사과방문

불교폄하와 왜곡 보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SBS 시사프로그램 '궁금한이야기 Y'와 관련해 SBS가 공식 사과했다. 8월 9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SBS 김태성 제작본부장은 총무부장 원담 스님을 만나 왜곡 보도에 대해 사과방송과 책임피디 문책성 인사 단행 등을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제작진이) 표현의 미숙함으로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 불교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많은 부분을 헤아려 다른 방송에서 더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원담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이번 방송으로 상처를 입었다. 앞으로 불자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SBS 측에 공식적 사과 방송, 책임자 문책, 사과방문, 지역케이블 IPTV 재방송 방지 등에 대해 요구했고 SBS는 동명이인의 사진을 잘못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방송과 책임피디 문책성 인사 단행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스님을 도박 관련 스님인 것처럼 사진을 잘못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과방송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단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사과방송 여부를 결정하고 재방송 관련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쳐 해결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동국대, '만해학' 강좌 개설

2학기 교양강좌부터

동국대가 1회 졸업생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집중 강의하는 '만해학 강좌'를 개설한다.

동국대는 2학기 교양강좌로 '만해와 불교의 민족운동', '만해와 불교사상', '만해와 님의 침묵' 등 3개의 교양강좌를 개설하기로 했다.

강사진으로는 만해의 민족사상과 불교사상, 시 등의 문학을 수십년 간 연구해 온 대표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만해 사상과 불교 부문은 김광식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 연구초빙 교수가, 만해의 문학정신은 윤석성 동국대 경주캠퍼스 인문학부 교수가 각각 맡는다. 동국대는 이들 강좌를 유투브를 활용해 일반에 무료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만해학 강좌 개설은 지난 4월 만해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조성된 만해마을이 동국대학교에 기증된 데 이어 2013년 만해축전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마련됐다.

'만해(한용운)학' 강좌를 기획한 동국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전승우 교수는 "만해 스님의 민족정신과 불교정신 및 문학에 담겨 있는 사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교양강좌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단체 국정원 규탄 시국회의 발족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12개 불교계 단체들이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불교시국회의'를 발족시켰다.

시국회의는 8월 8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이란 국민대중의 권력을 선택적으로 정부에 위임한 것이며, 위임받은 정부는 항상 국민의 뜻을 살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민주'이고 '정법'"이라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거친 소용돌이를 겪어왔는지, 뼈아픈 교훈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 위에 또 다시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을 모독하는 정치권의 퇴행과 추락을 방관하게 되면, 장차 대한민국은 전례 없이 극심한 갈등과 투쟁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국정원, 경찰 최고 책임자 처벌 △국정원 및 경찰 전면개혁 방안 제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불교단체들은 8월 8일 가지회견을 열고 시국회의를 발족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휴 스님과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은 서울광장에 있는 민주당 천막당사를 방문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전국 비구니 스님 간화선을 논하다

선원선문회, 담선법회 개최

비구니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禪)에 대해 논한다.

전국 비구니 선원선문회(회장 육문)는 8월 23일~26일 3박 4일 동안 경북 군위 법주사 청화선원에서 '전국 비구니 선원 담선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담선법회는 간화선 수행의 전통을 계승하고 수행 풍토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교육원은 담선법회에 참가한 비구니 스님 중 2~3급 승가고시를 준비하는 스님의 경우 인증점수(12시간 30점)를 부여한다.

한편 선원선문회는 지난 2003년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선 수행 특강을 연 이후 매년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지환 스님 등을 초청해 수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담선법회는 선에 대한 이치를 서로 공부하고 참선도 함께 병행한 법회로, 고려시대 초기부터 3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주관해 보제사에서 거행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D-50 대장경 축전, 본격 홍보 돌입

부산역 힐링 콘서트
대학생 발대식 등
다양한 행사 '눈길'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50여 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2013대장경축전은 경남도, 합천군, 해인사 공동주최로 9월 27일부터 11월10일까지 합천군 가야면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와 해인사 등지에서 열린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이하 조직위)는 8월 9일 부산역 특설무대에서 '동감(同感)에서 동감(動感)으로'를 주제로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사전홍보를 위한 힐링음악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부산 지역 팝아티스트들이 결성한 부산보이스파워밴드가 젊은층들이 즐겨 부르는 곡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에 앞서 조직위는 본격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가동했다. 조직위는 8월 8일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이운길 탐방대의 전국투어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원봉사 소양교육도 실시됐다.



8월 9일 부산역에서 진행된 대장경 힐링콘서트

이날 출정한 이운길 대장경 탐방대는 창원대, 영남대, 전남대 등 영호남 대학생들이 3개 그룹 16명으로 구성돼 축전 전국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UCC 제작, 자전거를 활용한 다중집합 장소 방문 홍보, 축전 성공기원 응원메시지 촬영, SNS 홍보 등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조직위는 5일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한국걸스카우트경남연맹(박선희 경남연맹장)과 자원봉사 등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김이수 집행위원장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경남도에서 열리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축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는 8일 해인사 뒤편 가야산의 9세기 신라 마애불 참배길을 공개하고 축전 기간인 9월 27일부터 45일간 일반인의 출입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야산 해인사 마애불 입상은 가야산 해발 1000m 지점 길옆 바위에 양각으로 새겨진 높이 7.5m, 너비 3.1m 크기의 불상이다. 제작 시기는 9세기 통일신라시대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 (055)211-6269

노덕현 기자



일 주 문



라오스 불발탄 피해예방교육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8월 8일부터 라오스 씨엥쿠앙 지역 불발탄 피해예방교육지원 캠페인을 위한 후원자를 모집한다. (02)725-4277



관내 복지기관과 업무협약

조계종 신정동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은 8월 11일 관내 목동청소년수련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소외계층 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마음선원 '하안거 회향법회'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8월 20일 안양 본원 5층 대법당에서 '하안거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31)470-3100



캄보디아 교육 봉사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수안 스님은 8월 4일 청소년 해외봉사단 '청춘 두드림' 1기 발대식을 갖고 7박 9일간 캄보디아로 교육봉사를 떠났다



백일출가생 모집

정토수련원장 유수 스님은 8월 28일까지 20기 백일출가생을 모집한다.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신청 가능하다. (054)571-1230



추석맞이 저소득 가정 쌀 지원

부산 원광사 주지 지광 스님 8월 8일 부산진구청을 방문해 저소득 가정 추석 맞이 보시로 쌀10kg 300포를 전달했다.



장학회에 기부금 전달

김용철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8월 7일 복지관 군포사랑장학회에 기부금 20만원을 전달했다.



작업실 상주 단체 공모

이철진 (사)한국춤예술센터 이사장은 8월 30일까지 춤·전통예술 네트워킹을 위한 대학로 '춤이 있는 작업실' 상주 단체를 공모한다. (02)747-5035



MBSR 일반·심화과정 개설

안희영 한국 MBSR 연구소장은 8월 27일부터 MBSR심화과정을, 9월 1일부터 MBSR일반과정을 진행한다. (02)525-1588

〈바로 잡습니다〉

본지 제952호 4면 '이치노헤 스님 일본 참회비 제막' 기사 소제목 중 '11월 26일 부산서'를 **'7월 26일 부산서'**로 바로 잡습니다.



지역사회에 개방한 동국대 중앙도서관장 계환 스님

"동국대 중앙도서관 열린 공간으로 확대"

대학 공공 역할 확대에 기여
도서 기부는 종립도서관 발전

동국대 중앙도서관이 변화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사립대학 최초로 도서관을 개방하는 한편 도서 기부자의 네이밍 제도 도입 후 기부금 답도로 국내 최고 수준의 도서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013년 전국 대학 도서관 중 7위, 사립대 중에는 4위로 동국대 도서관은 종립 도서관으로서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건학 107년 만에 비구니 스님이 최초로 중앙도서관장으로 발전을 이끌고 있는 계환 스님을 만났다.

계환 스님은 "대학 도서관은 교육, 연구, 학습의 지원조직"이라며 "중앙도서관이 국내 최고 수준의 불교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만,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교적 지혜를 세계와 나누고 호흡할 수 있는 불교학술 정보결집 및 제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1월 관장 취임 후 늦은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대학이 인재양성의 역할에서 지역사회 공동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열린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들고 도서관이 그 역할에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열린 교육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에 사립대학 최초로 도서관 개방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국대 도서관은 최근 중구에 거주중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요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제쳤다. 자료실 출입은 물론, 140만권의 자료를 대출할 수 있으며 PC, VHS 자료 등 멀티미디어실을 활용 가능하다. 특히 명사지식강연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Human Book Library와 같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스님은 "중앙도서관의 지역개방은 전문학술 정보와 시설,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에 있어 도서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구체적 사례로 지역과 대학, 지역과 도서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러한 동력 확보에 불자들의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동국대와 동국대 도서관에는 발전기금이 답도 하고 있다. 특히 중앙도서관은 각종 자료실과 세미나실에 기부자 이름을 붙여 기념하는 네이밍 등을 활용해 도서관 발전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스님은 "기부자 예우를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에 기부자의 사이버 기증문고를 마련하고, 소액기부자를 발굴하여 구입된 도서에는 '이 책은 어느 분의 기증도서입니다' 라는 식으로, 기부자 이름을 새긴 장서표를 붙이고 있다. 또 도서검색 시 기부한 책의 목록이 확인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중앙도서관은 국보 212호인 〈수능엄경首楞嚴經〉과 보물 13점을 포함한 3만여 책의 귀중본과 불교학자료는 독보적이지만 아름다운 보석도 어둠 속에서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듯이, 스님들은 물론 많은 불자들이 불교학의 보고(寶庫)인 중앙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자비의 전화' 정덕 스님, 동국대에 3000만원 기부



'자비의 전화'를 설립한 정덕 스님은 8월 5일 동국대에 도서관 기금으로 3000만원을 기부했다.

20여년간 자비의 전화를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상담활동을 벌여온 노원구 월계동 인과선원 주지 정덕 스님이 학생들을 위한 중앙도서관 도서구입기금에 보태달라며 3000만원을 기부했다.

정덕 스님은 8월 5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찾아 3000만 원을 전달하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구입에 사용해달라고 밝혔다.

김희옥 총장과 정창근 경영부총장, 중앙도서관장 계환 스님, 이창학 대외협력실장, 박세훈 학술정보관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정덕 스님은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공부하여 우리 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면서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종립 동국대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은 "스님의 아름다운 보시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보다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다"면서, "귀중한 정재를 기부해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변의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자비로운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덕 스님은 지난 1979년 해인사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미니계를 수지했으며,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대영 스님을 은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90년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의 아픔을 보고 느끼자"는 취지로 불교계 최초의 전화상담 봉사기관인 '자비의 전화'를 설립하여 20여 년간 운영해오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왔다. 2012년에는 출가 전 인연 이야기를 담은 단행본 〈정덕스님이 들려주는 인과(因果)〉를 출간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중앙신도회 다문화가정 의료지원 나서… 지원금 1000만원



7월 30일 지용현 광주전남신도회 회장이 전남대병원을 찾아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7월 30일 '다문화가정 및 2세 의료지원 사업'으로 유연성 골연골증을 앓고 있는 해남에 거주하는 다문화 소녀 김혜진, 김유진 자매에게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의료 지원은 지난 5월 날마다 좋은날이 협찬한 다문화 청소년 희망 프로젝트 KBS 오아시스에 출연한 다문화가정 2세 김혜진, 김유진 자매를 국민은행이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지정 기탁한 데 따른 것이다.

김혜진, 김유진 자매는 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2세로 아버지가 앓고 있던 유연성 골연골증을 유전받았다. 유연성 골연골증은 무릎 뼈에서 양성종양이 발생하여 부종과 통증을 유발 하는데, 이 자매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걷기조차 힘들 상황이었다. 종양을 절제하는 정기적인 수술이 필요한 가운데 부족한 집안 형편으로 수술이 미루어져 온 상태였다. 수술은 7월 30일 광주 전남대 병원에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고운사 여름 수련회 '솔바람소리 찾아서'



두차례에 걸쳐 열린 여름수련회에는 각각 10여 명의 참가자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가 일반인을 위한 여름 수련회 '솔 바람소리 찾아서를' 실시했다.

8월 2일~4일, 8월 5일~7일 각각 실시한 이번 수련회에서 총 30명의 참가자들은 나를 깨우는 108배, 걷기명상, 천년숲길법계도, 금강경사경, 다도체험 마음챙기기 참선 등을 체험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3년 9월 3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3년 9월 6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우리는 중생불! 몰록 깨칠 수 있다!

금강경 생활특강학기 수강생 모집

— 최고 원로 교수불자들의 열정적 체험강의 —

본각 선교원(원장, 고준환 교수)은 복잡한 현실생활에서의 고통과 멘붕을 힐링하고, 행복한 생활(Well-being)을 위하여 깨달음을 지향, 생활의 지혜가 샘솟게 하려고 "금강경 통찰 생활특강"가을학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금강경 특강학기는 9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며 수시접수합니다. 교강사진은 금강경과 참선 등을 40여년 참구해온 제반 학문의 원로 교수불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김탄허 스님, 이청담 스님, 백성욱 박사님(전 동국대 총장)등으로부터 내공을 전수받은 바 큽니다. 각기 다른 전공의 교수들이 불교와 전공과목을 하나로 궤뚫는 수월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불경가운데 반야부의 중심대승경이며, 깨달음과 직결된 선경(禪經)으로서 금강경을 통찰하여 실제생활에 응용하면 멋있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 과 목	교 강 사	일 시
금강경과 기업경영	김문웅 선생 (한진그룹 전경영조정실장 자연풍수지리학회장, 서울법대졸업, 국민대강사)	월, 오후 5시~7시
금강경과 법철학	고준환 교수 (경기대 전 법정대학장, 법박, 교불련 초대회장, "한생명상생법")	화, 오후 3시~5시
금강경과 정치철학	정천구 교수 (영산대 전 총장, 서울디지털대석좌교수 "금강경공부하기")	화, 오후 5시~7시
금강경과 문화예술	유종민 교수 (중앙대 전 예술대학장, 시인, 전 교불련회장, "오늘의 금강경")	수, 오후 5시~7시
금강경과 삼가귀감(서산)	최동락 법사 (성대 유학박사 수료, 신선도삼공선원 법사)	목, 오후 3시~5시
금강경과 선시감상	이은윤 선생 (금강신문 전사장, 전 중앙일보편집국장대리 한국불교선학연구원장 "선시")	목, 오후 5시~7시
금강경과 원본 명심보감	정대구 교수 (전 영산대 교수, 시인, 김삿갓시로 박사학위 "양산시편")	금, 오후 3시~5시
금강경과 달마상법	김선형 교수 (인천대 석좌교수,정치학박사, 달마상법 전문가)	금, 오후 5시~7시

▲ 수강료는 매월 한 과목당 10만원이고, 한 학기는 35만원인데, 선납 일시불인 경우 30만원입니다. 4과목 수강생으로 선납 일시불의 경우 100만원이고. 8개 전과목 수강자가 선납일시불인 경우 200만원입니다. 새학기 강의 시작 전 무료 소개강의는 8월 23일(금) 오후 1시부터 본각 선교원에서 전교강사진이 나서 전과목에 대하여 소개하고 문답시간을 가집니다.

▲ 본각 선교원은 또 이와 별도로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깨달음을 위한 시각법회(始覺法會)를 프리로 열고 있습니다. (법사 : 선재 박준수 변호사, 아하 광파 고준환 교수 – 법화경과 선어록 중심)

본 각 선 교 원 (석가대학원) ☎ 전화 02)762-4848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206호 http://cafe.daum.net/BonGagAcademy

“한국 전통문화 속에 ‘불교’ 있음을 느꼈어요”



8월 3일 대구 동화사에서 파리7대학 참가학생들이 3보1배를 하고 있다. 이번 방한은 지난 2001년 프랑스를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대표단의 약속으로 이뤄졌다.



8월 5일 범어사에서 수불 스님이 화두를 전하고 있다.



얀익교수(사진 왼쪽)와 참가학생들의 손가락을 팅기며 화두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범어사 주지실 앞에서 수불 스님과 함께 웃는 참가학생들

파리7대학 학생 방한 한국문화체험

8월 5일 금정총림 범어사에는 선수행 체험을 위해 푸른 눈의 프랑스 청년 18명이 산문을 들어섰다.

한국의 전통 및 불교문화의 체험을 위해 한국을 찾은 파리7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이었다. 이들이 범어사를 찾은 인연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불교 세계화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자승 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은 파리7대학에서 한국어학과 현황을 살피고 한국 초청을 약속했다.

8월 1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초청으로 입국한 이후 이들은 동화사와 불국사, 범어사, 해인사 등 한국의 주요사찰을 방문해 발우공양과 참선, 예불 등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경복궁, 첨성대, 한옥마을, 자갈치시장 등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여러 사찰에서 불교전통을 체험했지만 범어사 주지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표정은 긴장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저마다 팔목에 감겨 있는 염주를 만지작 거리기도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학생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앞에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지도법사로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수불스님의 물음에 “거울을 보면 볼 수 있다.”고 한 학생이 답변했다. “그럼 거울에 있는 눈은 나를 볼 수 있는가?”라고 묻자 답변이 막혔다. 막힘에서 스님의 법문이 시작됐다.

“눈을 통해 보여지지 않는 것은 없다. 하지만 눈이 보는 것은 아니다.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인가?

생명?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이 보고 있다. 볼 수 있다.고 말들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자신이 체험해서 깨달아야 한다. 선은 체험이다. 무엇인가 정신적 벽에 부딪혀야 선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8월 1~8일 불국사 · 해인사 등 탐방
동화사서 무더위에도 3보 1배 참배
범어사서 수불 스님과 간화선 화두 참구

스님의 물음이 깊어지자 학생들의 침묵의 깊이만큼이나 눈빛이 빛을 더한다. 짧은 시간 무엇이 오고 갔을까? 못내 궁금했던지 푸른 눈의 학생들이 이내 질문을 쏟아낸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교에서 부자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한국 선, 중국 선, 일본 선이 어떻게 다른가?”

숱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사이 인솔을 맡은 얀익 교수가 질문했다.

“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신적 벽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스님이 답했다. “손가락을 튕겨 봐라.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가? 머리? 나? 손가락?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죽은 사람 손가락도 손가락인데 왜 그 손가락은 못 튕기나? 그럼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신? 생명? 영혼?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간화선이다. 인연이 있으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 답을 찾아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두 시간이 훌쩍 지난 그들의 얼굴에 때로는 웃음도 지피고, 때로는 침묵과 눈빛만 더욱 깊어지기도 했다. 평소 가부좌가 불편한 이들이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두드렸다 주물렸다 할 즈음에야 선체험 시간이 끝이 났다. 짧은 선체험 시간동안 숙제를 풀었는지, 인연을 맺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긴 잠에서 깨어난 듯 일행의 얼굴은 한 층 밝아졌다.

나웰 학생은 “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 보는 것이다’ 는 스님의 질문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현재 이 감정을 뭐라 말 할 수 없지만, 한국불교와 선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좋은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로 유학을 결정한 마리 학생은 “스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매력을 느꼈다. 선수행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든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파리7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8월 3일 대구 동화사에서 3보 1배 등을 하며 불교정신을 느꼈다.

대구 동화사 참배는 체감온도가 40도를 넘는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진행됐지만 참가 학생들은 꿋꿋히 일정을 소화했다. 이른 아침부터 예불을 올린 참가학생들은 보호대를 차고 스님들과 함께 3보 1배를 올렸다. 비오듯이 땀이 흘렀지만 이들은 묵묵히 하심의 자세로 자신을 내려놨다.

이라카 넬리 학생은 참배 후 “전체 일정 중 동화사 참배가 가장 인상 깊다”며 “사찰 방문에서 만난 스님들이 함께 참배하며 큰 지혜를 주신 것 같다”고 체험 소감을 밝혔다. 또 합천 해인사에서는 장경각 참배를 비롯해 대장경 축전을 앞둔 준비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참배 등도 진행했다.

파리7대학 얀익 교수는 “불교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문화의 바탕에는 불교문화가 깔려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깨닫게 된 기회였다”며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된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간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 범어사=박경수 부산지사장

“격년 정기 초청 할 것”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8일 파리7대학 학생들의 예방자리에서 “프랑스로 돌아가 한국방문에 대한 설문자료를 보내주길 바란다”며 “자료를 검토해 격년으로 파리7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초청해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한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방한 학생들은 파리를 상징하는 노틀담성당 사진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선물했다.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신제품 경전학습기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주인공 인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선정

이양우 대표 “청소년·군부대·직장 등 찾아가는 인성교육 펼칠 것”

지난 3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재구, 이하 진흥원)에서 실시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불자로 구성된 팀이 선정돼 눈길을 끈다. 바로 ‘주인공 인성(대표 이양우)’ 팀이다.

진흥원은 3월 5~25일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사회적기업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공간과 전문적인 경영지원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모집했고, 주인공 인성 팀 외에 350팀을 선정했다.

이양우, 문정주, 김현국 등 3명으로 구성된 주인공 인성 팀은 진흥원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양우 대표는 “사회적으로 바른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창의적이고 올바른 인성교육을, 군부대 장병에게 밝은 인성으로 명랑한 병영생활을, 직장인에게는 경영자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회사문화와 직장관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양우 대표는 한마음과학원 인성교육연구회 활동을 거쳐 2013년 현재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인성교육 강사로 있으며, 문정주 팀원은 군부대 인성교육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군 상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김현국 팀원은 바른인성실천모임 인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주인공 인성은 30여 년간 교육계·군·업체에서의 경험으로 얻은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해 사회적기업으로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강사활동을 하면서 인간관계 형성의 핵심이며 소통의 통로인 마음에 집중해 올라오는 마음을 내려놓고 비움을 통해 분노조절을 다스리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불교적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밝고 건전한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인공인성 대표 이양우

주인공 인성은 현재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이다. 오는 9월에는 ‘주인공인성협동조합’을 설립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인성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인공 인성은 △인성교육 △체험교육 △캠프 △심리상담 등 네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한다. 인성교육을 원하는 교육·공공기관 또는 사설기관에 파견을 나가는 형태다.

이양우 대표는 “학교폭력예방, 자살예방, 인터넷 중독, 군부대 적응, 올바른 직장문화형성 등 인성교육 이론 강의와 상담 및 불교 명상캠프를 접목해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을 할 것”이라며 “불교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에 관심 있거나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든 ‘주인공 인성’에 동참 가능하다”고 말했다. (010)5462-2505 이나은 기자

금강경에 사회과학을 접목하면?

본각선교원, 9월 2일부터 ‘금강경 생활특강학기’

금강경에 경영·법·정치 등 사회과학 및 문화를 접목한 특강이 열린다. 본각선교원(원장 고준환)은 복잡한 현실생활에서의 번뇌 없는 행복한 생활을 위해 ‘금강경 통찰 생활 특강’ 가을학기를 개강한다.

본각선교원은 9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수강생을 수시 모집해 매일 강의를 진행한다.

강사진은 금강경과 참선 등을 40여 년 참구해온 제반 학문의 원로 교수불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강경 통찰 생활특강’은 △월요일 오후5시-금강경과 기업경영(김문웅 선생, 前 한진그룹 경영조정실장) △화요일 오후3시-금강경과 법철학(고준환 교수, 경기대 前 법정대학장) △화요일 오후5시-금강경과 정치철학(정천구 교수, 영산대 前 총장) △수요일 오후5시-금강경과 문화예술(유종민 교수, 중앙대 前 예술대학장) △목요일 오후3시-금강경과 삼가귀감(최동락 법사, 신선도 삼공선원 법사) △목요일 오후5시-금강경과 선시감상(이은윤 선생,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금요일 오후3시-금강경과 원본 명심보감(정대구 교수, 前 영산대 교수) △금요일 오후5시-금강경과 달마상법(김선형 교수, 인천대 석좌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고준환 원장은 “강사진은 탄허 스님, 청담 스님, 前 동국대 총장 백성욱 박사 등으로부터 내공을 전수받은 분들이어서 각기 다른 전공의 교수들이 불교와 전공과목을 하나로 꿰뚫는 수월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강료는 매월 한 과목당 10만원, 한 학기는 35만원이다. 새학기 강의 시작전 무료 소개강의는 8월 2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에 위치한 본각선교원에서 전교강사진이 나서 전 과목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본각선교원에서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이밖에 본각선교원은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깨달음을 위한 무료 시각법회(始覺法會)를 열고 있다.

고준환 원장은 “본각선교원은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불교강의와 법회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며 “금강경은 불경가운데 반야부의 중심대승경이며, 깨달음과 직결된 선경(禪經)으로서 금강경을 통찰해 실제생활에 응용하면 멋있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62-4848 (cafe. daum.net/BonGag Academy) 이나은 기자

마음치유사 2급 지도자과정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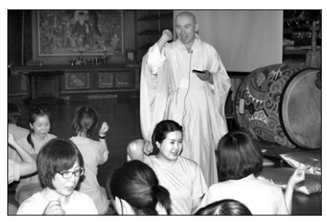
9월 개강 앞서 8월 24일 공개강좌도

자비명상(대표 마가)에서는 제4기 마음치유사 2급 지도자과정을 모집한다. 9월 4일 개강하며 매주 수·목요일 동국대 평생교육원 학술관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자비명상은 “마음치유사란 마음공부를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며 다른 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치유와 예방, 그리고 교육과 수련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수료후 템플스테이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명상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수업은 총 4과목 8강좌 총 300시간으로 진행되며 3박 4일의 워크숍이 포함된다. 1년 2학기 과정으로 수강료는 한 학기당 120만원이며 단과반 수강(과목당 35만원)도 가능하다. 과목은 △자비명상과 긍정심리 △마음치유와 불교수행(불교상담과 알아차림 명상) △마음치유의 실제(명상지도, 미술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워크숍에서는 불교상담 자비명상 아비담마 등 불교적 강좌와 함께 웰다잉 영화치료, 마음치유 연극, 심신치유, 놀이치유, 미술치료, 싸이코드라마, 음악치유, 원예치유, 글쓰기치유 등다양한 활동이 마련돼 있다.


마가 스님이 마음치유사 2급 지도자과정을 지도하고 있다.

강사로는 마가 스님(자비명상 대표), 황수경(불교여성개발원 명상리더십센터장), 김잔디(상담심리전문가), 이지원(자비명상 지도자) 김열권(위빠사나붓다선원장), 담소 스님(마음그림연구소 ‘온새미로’ 대표,) 김혜원(로뎀나무 심리상담센터장) 등이 참여한다.

마음치유협회는 이번 강좌에 앞서 마음치유사 지도자 과정 공개강좌도 실시한다. 8월 24일 오후 2~4시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자비명상에서는 차(茶)명상치유 지도자과정 수강생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수업이 진행되며 1년 과정 30주 수업으로 수강료는 130만원이다. 또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스님들을 위한 자비명상 지도자과정도 운영한다. (02)2260-3728 정혜숙 기자



대불련은 제4회 영부디스트캠프의 여법한 행사를 위해 지난 7월 17일 제주도 일대에서 리더십 연수를 진행했다.

대학생 불자들 모두 모이자

대불련, 8월 17~20일 영부디스트캠프 진행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박지연, 이하 대불련)은 대학생 불자들의 역량결집과 신심증진을 위한 제 4회 KBUF Young Buddhist Camp(영부디스트캠프, 이하 영캠프)를 오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동국대학교 및 서울 일대에서 개최한다.

청춘 대학생 불자 200여명과 함께하는 이번 영캠프는 ‘Let’s Go! 빛나는 청춘’을 주제로 각자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스스로가 가진 빛나는 가치의 발견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서의 삶, 곧 붓다로서의 삶을 함께 깨쳐가는 시간을 갖는다.

8월 17일 저녁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진행되는 ‘대불련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신호승(붓다의 대화 연구소 부소장)씨와 붓다로 살자, 붓다로 대화하자를 주제로 ‘Buddha’s Dialogue’, 철학자 강신주씨와 청춘토크파티 ‘지금 우리는 더 행복해 졌는가?’를 함께한다.

또한 올 해 대불련 창립 50주년(1963년 창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불련 창립의 서원을 세운 봉은사와 창립 선언을 한 동국대학교를 잇는 법등미션프로그램 ‘Mission IN Possible’을 진행한다.

이 밖에서도 아침예불, 법등미션프로그램 ‘알法友를 지켜라!’, 한밤의 남산힐링산책, 마음나누기 등 대학생 불자들이 젊음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번 영캠프에는 대불련 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빛나는 청춘과 열정을 가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대불련 홈페이지(http://www.kbuf.org)를 통해 가능하다. (02)732-0239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오조 홍인 스님의 전법도량인 오조사를 방문한 공불련 불자들

공무원불자, 중국선불교 원류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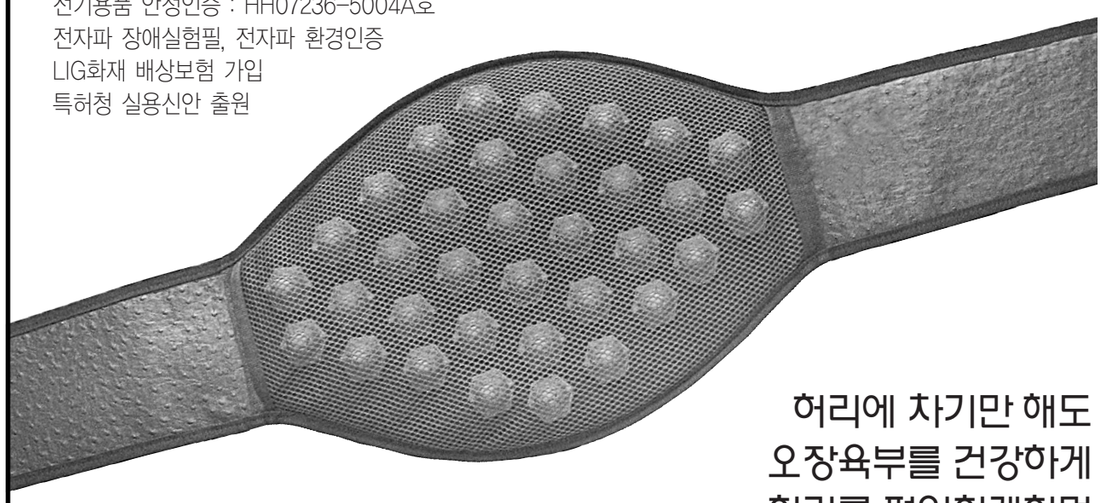
공불련 12차 해외성지순례 성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는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중국 선정사찰을 순례하는 ‘공불련 12차 해외성지순례’를 성료했다.

공불련 12차 해외성지순례에는 송도근 고문을 비롯해 8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불자 16명이 동참했다.

공불련은 도신 스님의 행화도량인 쌍봉산 사조사와 홍인 스님의 행화도량인 빙무산 오조사, 승찬 스님의 행화도량인 천주산 삼조사, 중국의 5대 석굴중의 하나인 대족 보정산 와불과 마애석각 등을 참배했다.

공불련은 “중국 대륙 곳곳에 퍼져있는 중국 선불교의 원류지를 찾아가 불자로서 수행을 다짐하고 회원 상호간의 우의도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프리카에 불자 관심↑…6억 7천만원 모금

아름다운동행 9월 9일 탄자니아 농업학교 기공식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산 스님(맨오른쪽)은 템플스테이 참가자 150명의 참가비 71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해용 · 권정옥 부부는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도 축의금과 적금을 모아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했다.

한국불교계에서는 최초로 조계종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학교에 대한 세간과 출세간의 관심이 높다.

지난 5월 '아프리카 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선포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 6억 7천만원이 모인 것. 아름다운동행이 책정한 건립 예산인 30억 원 가운데 약 4분의 1에 달하는 액수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5월 선포식을 개최 후 모금활동을 본격 시작해왔다. 선원수좌회를 비롯해 스님과 독지가 등 많은 이들이 아프리카 복지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금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지역분쟁과 전염병 및 높은 문맹률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여서 인지 불자들은 어느 때 보다 더욱 관심을 갖고 십시일반 보시금을 전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최근 아름다운동행에 돌잔치 축의금과 자녀를 위해 모아둔 적금 등 1천만 원을 보시한 부부가 그 첫 번째 주인공이다.

대구에 사는 이해용 · 권정옥 부부는 어릴 적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남편 이해용 씨의 잦은 이직과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늘 이웃의 도움을 받아오며 살아왔다.

3년 전 늦둥이 아들을 낳은 이 씨 부부는 "어렵게 얻은 아들의 돌잔치 축의금을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노라고 생각하던 차에 중학교 3학년인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8월 8일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기금으로 71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기금은 7월 5~7일 진행된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2030 마음치유 템플스테이' 참가자 150명의 참가비 전액으로 마련됐다.

지난 해 5월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를 출간해 베스트셀러로 꾸준한 사랑을 받은 정목 스님도 지난 7월 인세 일부인 2천만원을 건립 기금으로 쾌척했다.

정목 스님은 "조계종단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청소년들에게 농업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삶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며 기부의 뜻을 전했다.

이 밖에 아름다운동행의 감사를 맡고 있는 김봉석 변호사가 108만원의 기금을, 불자로서 평소 불심이 깊은 박홍우 법원장(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이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전국 사찰과 불자 개개인이 십시일반 정성금을 보내오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이 3달 간 6억 7천만원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선원수좌회의 도움이 가장 크다.

조계종 선원수좌회(대표이사 의정)가 지난 5월 아프리카 학교건립을 위한 나무 갤러리에서 진행된 선서화전을 통한 수익금 중 5억 원을 쾌척했기 때문. 그래서 일반 불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아프리카에는 인간답게 살아갈 생활환경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식량을 제공하고 우물 파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들이 배움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각종 분쟁과 기아 · 질병으로 악순환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의 현실에 공감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9월 초 개교를 계획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은 9월 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농업기술학교 기공식을 개최한다. 또한 기공식에 동참할 참가자를 모집해 나눔투어도 진행한다.

9월 6~15일 7박10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나눔투어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사업장 및 케냐 나이로비, 마사이마라 지역 등을 둘러보며 빈곤으로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프리카의 문화와 환경 등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됐다.

아름다운동행의 아프리카 학교건립 동참에는 벽돌 한 장 1만원, 책걸상 셋트 5만원, 땅 한평 10만원, 식수대 30만원, 컴퓨터 한 대 100만원, 교실 한 동 1,000만원, 법당 건립 5,000만원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 학교건립을 위한 CMS정기후원도 가능하다(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아름다운동행, 문의 02-737-9595)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익수 법사,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

162명 장교후보생 장기기증 등록, 명예의 전당패 수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오른쪽)과 이익수 법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정행 이익수 법사를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8월 6일 본사 사무실에서 헌정식을 열고 장기기증을 홍보해 162명을 희망등록자로 추천한 이익수 법사의 공로를 기념하며 명예의 전당패를 수여했다.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은 희망등록자 추천 100명 이상을 달성한 회원을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이익수 법사는 법인 설립 초창기인 1995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후 꾸준히 생명나눔운동을 홍보해 왔다. 지난해부터 학림사에서 직접 캠페인을 지원하기 시작해 법당에서만 희망등록자 누적 284명을 기록하고 있다.

일면 스님은 "자비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군 포교와 장기기증 홍보를 결합하여 활동하는 법사님을 보면 대단한 활동력이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한국불교와 국민행복을 위해 정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익수 법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건강하게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장기기증을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이나은 기자

본동복지관, 지구 지키는 '건전지 캠프'

7월 26~27일 30여 청소년 참여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지역 내 청소년들이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13년 청소년자원봉사캠프 '부엉이캠프-건.전.지'를 진행했다.

복지관은 7월 26~27일 관내에서 30여 중 · 고생과 함께 '건전지: 건전한 전기 · 물 사용으로 지구 지키기'를 주제로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보존의 소중함을 느끼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부엉이캠프를 통해 생활 속 작은 절약 방법을 실천하고, 절약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한 나눔장터를 개최해 물물교환을 함으로써 쉽게 버려지는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인식 향상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환경보존을 주제로 골든벨 퀴즈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다문화 전문가 아카데미 과정 개설

한국다문화센터, 9월 10일부터 진행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는 다문화 전문가 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9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8주 동안 이론과 실기 등으로 진행되며, 이현정 다문화아카데미원장,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운영위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문화 이해 과정(다문화의 역사, 글로벌 경제와 다문화) △국가별 이민 · 다문화 정책 사례 △올바른 다문화 활동 전개를 위하여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접수기간은 2013년 8월 15~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비는 교재비 포함 25만원이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번 교육은 글로벌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를 교육관을 지닌 다문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다문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진이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며 "다문화 관련 업무 종사자, 다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 또는 일반인, 다문화 강사를 꿈꾸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생은 (사)한국다문화센터 홈페이지(www.cmck.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cmck@naver.com) 또는 팩스 (02-737-0467)로 접수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다문화센터 (02-737-0467~8)로 문의하면 된다.

이나은 기자

기민지 사회복지사, 새내기 사회복지상 수상

종로노인복지관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국민일보, 삼성전자가 공동 주관하는 새내기 사회복지상 6월 수상자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기민지 사회복지사(27 · 여)가 선정됐다.

기민지 사회복지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뒤, 2010년 9월부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현재 그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보충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맡고 있다. 현재는 올해 초 종로구청 내 오픈한 서울시 고령자기업 '플러스카페'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기민지 사회복지사는 "노인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일자리 제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플러스카페'는 가장 이상적이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맡고 있는 기민지 사회복지사.

이나은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1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신문,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 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8월 20일

5. 문 의 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율종) 불교 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혜인 합장

입종및사찰등록안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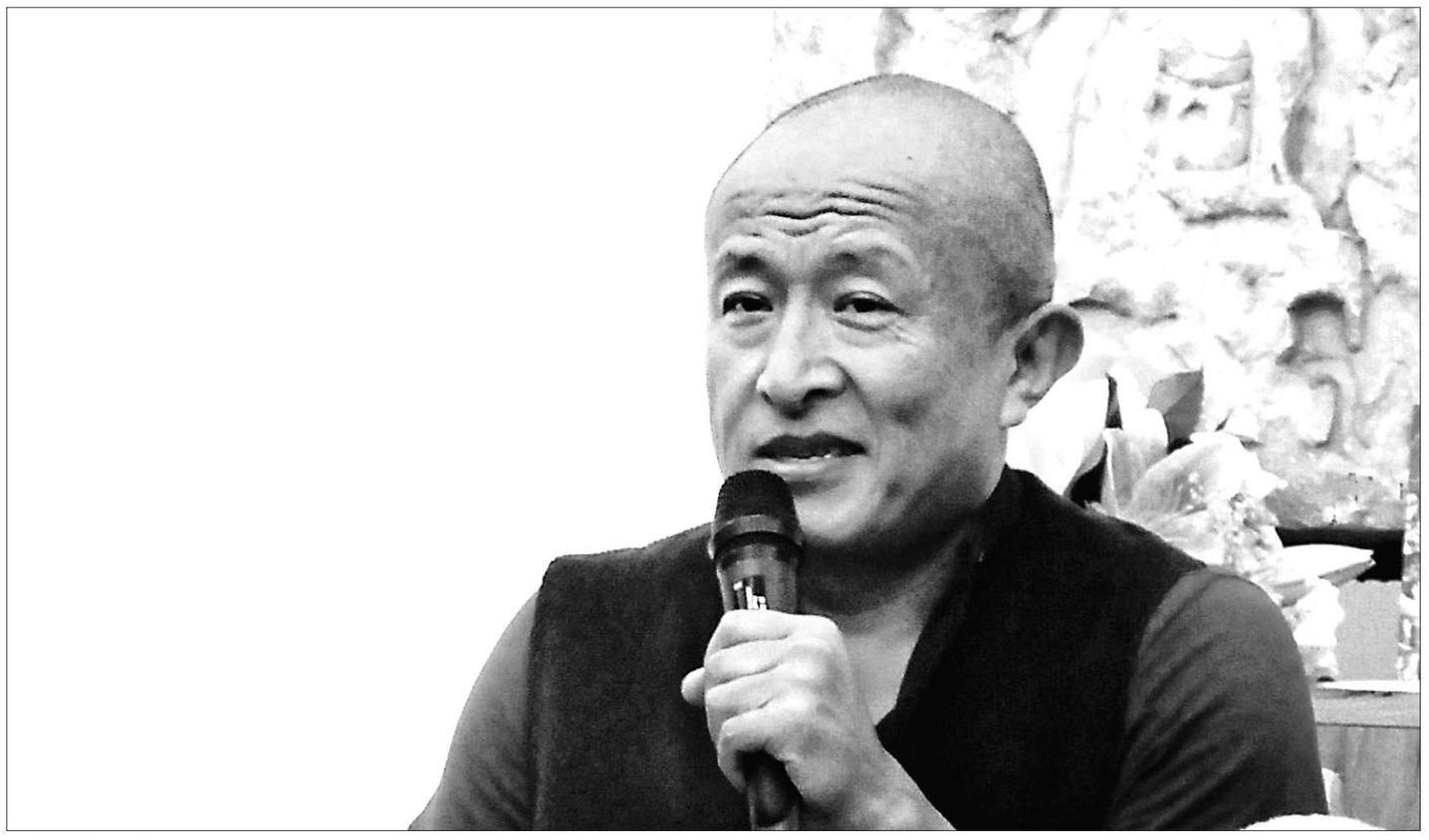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산란심은 고통의 근원… '알아차림' 으로 제거해야

서울 봉은사 명상법회 '일상의 명상'

종사르 켄체 린포체(영화감독)

최근 불교의 4가지 진리를 다룬 책 〈우리 모두는 부처다〉를 펴내고, 신작 영화 '바라, 축복(Vara, a Blessing)'의 개봉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종사르 켄체 린포체. '더 컵' 이라는 영화감독으로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그가 8월 3일 서울 봉은사에서 '일상의 명상' 을 주제로 사람들과 만났다. 특유의 유머와 함께 2시간 동안 이어진 그의 강의는 수행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자신 안에 자리한 순수한 본질이 관세음보살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말해준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 1961년 부탄에서 태어나 7세 때 티베트 불교 개혁가였던 잠양 켄체 왕포의 세 번째 환생자로 판명됐다. 이후 티베트에서 승가대학을 졸업한 린포체는 영국에서 이탈리아 거장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 연출한 영화 '리틀 부다' 의 고문을 맡으면서 영화감독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1999년 월드컵 축구 경기에 빠져든 동자승들의 이야기인 데뷔작 '더 컵(The Cup)' 으로 그해 토론토 영화제 관객상을 받았고,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도 초청됐다. 이 영화는 부탄 최초의 장편영화이자 티베트어로 만든 영화다. 현재 그는 티베트와 인도 등에 있는 종사르 사원 네 곳의 책임자로 2000여 명의 스님을 지도하고 있다. 수행센터 '싯다르타의 의도' 와 복지단체 '연꽃 활동' 을 설립해 수행자와 가난한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일상과 수행에 관한 우리의 오해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일상에서의 수행이라는 주제와 관세음보살에 관해, 알아차림과 관세음보살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선 일상과 수행에 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를 먼저 살펴보죠. 우리는 수행을 좌복 위에서 몇 분간 명상하는 것으로만 한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당, 교회 안에서만 이뤄지는 게 수행은 아닙니다. 일상과 통합돼 모든 일이 수행이 돼야합니다. 따라서 수행은 곧 세속적인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히들 떠올리는 모범적인 수행자에 대한 이미지는 세속을 떠나 수행하는 스님 등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역할 모델도 분명 많이 존재합니다.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은 출가수행자가 아닙니다. 외양을 봐도 아름다운 옷에 귀걸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다를 바 없죠.

세 번째로, 불교 역사는 스님들 위주로 전개돼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부흥은 그 시대의 왕에 의해 큰 발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아쇼카 왕이라든지 몽골과 중국의 황제들이 그 예입니다. 이 왕들이라고 해서 다른 왕들이 하는 일을 안 했겠습니까? 분명 성벽도 세우고 연찬도 많이 열었을 것입니다. 일상과 수행을 얘기할 때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불교의 적(敵)은 '산란심'

정념, 알아차림은 불교수행의 척추이며 대들보 혹은 기둥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알아차림과 관련해 육자진언인 '옴마니반메훔' 을 얘기할 겁니다.

모든 종교는 대적해야할 적들을 상정합니다. 기독교는 사탄, 불교는 산란한 마음이죠. 이외에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악마는 없습니다. 비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관심 받고자 하는 마음, 무시 받을 거라는 두려움 같은 미묘한 산란함 외에도 뭔가에 압도되고 휘둘리는 산란함 또한 심각한 것입니다. 산란심을 왜 걱정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산란심은 아주 나쁜 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을 가져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 마음은 결국 진실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허구의 세상과 상호작용하게 되어 버리죠.

산란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옴마니반메훔' 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이 방법은 생각을 끊게 하는 하나의 속임수 같은 것입니다.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온갖 생각이 떠올라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분 동안 명상한다면 19분 동안은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1분 동안 명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서 좌절에 빠지겠지요. 그러나 굉장히 좋은 명상이며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계속 해 나가보면 알겠지만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몇 십 년이 지나도 집중할 수가 없다고 푸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신이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을 하면 할수록 생각의 기차를 계속해서 탈선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일렬로 기어가는 개미 행렬 가운데를 흐트러뜨리면 뒷따르는 개미가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워 하듯이요.

'옴마니반메훔' 여섯 글자는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우리 몸 안의 기맥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옴' 은 정수리, '마' 는 목, '니' 는 심장에 있다고 묘사됩니다. '옴마니반메훔' 그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옴이라고 염송할 때 그 소리는 몸의 기맥을 이완하고 확장시켜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울하거나 힘들 때 우리는 곧잘 한숨을 쉽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조금 도움이 되죠. 이게 바로 기맥과 그 안에 흐르는 풍기, 마음이 같이 작용한다는 증거입니다. '옴마니반메훔' 은 좌절, 우울함을 변환시켜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을 개발할 수 있는 수천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에게는 무덤으로 가라 얘기하셨죠. 사람 뼈를 쳐다보며 어디에서 이것이 왔는가 질문하며 깊이 숙고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의 느낌에 대해서도 알아차림 해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느낌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신체적 느낌 외에도 행복, 사랑, 우울 등 인간 경험의 90%는 감정이 차지할 겁니다. 좌복이 얼마나 푹신한지, 몸에 닿는 셔츠의 느낌이 어떤지 알아차림 해 보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은 순수한 본질 자체

이처럼 알아차림을 통해 현재 이 순간에 머무는 것, 집착이 전혀 없는 것, 이 자체가 관세음보살과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은 티베트어로 '완벽한 관' 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지각을 이르는 말이며 온전히 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전엔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치 않고, 화나게 한 것들이 신경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아라한들이 한줌의 흙과 금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 처럼요. 만일 완벽히 볼 줄 안다면, 누군가 당신의 외모를 칭찬했을 때 당신은

옴마니반메훔 염송…좌절 · 우울 변환
'관세음보살' 뜻은 완벽한 자각
마음의 순수한 본질이 '관세음보살'

그가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려는 그의 의도가 읽히고 허상에 매어있는 그를 자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은 신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 관세음보살은 연꽃을 들고 있는 재가불자 소년으로 묘사되는 반면 어떤 곳에서는 여성화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관세음보살은 대체 누구입니까? 국적은 어디고 생년월일은 언제죠? 취미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의 수준에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보편성을 가지고 어느 곳에나 어떤 모습으로든 나투니까요. 나툼은 실재는 아니지만 청중을 위해서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한 명의 배우가 작품마다 어느 순간엔 악당이 되었다 좋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러고 보면 부처님 또한 전생의 모습이나 석가모니로서 실존했던 과거 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하나의 화신, 하나의 나툼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일생 자체가 관객들을 위한 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쇼죠.

다시 관세음보살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어느 곳에나 관세음보살은 나투지만, 절대적 차원에서의 관세음보살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여러분 내면의 순수한 의식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 가장 순수한 본질을 간직하고 있을 때 이는 곧 관세음보살 자체입니다. 조작 없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이기에 어떤 형태나 색깔, 모양, 개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런 이유로 손이 천개나 있다든지, 새 혹은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하기 위해선 여러 형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엔 어떤 형태로든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침에 먹은 식사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희망이나 두려움, 오염없이 단순하게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생각의 고리를 따라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고리에 얽히는 과정 속에서 성냄, 탐욕, 질투 등 감정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매미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거슬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세음보살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다름 아닌 우리 본질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관세음보살은 성스럽고 청정한 분인데 나는 허물도 많고 오염된 인간일 뿐이라고요. 이는 타종교에서 말하는 유신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우리라는 생각을 믿는 것, 어렵지만 쉬운 일입니다.

일상생활과 불교적 수행 어떻게 조화시키나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희망과 두려움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성냄과 탐욕이 너무 많이 존재하죠. 이런 곳에 관세음보살이 있는 것만으로, 보는 것만으로 이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는 순간, 그곳이 관음전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기든 법당이든 주방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당신의 어깨위에, 당신의 눈 앞에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하루에 세 번씩 혹은 여섯 번씩 떠올리려는 연습을 하십시오. 잠에서 깨는 순간과 잠들기 직전 생각나는 이가 관세음보살이 되도록 연습하십시오. 생각이 이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저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무상에 대해 얘기하죠. 이걸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점심식사를 할 때 이게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이고 슬픈 얘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식사이기에 정말 맛있을 테고 함께 식사하는 이들이 무조건 사랑스럽게 보일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Hwalbup Apitherapy Correct Master



벌(蜂)침관리사

일침 이구 삼약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벌침(蜂)관리사란?

벌(蜂)꽁무니에 있는 침을 손과 핀셋으로 압통점 및 경혈에 직침과 자침을 하여 일침이구삼약(침/뜸/약)의 동시 효과로 밸런스가 무너진 몸의 균형을 신속히 회복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활법 교정술과 접목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평생 유지되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벌침관리 전문가다.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바른자세와 근육론 / 경혈론 / 증상론 ● 벌(蜂)침의 척추신경 / 경락의 활용법 ● 척추와 아시혈 찾기 / 주의사항 ● 활법교정과 벌침의 직,자침 실기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 교육기간 : 6주과정 (토) 오후 1시 ~ 5시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자
▶ 특 전 : 봉산물 및 가축(봉침)용 양봉기술 전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지구촌 새로운 태양의 빛으로 비구니 보살 대중들이 성불득도하여 중생을 구하는 부처님 열반후 감춰진 7세 용녀 미륵상행과 지적보살화현하는 금년백종일 자시 경신월 경신일 하늘 땅이 응하는 십경신 도통 금년 백종일로부터 갑경칠살로 모든 종교와 지구촌에 천지개벽이 오고 있다

수육보영 진광이 온 우주에 꽉 차있는 태양계의 진광진법 빛으로 사람에게 에너지를 받는 천하제일의 건강과 생명과 운명을 빛으로 연장하는 대비밀장을 공개한는 바이다. 이 기도 수행으로 지구촌 천지개벽과 그 어떠한 핵으로 닥치는 모든 재앙과 질병 저승사자들도 몰아내는 태양계, 진법계, 허공계, 입법계, 중생계에 살아남는 비법이며, 수=만다라, 육=만트라, 보=텍트라, 영=무트라로, 생명을 보호관리하는 천상보살과 천상신장들이며, 우주법계에서 태장계로부터 심나찰녀가 내려와 살생부를 만들어 부모조상 국가와 민족에게 불효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가는 시대가 오므로 이제는 모든종교가 괴멸되고 있으며, 종교로써 부모조상 외면한 모든종교는 물론 민족의 얼과 혼인 원방각 우리글자로 국기를 만든 나라도 주살시키는 시대가 오고 있는것을 천룡진인 환성태일대사는 진광, 진법, 빛으로 인가받아 오는 8월 21일과 22일 자시, 오시에 십경신의 비법을 도인 신선 도통군자 인류스승에 꿈을 안고 따라오는 지망생 진인들에게 이 법을 대령무상이요, 비인도전하니라.
십경신이란 하늘 땅 건, 곤, 간, 손, 동, 서, 남, 북, 십방을 관리하는 우두머리 신장으로써 성불, 도통, 신선, 성현,부귀, 장수, 명예, 권력, 출세, 통치, 결혼, 자손, 거부장자 등 삼라만상 우주와 지구촌 사람사는 곳을 관리하는 최상의 신장들로써 자기대에서만 부리고 자손으로 안가는 십경신 육갑신장 인 것이다. (무당, 만신, 잡신, 천신, 철학, 풍수 운명종사자) 들에게 다시없는 기회

십경신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죽음의 사자를 벗어나는 수행이며, 명이 짧고 못 살고 해도해도 안되는 것은 삼봉마구니들이 표망에 씌워 빙의되어 각종 질병과 고통을 이어지는 것은 명부나 귀부나 살생부에 명제되어 있기에 모든일이 풀어지지 않는 것을 모르고 그저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종교에 의존한다 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리를 풀어주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 것을 십경신 수행 한번으로도 죽엄의 포망에서 벗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삼천갑자 동방삭 강태공 및 역대 성현 등 선지식들과 이 기도는 종교 종파를 초월하는 것이며 중생이나 신선이나 귀신들을 제도할 수 있는 비법을 태양계 하늘로부터 받아 자기 부처 마음이 들어다니는 현관을 찾아 설불득도하여 자신의 운명과 몸에 태산같은 병마와 조상 빙의 신을 해원상생하는 기도인 것이다. 특히, 이번 법회는 ●늙지 않고 수명연장 해원상생 장수법 ●일체마장귀신 해원상생법 ●각종사업 부귀장수 거부장자 주문법 ●각종관제구설 인간구설 삼제팔란 소멸법, 비구 비구니 보살도 성불하는 자성법 ●불임증 및 순산하는 주문법 등 지구촌 최고의 스승이 되는 비법 ●수명연장법 전수 ●조상, 영가 모태영가 처가 외가 영가들을 해원상생법 전수 자신들도 능히 득도할 수 있는 법인 것이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기도입제 : 2013년 8월 21일 수요일 해시
■기도해제 : 2013년 8월 22일 목요일 해시
■준비 : 간편한 옷 세면도구 무박2일 선착순(장소관계)

부산동시법회 보문사 010-8533-1601
계좌 : 농협 029-01-167866 곽 한영 010-3239-3110
02)821-6622, 지윤스님 010-2481-3110 / 010-7228-8567
웅조미륵달마 불선도 경신도통회 총본산 도인 배출도량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조계종 진 불 선 원 태양의 집

종정제 100년…정체성 연구 과제

김광식 교수, '조계종단 종정의 역사상' 심층 분석

불교에서 종단 전통의 상징이자 대표인 종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눈길을 끈다. 그동안 종정직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잣대를 들이대기 조차 껄끄러울 정도의 높은 위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대각사상〉 제19집에서 '조계종단 종정의 역사상' 주제논문에서 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종정 제도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김광식 연구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종정제는 종단 변화에 따라 역할과 위상이 변했다. 근대에 들어오기 전 불교를 대표하는 승려 최고위직은 왕사(王師) 또는 국사(國師)였다. 종정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02년으로 종정과 유사한 교정(教正)이 도입됐다. 1941년 태고사법이 인가되며 종정제가 도입된다. 비구승과 대처승 간의 갈등을 거쳐 1962년 등장한 통합종단에서는 종정 직위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난다. 당시 종정 권한의 확대를 통해 불교 전통 가치를 구현하려는 측과 행정 효율을 통해 불교 발전을 꾀하려는 측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1980년 10 · 27 법난 이후 정화중흥회의는 종헌을 개정해 원로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종정의 중앙종회 추대에서 원로회의 추대권을 옮긴 것이다. 이때 종정은 종단 업무관장에서 상징성을 갖는 대표로 정립돼갔다.

김 교수는 "종정제 초기에는 종단의 대표성과 조직관리 책임자 성격이 함께 주어졌지만, 실무 행정책임자인 총무원장과의 대립이 격화되며 점차 상징성, 신비형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100년 간 유지돼 온 종정제의

위상 변화 · 승단 조직 중요한 문제

율사 · 강백도 종정 추대 가능한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과제 중 첫째는 종정과 종단의 정체성 문제다.

김 교수는 "종정은 종단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종정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종단 정체성이 일정부분 규정된다"며 "선불교를 내세우는 현대 불교계에서 율사, 강백, 현대불교학을 전문으로 연구한 고승도 종정으로 추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100년을 맞은 종정제에 대한 정체성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조계종 제13대 종정으로 추대된 진제 스님

김 교수는 이어 종정의 역할 문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100년간 종정직은 조직관리형, 대표형, 지도자형, 상징형이 혼재했다"며 "종단의 정체성을 지키는 최후의 버팀목인지, 종단 문제와 모순을 해소하는 마지막 해결자인지 자못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세속의 민주성과 승가의 전통성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종통 승계 대상인 종정을 대중들이 불신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종정과 관련한 문제는 조계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27개 종단이 가입해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260여개 종단이 난립해 있어 그만큼의 종정이 존재한다"며 "종정제는 근현대 한국불교사나 승단 조직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근현대 불교문화재 조사 보고서' 나온다

불교문화재硏,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사업 중간보고회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진주 의곡사 궤불조사. 보고서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총괄적으로 다뤄진다.

근현대 불교문화유산 관련 보고서가 출간되고 주요 유물의 국가 지정 문화재 등록이 추진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는 지난달 30일 '근현대문화유산 종교분야(불교) 목록화 조사 연구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목록화 조사 연구 사업은 3월 8일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근현대 불교문화재 조사를 위한 시기 구분 및 유물 선별 기준, 조사방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5월 2 · 3차 자문위원회를 통해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불교전적류 등 분야별 주요 조사대상 유물을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각림 스님은 "이번 목록화 조사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에 관한 조사 및 재정리가 이루어졌다"며 "아직까지 비공개로 남아있는 수많은 근현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밀학술조사의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9월말까지 '근현대 불교문화유산에 관한 목록화 조사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정왕후 어보 찾기 '응답하라 오바마' 시동

문화재제자리찾기, 8월 6일 조계사서 발대식



8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는 100여 시민이 모여 어보 환수를 결의했다.

문정왕후의 어보를 되찾기 위한 백악관 청원 운동 '응답하라 오바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대표 혜문)는 8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0만 청원을 위한 100인위 출범식을 가졌다.

문정왕후 어보는 명종이 어머니인 문정왕후에게 올린 존호인 '성열대왕대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금으로 된 거북이 모양의 왕실 도장이다. 201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로 LA주립박물관(LACMA)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 졌다. 문화재청은 어보가 한국전쟁 중에 미군에 의해 미국을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혜문 스님은 "미국 정부가 전쟁기간 미군이 약탈한 물건은 돌려준다는 행정 원칙을 갖고 있어 반환 가능성이 높지만 백악관 청원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명운동은 환수 시기까지 진행된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에 접속해 서명하면 된다. 서명운동에 2만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335명이 참여했으며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반출 금지 번복 '반가사유상' 뉴욕 간다

국외 반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결국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전시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열리는 '황금의 나라, 신라'(Silla, Korea's Golden Kingdom) 특별전에 반가사유상의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지난달 29일 특별전에 반가사유상의 반출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공식 통보한 지 11일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 포장, 운송 과정에서 전시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조건으로 간곡히 재요청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반가사유상이 그동안 전시를 위해 8회에 걸쳐 약 3천 일간 국외로 반출된 바 있고, 외국은 훼손 우려로 중요문화재의 국외반출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문화재의 보존관리 측면을 고려해 국외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은 매년 6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세계 3대 박물관이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해남 대흥사 천불전 보물 지정

해남 대흥사 천불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시도유형문화재 중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된 해남 대흥사 천불전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807호로 지정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해남 대흥사 천불전은 1813년에 중건된 건물로 대흥사 남원의 중심건물로서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1821년 풍계 현정 스님이 기록한 '일본표해록(日本漂海錄)' 등을 통해 건물의 중건과 천불 조성, 봉안의 역사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건축적으로는 평면 비례, 공포 배치, 상부 가구 등에서 천불을 봉안하기 위한 합리적인 계획 수법을 볼 수 있으며, 공포의 구성과 세부적 조각수법, 빗천장과 우물천장의 장식과 구성, 창호 등은 화려하지만 지나치지 않고 구조 또한 견실하다.

이러한 공포, 빗천장, 우물천장 등의 구성과 세부적 수법은 인근의 보물인 미황사 대웅전(1754년), 불갑사 대웅전(1764년), 불회사 대웅전(1808년) 등과 유사한 수법을 보여주며 비교돼 가치가 높다. 이처럼 대흥사 천불전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천불전 건물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흥사 천불전과 보물로 지정 예고됐던 '남양주 수종사 오층석탑'은 이달 중 보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사硏, '문사철' 여름호 발간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문학/사학/철학' 여름호(통권 제33호)를 펴냈다.

탄허(1913~1983) 스님은 특집으로 다룬 이번호에는 △탄허, 그 위대한 생애와 정신(자현) △탄허 택성의 노장관과 불교관(고영섭) △탄허의 철학사상에 보이는 회통적 사유의 근저(최재목) △탄허학의 골수와 종지(문광) △탄허 택성의 서예미학(이동국) 등 논문이 실렸다.

또 △삼국유사 기이편에 부치는 10통의 편지(혜산)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에 대한 포노로지의 반론(박정진) △불성은 어떻게 표현되는가-조선후기 극락구품도(강소연) 등 글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硏, 전국구도회 수련대회 개최

(사)한국불교연구원(원장 리영자)은 8월 15~17일 경기도 광주 유마정사에서 제40회 전국 구도회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수련대회에서는 前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인환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대승의 보살계경', 이윤성 서울대 교수의 '죽음을 대비한다', 리영자 한국불교연구원장의 '대승불교의 보살교단을 지향하며' 등 강의가 진행된다.

또 예불, 참선, 좌담회, 음악회 등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15일 오후 3시 유마정사에서는 큰법당 낙성법회도 개최된다. **노덕현 기자**

봉행

불기 2557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헌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 종도수련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 2557(2013)년 9월 2일 ~ 9월 4일 (음 7월 27일 ~ 7월 29일)
◆ 입 재 : 불기 2557(2013)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 (입소등록 당일 오후 2시까지 접수요망)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 세면도구 등
◆ 장 소 : 충남 금산군 군북면 천을리 638번지 일천지원 (041-753-8558)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055) 25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1-9704-3247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대승종 중앙 종의회 · 대승종 교구종무원

※ 합당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교육원법 제6조에 의거 법계고시 및 종단임직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기 무여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8월 28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8월 29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호남불교계, 청소년 계도 발벗고 나섰다

광주소년원 여름불교학교 · 비행청소년 템플스테이 다채

호남불교계가 청소년 탈선을 막기 위한 특별한 여름 프로그램을 펼쳤다.

고령정보고등학교(광주소년원) 불교관은 8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2013년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이날 여름불교학교에는 20년 가까이 교정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과 여래사(주지 선엽)가 주최하고 포교사와 신도들이 자원봉사로 나섰다. 행사에는 어린 나이에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참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광주 소년원생 30여명이 참여했다.

고령정보고등학교에는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이 매주 수행과 기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름과 겨울에는 불교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계종 여래사의 스님과 신도들이 참여해 소년원생들에게 재활의 힘을 보태고 있다.

행사는 이재언 포교사의 사회로 오전 10시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지현 스님의 레크레이션, 명상수행, 불교영화 상영, 불교기초교리, 서승례 포교사의 신행상담, 법문 등이 진행됐다. 행사시간은 소년원생들의 일과시간인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2일간 진행됐다.

입재식에서 선엽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는 자기 자신을 바로 직시하는 것으로, 항상 변화하는 마음을 믿고 행동하지 말고 행동하기에 앞서 현재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불교여름학교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잘 공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문에 이어 소년원생들은 다짐문을 통해 "이번 불교행사를 통해 자신과 삶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읽히고 배우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난날의 죄업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어떠한 범죄의 유혹을 끄달리지 않는 불자가 되게 하옵고, 그리하여 이곳에 배운 정진의 힘으로 자신을 극복하고 진실한 불자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입재식에 이어 원생들은 포교사와 여래사에서 마련한 과일과 음료수 등 간식이 제공됐다.

행사를 준비한 광주전남지역단 포교1팀(팀장 서순자)은 행사의 의미해 대해 "인간의 성장기에 있어서 중요한 청소년기를 잠시 방황과 일탈로 고통 속에 지내야하는 소원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세상에 대한 바른 견해와 올바른 행동을 깨닫게 하고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찰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템플스테이 등이 열렸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덕진경찰서(서장 신일섭)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고령정보고에서 소년원생들에게 법문하는 여래사 주지 선업 스님.

지난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매회 각 10명씩의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참여해 일안 스님의 지도로 심신치유를 위한 기체조, 108 참회, 발우공양, 나만의 염주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참여 학생들은 대부분 호기심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며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자신들의 지난 행동에 대한 후회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학생은 "템플스테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따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을 비우고 108배를 하면서 기도문 구절마다 가슴에 와 닿았고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고민을 털어 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일섭 덕진서장은 "앞으로 비행청소년의 바른인성함양을 위해 학생들의 만족도와 재발방지 효과가 큰 템플스테이와 같은 지역사회 선도프로그램을 연계해 학교폭력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은 "전통의 계승도 중요하지만 항상 새로운 것의 개발도 필요하다" 며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역할이 커져야 한국불교도 발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광사는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일명 나비채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 흥국사 어린이 영어템플스테이

임진왜란 승군의 주둔지였던 여수 흥국사(주지 명선)는 지난 8월 2일~4일 2박 3일간 'Summer Vacation Stay with Monk'라는 주제로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어린이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지도법사 스님과 3명의 원어민 교사, 한국인 교사의 지도하에 예불, 숲속 걷기 명상, 울력, 어린이 마음거울 108지침서, 영어수업, 물놀이, 단청배우기, 부모은중경 공부, 부모님께 영어로 편지쓰기, 문화탐방 등 다양한 영어프로그램과 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들의 마음가짐을 담은 영어로 된 108배 기도문은 이날 첫 선을 보여 큰 관심을 자아냈다.

행사의 시작은 2일 오후 3시 입제식을 시작으로 반별 소개와 흥국사 탐방을 시작했다. 3개의 반에는 1~2학년 문수반, 3~4학년 보현반, 5~6학년 관음반 나눠 학년별로 담당교사의 인솔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명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영어 템플스테이를 통해 글러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영어가 자기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데 큰 장점으로 부각되길 바라며, 우리 전통문화와 예절 그리고 불교의 참선을 영어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에는 어린이들이 사찰의 문화와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간으로 예불, 숲속걷기 명상, 울력, 물놀이, 단청배우기, 부모은중경 그리기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사찰예절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발우공양, 영어 108배, 영어로 배우는 부처님 말씀 등이 진행돼 아이들이 사찰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치유·소통' 백양사 청소년 명상캠프

최근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소년 명상캠프가 장성 백양사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원)이 지난 6월부터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는 불교명상캠프 '청소년 마음등불'이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8월 2~4일까지 장성 백양사에서 개최됐다.

광주비로자나명상센터(센터장 정명)가 주최하는 이번 명상캠프에서 한국명상상담학회 전문 강사들은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명상을 통한 치유와 소통방법들을 전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에니어그램 검사, 성격유형별 특징 이해하기, 안전한 공간 만들기, 바디스캔, 불편한 경험탐색하기, 마음 작동 모델 설명, 명상과 호흡, 오감명상, 수식관, 영상관법, 소통의 대화법, 소감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태와 감정들을 체험하고 일상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됐다.


백양사 청소년 명상캠프에는 30여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정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명상캠프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격을 성찰하고 이를 명상적 요소를 통해 해결과 실천방안까지 얻어가는 행사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비로자나명상센터는 매월 넷째주 토 · 일요일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8개월 과정의 명상치료사 3급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특정종교 성지화 계획에 '불교는 들러리'

전북 불자, 종교관광 활성화 계획 백지화 요구
주요 불교 종단에 세계순례대회 불참 호소

전주시(시장 송하진)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종교관광 활성화 계획'에 대해 불교신행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다. **(관련기사 본지 952호, 전주시 종교관광정책, 종교편향 파문)**

24개 신행단체로 구성된 '특정종교 성지화반대 대책위' (상임대표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택회 전북불교문학회장, 오종근 전북불교시민연대 공동대표, 이하 대책위)는 8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주시의 특정종교 성지화 활성화 계획에 대한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또 금산사, 선운사, 태고종, 천태종 등 주요종단의 사찰과 신도회에 발송된 '조계종 지역교구본사 및 지역사부대중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오는 9월 28일 개최예정인 세계순례대회에 불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함께 대책위는 전북주요 사찰 입구 등 50개소에 '특정종교 성지화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종교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종교관광도시는 한(韓)스타일을 기치로 한식, 한옥, 한지, 한방을 육성하는 전주시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수천년 전주역사를 왜곡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6대 종교가 서로 소통하게 한다는 발상은 특정종교 성지화 사업추진을 위한 위장전술이며 특정종교 성지화를 위해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를 들러리 세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전라감영의 복원 등 산적해 있는 숙원사업을 제쳐놓고 특정종교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했다. 세계순례대회라는 명칭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정종교행사도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전북지역은 수많은 민간신앙과 민족종교의 발상지 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순례대회는 특정종교의 성지만을 연결해 놓았다"며 "위대한 관광자원은 전통문화에 근간한 역사정신을 찾는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로부터 '중바위' '승암산(僧巖山)'이란 고유지명대신 특정종교에서 사용하는 '치명자산성지'를 지자체 및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도심의 도로안판 표기를 승암산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주요종단의 사찰 및 신도회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화합차원의 세계순례대회에 불교 또한 중차대한 종교화합의 대의를 저버릴 수 없어 동참해오고 있었지만 타종교들은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꾸준히 있어 왔다"며 "전주시 종교관광화 활성화 계획으로 특정종교의 성지화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종교화합을 빌미로 타 종단을 들러리 세워 특정종단의 목적달성에 이용하고 있는 세계순례대회에서 불교계는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특정종교편향의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종교성지화 계획이 백지화된 후 각 종단이 명실공히 화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순례길 연구사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보장될 때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불교계 지도자들에게는 향후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의 특정종교편향정책에 대한 수수방관과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바라보다 소탐대실한 역사가 되지 않아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모든 것이 밝혀진 현시점에 불교계가 계속 참여한다면 세계순례대회 조직기록에 의해 후대에 전주를 천주교성지로 만드는 데 일조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며 "이제는 현명한 판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다"고 세계순례대회에 불참할 것을 거듭 호소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제불교도래지 · '불갑사' 영광 9경에 선정

전남 영광군 '9경(景)' 먹거리 '9미(味)', 살거리 '9품(品)' 발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법성포와 불갑사가 영광 9경의 하나로 선정됐다. 영광군(군수 정기호)은 7월 25일 볼거리 '9경(景)' 먹거리 '9미(味)', 살거리 '9품(品)'을 발표했다. 9경, 9미, 9품은 '아름답고 행복한 영광' 주제로 국민참여 공모와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9경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법성포와 불갑사 외에 불갑수변공원, 불갑산상사화, 백수해안도로, 가마미해수욕장, 숲쟁이공원, 천일염전, 송이도가 포함됐다. 먹을거리 9미는 굴비한정식, 간장게장, 황금보리돼지, 보리새우, 덕자찜, 황토갯벌장어, 청보리한우, 보리떡(빵), 백합이 선정됐다. 살거리 9품은 영광굴비, 모싯잎송편, 천일염, 대마할머니막걸리, 간척지쌀, 태청딸기, 태양초고추, 찰보리쌀, 설도젓갈 등이다.

영광군은 9경, 9미, 9품을 올해 하반기부터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스토리텔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마음을 마음껏 버려라 놓아라 비워라!

한마음선원 학생회 8월 2일~ 4일 여름수련회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학생회(지도법사 혜모 스님)는 8월 2일~ 4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여름수련회를 진행했다. '버려라! 놓아라! 비워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는 중·고등학생 140명과 학부모 30여 명이 함께 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게임, TV시청 등을 마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가고자 하는 자녀들을 대견해 하며 공양 준비 등의 수련회 뒷바라지에 보이지않는 손길을 보태 훈훈함을 더했다.

입재식에서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기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기이니 내 안의 부정적 사고를 비워내고 스스로가 지은 생각의 틀을 깨는 이번 수련회야 말로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열어 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첫날은 어색함을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풀어내는 조별모임과 춤명상을 통해 생각에 끌려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버리는 연습을 하는 '버려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이동 나를 몽땅 내려 놓는 '놓아라'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구성된 임원단들이 직접 구성, 연출한 연극 '내 마음을 밝혀가는 촛불재' 공연과 수련회를 통해 느낀 마음을 노래로 불러보며 나누는 '힐링 캠프' 등으로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날에는 미션을 통해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생각, 순간순간의 감정을 버리고, 놓고, 비워보는 활동으로 수련회를 회향했다. 이번 수련회를 함께 한 140명의 학생들은 신나게 버리고, 힘껏 놓고, 마음껏 비운 것을 마음의 에너지로 채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한편, 한마음선원은 부산지원 어린이회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지원 도량에서 수련회를 가진 것을 비롯, 대구, 목포, 통영, 울산 등 각 지원별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가 각 지원 도량과 치악산, 설악산, 청량산 등지에서 수련회를 열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학생회는 8월 2일~ 4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여름수련회를 진행했다.

성철 스님 봉훈관 강제철거·출입로 봉쇄

토지소유자와 분쟁 발생…이견 좁히지 못해

한국을 대표하는 선지식이었던 성철 스님의 유훈이 담긴 부산 해월정사 봉훈관의 일부가 지난 7월 17일 이른 아침, 법원 집행관과 동원된 굴착기에 의해 강제 철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성철 스님의 맏상좌로 해월정사의 회주로 있는 천제 스님은 "오전 9시경 철거를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집행관이 용역직원 80여명과 굴착기를 동원해 갑자기 들이닥쳐 무자비한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해월정사의 봉훈관 출입계단, 석등, 식당 건물, 화단 등을 철거하고 봉훈관 출입로를 펜스로 봉쇄해 사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스님과 신도 등 10여 명이 혼신을 다해 막아 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2004년 이모 씨 등 2명의 사유지를 포함한 땅에 봉훈관과 식당 등을 신축하면서 토지 매수를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월 사용료를 지급해 오던 중 토지소유주의 갑작스런 과도한 사용료 인상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며 "수차례 보상규모를 놓고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분쟁이 되는 땅은 적광전과 봉훈관 사이 561평방미터(170평) 규모의 봉훈관 진입로로 현재 굴착기로 마구잡이로 파헤쳐진 채 펜스로 양쪽이 모두 봉쇄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현재 봉훈관 출입을 위해 식당옥상에서 봉훈관 사이 임시로 다리를 놓아 위험한 왕래를 하는 중이다.

해월정사는 "사찰의 사정으로 잔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우리측 잘못이다. 하지만 사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귀중한 불교유산의 관리에 위험을 초래한 강제집행과 무자비한 토지인도에 대해 종교 탄압으로 보고 순교 차원에서 목숨을 걸고 대처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강체철거로 훼손된 봉훈관 전경

"함께 즐기며 힐링하는 불교 만들자"

부산진구불교聯 회장 무원 스님·신도회장 이헌승 국회의원

부산진구불교연합신도회가 8월 2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이 부산진구불교연합회 회장에, 이헌승 국회의원이 부산진구불교연합신도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 회장 무원 스님, 고문 혜총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효원 정사와 사무총장 범산 스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스님과 이헌승 신도회장, 부산광역시 김종해 부시장, 김석조 시의장, 서병수 국회의원, 나성린 국회의원,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한 내빈과 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

무원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부산진구 불교의 새로운 비전과 화합을 이끌어 내고, 불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기며 힐링 할 수 있는 지역불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부산진구불교연합신도회 이헌승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항상 처음 마음을 잘 간직하여 부산진구불교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 회장 무원 스님은 천태종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총무원장 직무대행 등을 지냈고, 현재 천태종 종의회 부의장,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회장,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이번 부산진구불교연합회의 출범은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가 추진중인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구역별 조직 활성화에 힘입어 올해 들어 세 번째 구역별 연합회 출범으로, 가장 많은 사찰이 있는 부산진구불교연합회의 재창립과 무원 스님의 회장 취임으로 구군 단위 불교연합회를 재정비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진구불교연합신도회가 8월 2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절마당, 건물과 조화 이뤄야

모든 건축공간은 건물로 둘러싸인 중심부나 건물의 주변부에 빈 공간을 둔다. 그 빈 공간이 바로 마당인데, 마당은 건물과의 상관성에 따라서 성격이나 형태, 규모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사찰은 마당을 통해서 사찰공간의 독특한 특성을 찾기도 한다.

불교가 전래된 초기단계에 지어진 사찰의 마당은 건물이나 회랑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폐쇄성이 아주 강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찰이 산지로 옮겨가면서 자연지형에 순응해서 건물을 앉히다보니 마당의 폐쇄성이 약해지게 되었다. 건물을 떨어트려 짓고 회랑이 없어져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빈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찰의 마당가운데에서도 법당 전면의 마당은 사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탑이나 석등과 같이 사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석조물들이 자리를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도 쓰인다.

그야말로 도량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이 마당의 규모를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적정규모로 만들고 폐쇄성의 정도도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만들어왔다.

마당의 규모나 폐쇄성의 정도가 적정하다는 말은 건물과의 상관성이 아주 친화적이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건물의 길이와 높이가 마당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모를 만들었고, 건물의 띄는 정도를 적정하게 조절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사용하기 편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만든 지혜까지도 엿보인다. 마당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이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부대중이 편안할 수가 없으며, 관리하기가 힘들다. 또한 너무 적으면 행사 하나 제대로 치를 수 없고 시각적으로 답답해져서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야말로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외부와의 시각적 접촉이 적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얼마 전에 한 스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일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절 마당이 너무 넓어서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말씀이었다. 직접 가서 보니 정말 마당이 황량할 정도로 넓었다. 법당 앞마당 좌우에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건물을 지나치게 뒤로 앉힌 결과였다.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절을 경영하시던 스님들의 안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절 마당 하나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던 그분들이야말로 선지식이었던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우리나라 사찰은 마당을 통해서 사찰공간의 독특한 특성을 찾기도 한다. 그래서 사찰마당은 적정규모와 폐쇄도가 필요하다. 경기도 ㅅ사

"봉녕사의 역사와 문화" 학술심포지엄

◆ 주최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 후원 : 세주묘엄박물관

◆ 일 시 : 불기 2557년(2013) 9월 2일(월) 오전 10시-오후 3시
◆ 장 소 : 봉녕사 소요삼장(도서관) 1층
◆ 주제 발표 I (10:20-11:30) ..... 사회 : 홍대한(숙명여대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 제 1주제 발표(10:20-10:45) : 황인규(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 『전 근대기 봉녕사 역사의 변천과정과 관련 고승』
제 1주제 토론(10:45-10:55) : 한동민(수원시사편찬위)
-. 제 2주제 발표(10:55-11:20) : 김상영(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 『봉녕사의 근 현대 역사와 사격』
제 2주제 토론(11:20-11:30) : 김광식(동국대 연구교수)
◆ 주제 발표 II (12:30-14:20)
-. 제 3주제 발표(12:30-12:55): 정성권(동국대 박물관 연구원)
: 『봉녕사의 성보문화유산과 그 가치』
제 3주제 토론(12:55-13:05): 태경스님(동국대 강사/조계종 교수아사리)
-. 제 4주제 발표(13:05-13:30) : 최태선(중앙승가대 역경학과 교수)
: 『봉녕사 가람배치의 특성과 정비방안』
제 4주제 토론(13:30-13:40) : 적연 스님(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 종합토론 및 총평(13:50-14:50)
-. 참석자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총평 : 홍윤식(동국대 명예교수 13:50-15:00)

※ 심포지엄 후(오후 3:30) 도서관 2층에서 졸업생 동문모임 『선우회』가 개최됩니다.

2013. 9. 2
2013. 9. 11~9. 13

大韓佛教 曹溪宗 奉寧寺

봉녕사는 세주묘엄 큰스님께서
강조하신 철저한 지계정신을
바탕으로 불법의 기본사상을 정립하여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비구니 승가교육의 요람입니다.

봉녕사(수원) 031.256.4127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번지

[2013년 계율특강] 계율과 수행의 관계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에서는 수행에 있어서
계율의 역할과 지계정신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덕 높으신
율사스님들을 모시고 「계율과 수행의 관계」라는 주제로
묘엄불교문화재단 후원으로 계율특강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뜻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 세주묘엄박물관
◆ 주관 : 금강율학승가대학원
◆ 후원 : 묘엄불교문화재단

◆ 초청율사 : 해인사 율주 종진스님, 대만 남보타불학원 부원장 본인스님,
대만 의덕사 니화상 소안스님
◆ 모집대상 및 인원 : 비구니 스님 30명 (선착순)
◆ 강의일정 :
9월 11일 본인스님 오전 8:00-10:00
본인스님 오후14:00-16:00
9월 12일 본인스님 오전 8:00-10:00
종진스님 오후14:00-16:00
9월 13일 소안스님 오전 8:00-10:00
◆ 신청문의처 : 전화 031-256-4127, 팩스 : 031-253-3877
◆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팩스 또는 메일(bong4127@hanmail.net)로
보내시거나 전화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방사 및 공양 관계로 인하여 선착순 마감합니다.
※ 2박 3일 특강기간 동안 오후불식이며, 가사 장삼, 세면도구 지참바랍니다.



신라문화원 경주 남산불적 답사 회원들이 8월 3일 진행된 답사 유적 중 하나인 굴불사지 사면불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백률사 뒤편의 삼존마애불상. 통일신라시대 마애 기법을 알 수 있는 유적이다.


동천동 사방불탑신석. 신라인의 신앙을 보여준다.


유적을 답사하고 있는 답사회원들.

찬란한 신라 불교의 시작, 북악 금강산에 서니…

북악 금강산서 바라본 남산

경주는 산이 둘러쌓인 지형이다. 그러다 보니 산은 신라에 있어서 성소와 같은 곳이다.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덕왕조에서는 신령스러운 네 땅이 있어 나라의 큰 일을 의논하는 곳으로 동의 청송산(靑松山)·남의 우지산(于知山)·서의 피전(皮田)·북의 금강산(金剛山)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기록을 검토해 역사학자들은 신라에는 경주평야를 중심으로 동쪽의 토함산(吐含山), 서쪽의 선도산(仙桃山)), 남쪽의 남산(南山), 북쪽의 북악(北岳, 금강산), 중앙의 부악(父岳)의 오악(五岳)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석한다. 이 같은 오악의 개념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국토 전역으로 확장된다.

이번 경주 신라문화원 남산 불적 답사는 오악 중 하나인 북악, 금강산에 오르기로 했다.

신라 불교의 시작을 알린 곳

경주 남산이 신라의 시작과 끝을 알린 곳이라면 금강산은 신라 불교의 시발점이 있는 곳이다. 법흥왕 14년에 이차돈 순교와 관련되면서 불교의 성역이 됐기 때문이다. 산의 명칭 또한 불교경전에서 유래된 금강산 또는 금강령이라 불리게 됐다.

본래 금강산은 경주의 북동쪽에 위치해 북악이라 불리웠으며, 해발 176.8m, 남북 2.75km, 동서 0.7km 되는 세장한 형태의 산이다. 골짜기가 깊지도, 산이 그리 높지도 않은 평범한 산이기는 하나, 신라 초기부터 이씨 시조 양산촌장 알평과 표암이 얽힌 전설이 있는 성산이다.

이 산의 명칭은 처음 왕경에서 볼 때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북산, 북악으로 지칭되다가 근세에 와서는 소금강산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과 혼동되지 않기 위해 소(小)자를 첨가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모두 금강산(金剛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신라인의 불심, 사방·사면불

용강동 고분을 지나면 앞으로 금강산이 보인다. 금강산을 동서로는 사찰이 연이어 세워졌다. 지금도 그 터와 유구들이 보존돼 있다.

답사단이 가장 먼저 찾은 사지는 동촌동 사방불탑신석이다. 흔히 '동천동 사지(寺址)'로 불리는 곳으로 탑신석의 주변에 또 다른 석탑재와 장대석이 남아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기와 조각과 고려청자 조각이 흩어져 있다.

현재 높이 약 82㎝로 탑신석 네 면에 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다. 네모진 탑신의 좌우 끝에 우주(隅柱, 모서리 기둥)를 얕게 새기고, 그 중앙에 두광과 신광을 갖춘 여래좌상 1구씩을 조각해 전체적으로 사방불(四方佛)을 표현했다.

이 같은 사방불은 신라인들의 불심을 알 수 있는 도상 중 하나다.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신라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불상과 경전이 들어왔고, 그 후에 목탑과 전탑이 들어왔고, 탑재의 항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신라시대로 접어들면 백제에서 시작된 석탑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통일신라시대에 석탑의 표면에 장식된 돋을새김 상들의 유형은 외호적, 신앙적, 장식적 기능과 이들이 합쳐진 기능으로 분류된다. 이중 사방불탑은 신앙적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탑에 사방불을 조각한 것은 탑의 가운데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면 이는 법신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각 면에 사방불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의 바탕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사방불을 조성하는 신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방불이 조각된 탑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부처님 세계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경주 곳곳, 사방불 신앙 '눈길'
천경림서 잘린 이차돈의 목
금강산에 떨어져… 사찰 건립
남산과 더불어 신라 오악들
천년 경주를 수호하고 있네

비슷한 개념의 불상을 인근 굴불사지에서도 만날 수 있다. 8세기 경덕왕 때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굴불사에는 큰 바위 네 면에 여러 불보살상이 조각된 사면불을 만날 수 있다. 사면석불의 사면에는 서방정토를 주재하는 아미타삼존불, 동면에는 약합을 들고 있는 약사여래, 남면에는 석가삼존불, 북면에는 두 개의 보살상이 있는데 왼쪽에는 선각으로 표현된 십일면의 얼굴과 여섯개의 손이 달린 십일면육비의 관음보살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조로 표현된 보살상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사방불이라고 칭했지만 남산 칠불암의 사방불과 같은 엄밀한 의미의 사방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면불이라 해야 한다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원래 동서남북에 불상을 조각하는 것은 사방정토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승불교의 발달과 더불어 성행한 사방불 신앙의 한 형태였습니다. 불교 경전이나 불상에 나타나는 사방불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불상의 경우 어느 특정 경전에 의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당시의 대승불교에서 가장 널리 모셔졌던 불상들을 배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살펴보면 네 면의 불·보살상들은 모두 양식과 크기가 다르다. 서쪽 면과 동쪽 면의 조각상은 크고 우람하며 힘이 있는 데 비해 남쪽 면과 북쪽 면의 조각상은 작지만 세련된 조각 솜씨를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 굴불사터 사면석불은 같은 시대에 모두 조각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달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차돈의 본명은 '박염촉'입니다

금강산 인근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을 들자면 백률사를 꼽을 수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법흥왕 14년 이차돈이 불법을 포교하다가 순교하였을 때 그의 목을 베자 흰 젖 같은 피가 한길이나 솟았고 그의 목도 금강산으로 날아가 떨어졌다고 한다. 그때 나라 사람들은 이를 슬피 여겨 금강산의 좋은 터에 이차돈을 위하여 자추사라는 사찰을 창건했다고 한다. 현재 혹자는 백률사를 자추사가 변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자(刺)는 '잣'이니 백(栢)과 같고, 추(楸)는 '밤'이니 율(栗)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사찰 명을 떠나서, 이차돈의 유해가 금강산과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차돈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그의 성은 박 씨고, 이름은 염촉으로 일찍부터 불교를 신봉했다. 당시 왕이었던 법흥왕과 함께 불교를 신라에 전하기 위해 스스로 거짓 전명해 천경림에 불사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이차돈은 22세의 나이에 참수를 당하게 되고, 익히 알고 있는 신이한 사건이 생겼으며,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후 법흥황은 천경림 일대에 신라 최초의 정사를 건립하며, 절이 완공되자 법흥왕은 왕위를 진흥왕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승려가 돼 법공(法空)이라고 불렀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절을 대왕흥륜사라고 했다.

백률사 뒤편 동쪽으로 오르면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194호 마애삼존불좌상이 있다. 중앙의 본존불은 여래상으로 높이가 3m에 이르며, 좌우에 각각 협시불이 새겨져 있다. 부분적으로 마멸되어 보존 상태는 좋지 않으나 옷과 손의 모습 등을 얕게 돋을 새김한 조각솜씨가 뛰어나 통일신라시대 마애석불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신라문화원
9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 주제 : 남산의 자연과 복원탑을 찾아서
- 일시 : 9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필기구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2014년 삼보불교 달력 주문 접수중!
《카다록과 카렌다 샘플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카렌다 지역판매 가맹점 모집
문의전화. 031) 732-9905 Fax. 031) 732-8972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질높은 카렌다들을 제작하여 보급 해 왔으며, 2014 갑오년에도 의미있고 주제가 있는 새로운 카렌다들을 추가로 제작 하였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카렌다,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들을 만나보세요.
관세음보살도(한지카렌다)
지혜동자
연꽃향기
구도자의 길
천진동자
산사와 주련
반야심경
운봉스님의 달마도
심우도
산사에 피는 야생화
민족의 산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8대 성지순례)
산사의 미(발원)
보현스님의 동승이야기
(2월. 중대사자암)
(3월. 통도사)
(4월. 광덕사)
(5월. 보탑사)
(7월. 송광사)
(8월. 홍련암)
인생의 도
생활한방차
불보살님의 미소
풍경소리
한국의 보탑
법음이 깃든 산사(1월. 정수사)
(10월. 신륵사)
(11월. 용문사)
(12월. 불국사)

불교와 미학

나한은 어떤 인물인가?

범부중생의 온갖 소원 다 듣는 眞人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 받은 십대제자 십육성 오백성 독수성 내지 천이백 아라한께 절하옵니다. (至心歸命禮 靈山當時 受佛付囑 十大弟子 十六聖 五百聖 獨修聖 乃至 千二百 諸大阿羅漢 無量慈悲聖衆)





은해사 거조암〈사진 위〉과 운문사 오백전의 5백나한〈사진 아래〉. 나한들의 모습에서는 개성과 다양성이 넘친다. 이들이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진 것은 중생의 염원을 듣는 친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이지만 아침저녁 삼보에 예경을 할 때 영취산에서 부처님의 법을 부촉받은 10대 제자, 십육 아라한, 오백 아라한, 그리고 천이백 아라한에게도 빠짐없이 예경한다. 뿐만 아니라 나한을 위한 전각도 존재한다. 나한전 또는 응진전이라고 불리는 이 전각에는 한분, 열여섯 분, 많게는 오백 분까지 아라한을 모신다. 열여섯 아라한의 대표로 빈두로존자만 모신 전각을 독성전이라고도 하는데, 때로는 산신 및 칠성여래와 함께 삼성각에 모시기도 한다.

나한(羅漢)이란 아라한(阿羅漢, Arhat)의 준말이며 원래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 중 하나이다. 부처님의 십대 명호 중 하나가 이다. 아라한이란 번뇌를 모두 끊어서(살적, 殺賊) 진리에 계합하였으므로(응진, 應眞) 미망에서 벗어나(이악, 離惡) 다시 생사윤회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으며(불생, 不生) 수행을 완성하여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므로(무학, 無學) 사람과 하늘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존귀한 성자(眞人)이며 공양을 받을 자격을 갖춘(응공, 應供) 존재이다.

최초의 아라한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며, 그의 제자

독성, 16, 500나한 예경
예불 칠정례에도 포함돼
중생들 염원 듣는 존재

들도 네 가지 수행의 단계(四果)인 예류과(sotapanna), 일래과(sakadagamin), 불환과(anagamin)를 거쳐 마지막 아라한과(arahat)를 성취한 성인들이다.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불보(佛寶)로서 최고의 예경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제자들은 비구 아라한, 다시 말해 승보로서 간주된다.

나한은 단일한 신앙의 대상으로도 모셔지지만, 16나한, 18나한, 500나한, 1200나한 등 집단적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500이나 1200이라는 숫자는 부처님 제자들의 숫자를 말하는데, 제1차 결집 때 500명의 비구들이 모였다고 하여 '오백 나한' 이라고 부른다. 오백 나한의 경전적 근거는 〈증일아함경〉, 〈십송율〉, 〈법화경〉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십육나한 신앙의 소의경전은 스리랑카의 난제밀다라 존자에 의해 불멸 후 800년경 만들어져서 654년 당나라 현장 스님에 의해 번역된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大阿羅漢難題密多羅所說法住記)〉이다. 〈법주기〉에 나오는 십육나한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1. 빈도라바라타사존자 2. 가락가발사존자 3. 가락가바리타사존자 4. 소빈타존자 5. 낙구라존자 6. 발타라존자 7. 가리가존자 8. 벌사라불다라존자 9. 술박가존자 10. 반탁가존자 11.라흐라존자 12. 나가세나존자 13. 인갈타존자 14. 벌라바사존자 15. 아시다존자 16. 주다반탁가존자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6나한과 500나한의 조상이 조성되었으며 전각의 이름도 모시는 존상의 수효에 따라 독성각, 십육전, 오백전이라고 부른다. 티베트에서는 재미있게도 십육나한에 중국의 포대화상과 재가불자인 다르마칼라가 더 해져서 18나한이 신아는 숙명통과 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초기불교의 이상인 아라한을 대승불교에서 받아들여 예경의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무엇일까? 아라한은 수행을 통해 삼명과 육통, 팔해탈이라는 비범하고 초인적인 능력을 성취한 자들인데, 그 능력이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전생을 다 사람들이 지은 업에 따라 죽은 뒤 어느 세계에 태어나는지를 아는 천안통, 모든 번뇌를 제거하여 해탈을 얻는 누진통,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몸을 바꾸고 장애 없이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신족통,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인 천이통,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타심통까지, 슈퍼맨도 모르는 능력이다.

특히 첫 번째 나한인 빈두로파라타는 목련존자와 더불어 부처님 제자들 중 신통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정하고 조신한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는 약간의 객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가 왕사성에 머물 때 목련존자와 함께 탁발하러 나갔다가 어느 부유한 상인이 긴 장대 끝에 나무 발우를 걸어두고는 신통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가져간다면 주겠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귀한 나무로 만든 그 발우를 가지고 싶어 했지만 장대에 오르지 못해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자 빈두로 존자가 목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통력을 사용하여 가볍게 공중으로 뛰어올라 한 손으로 발우를 들고 공중에서 왕사성을 세 번 돌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부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신통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계율을 첨가하셨으며 빈두로존자에게는 미래의 부처님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 반열반에 들지 말고 이 세상에 머물면서 부처님을 대신하여 중생들을 제도하라고 부탁한다.

빈두로 존자는 자신의 경솔함을 깊이 반성하며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실천하였다. 그는 반열반에 들지 않고 여러 곳을 여행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으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남인도의 마리산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말세의 공양을 받아 대복전이 되었으므로 그를 "세상에 머무는 아라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열 여섯명의 아라한에게도 똑같은 의무가 주어졌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실 때 "무상법으로 십육 대아라한과 권속들을 부촉하여 그것을 호지하고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 몸이 시주자들에게 복전이 되어 큰 과보를 얻게 하도록 명령하셨다"고 한다.

부처님의 충실한 제자인 이 열여섯 명의 성인들은 신통력으로 스스로 수명을 연장하면서 다음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정법이 머무는 곳에 항상 따라가 호지하고 시주하는 사람의 복전이 되고 있다. 그들은 중생들에게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을 제공하고 병들거나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을 받을 때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보장해주었고 가뭄이나 외적의 침입 등 재난을 당했을 때 기꺼이 신통력을 사용하여 고난에서 건져주었다.

이와 같은 신통력 때문에 아라한은 모든 불교권에서 신앙되어 왔다. 초기불교 전통을 잇는 부파에서는 빈두로파라타를 상좌로 모시는 풍습이 있었으며 중국에서는 동진의 도안(道安) 스님이 처음으로 빈두로존자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당나라 때 나한 신앙이 성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크게 흥성하였다. 고려 때에는 강우나 외적의 침입을 막아달라고 왕이 친히 나서서 나한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의 태조 이성계도 국왕이 되기 전에 나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나한재는 주로 재앙, 천재지변, 외우내환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국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행해졌다. 나한은 용을 지물로 지니고 있으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구병과 득남의 복을 주거나 외적의 침입을 막는 등 영험어린 존재로 각인되어 왔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유송의 승려 법현과 법경이 처음으로 그 존상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존상을 '독성' 또는 '나반존자' 라고도 부른다. 나한의 도상적 근거가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육왕경〉에서 빈두로존자를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을 덮을 만큼 긴 눈썹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한 것이 전범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상은 경전에서 규정하는 32상 80종호라는 도상적 근거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그 외관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왕자로서의 신분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의 모습을 하는 것과 달리, 부처님의 제자인 나한은 특별한 도상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평범한 외모를 지닌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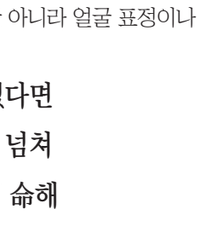
불보살상 도상 근거 있다면
나한상은 해학적 모습 넘쳐
부처님 "복전이 될 것" 命해

자세도 열여섯 명, 때로는 오백 명이 각각 다르다.

염주, 죽비, 또는 금강저를 들고 있거나, 무릎 꿇고 과일을 공양하는 나한, 두건을 쓰고 선정에 든 나한이 있는가 하면, 경을 읽거나 붓과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들고 있는 나한, 호랑이 등에 턱을 괴고 있는 나한, 등을 긁거나 하품을 하고 있는 나한, 거울을 든 나한, 부채를 든 나한, 꽃을 든 나한 등 오백 명의 나한이 제각각 다른 표정,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신통력으로 불로장생하기 때문에 백발의 나한은 중국에 들어와서는 도교의 신선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중년의 나한은 두텁고 짙은 눈썹과 풍부한 턱수염이나 콧수염을 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눈썹은 가늘고 수염도 매우 간략하며 머리는 짙게 채색하였다.

이와 같은 개성과 다양성은 불상에서는 찾을 수 없던 것으로, 원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 짐작된다. 또한 실제 승려의 얼굴을 묘사했을 가능성도 커서 매우 흥미롭다. 실제로 오대(五代)의 승려화가인 관휴(貫休)가 그린 16나한도 중 나고나존자(羅?羅尊者) 1폭이 관휴의 자화상이라는 이야기가 명대 진계유(陳繼儒)가 지은 〈이고록 ?古錄〉에 수록되어 있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서울, 경기, 전국

구단구궁법대학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수강생모집

- 초보자 환영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주 :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흥교(법화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1호선 의정부역 1번출구 2분거리)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입금계좌 : 국민은행 582501-01-278750 (예금주 대불사)

“자유자재로 진리를 찾고, 가르친 큰 스승”



方山老의 無影樹 〈25〉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고준환



고준환 본각 선교원장
동아일보 기자, 교수불자연합회 초대 회장 등 역임,
경기대 명예교수

스님은 선사이며 법사, 대종사
청담 스님, “이차돈의 순교 이래
제일의 불사는 탄허의 화엄경 번역”

“통일 후 나라 이끌 인재 양성해야”
거사불교시대 올 것 예언
‘본각선교원’ 은 거사 불교 준비

–교수님은 정년 퇴임하신 후 본각선교원을 여시면서 새로운 불교 활동을 하시는데 교수님의 불교 활동 저변에는 탄허 스님과의 인연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탄허 스님을 만난 것은 서울법대에 다닐 때(1961~1964)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 시절에 뵌 정황은 잘 기억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여시아문(如是我聞)의 입장에서 회고를 해보지요. 서울법대에는 법불회라고 동기생 10여 명이 만든 불교 서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청담 스님의 법문을 들은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이후로 큰스님들을 친견하고, 나아가서는 대불련을 창립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탄허 스님을 뵌 것으로 기억하지만 언제 처음 만나 뵈었는가,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허 스님의 유발상좌 비슷하게 되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대불련 출범 초기 상황에 대해서 기록이 부족하고, 증언이 다양한데 교수님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법불회가 등장하고 신호철이 초대 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불교가 청년화, 대중화, 지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면 불교계를 움직일 스님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때에 활약이 많은 홍도 스님, 일명 방울 스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깐 홍도 스님이 좋다고 해서 대불련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만날 때 조계사에서 만난 사람들이 김홍도 스님, 신호철 법불회 회장, 서울대 법대의 고준환, 동대에 최동수, 육사불교회에 하장춘, 외대의 여학생 한 명, 이화여대의 학생 두 명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시작되려고 하니 신호철과 최동수가 서로 회장을 하려고 해서 내가 나서서 신호철이 회장을, 최동수가 사무총장을 하게끔 하고, 부회장은 부산 출신인 이대의 강혜정을 하게하고는 나는 백의종군하는 입장으로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는 명호근과 전창열이 나서서 많은 일을 하였어요. 이들은 출범이 거의 완성될 때에, 조직을 만들려고 시작한 수개월이 지난 후에 들어왔지만 그 어려운 과정에 가장 공헌을 많이 한 명호근의 공을 깎아서는 안 되지요. 난 그 후에 동문회 대의원 의장을 하였지만.

–그러시군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탄허 스님과의 인연은 지속되지 않았는가요?

저는 청룡사, 대원암, 학하리 등지에서 탄허 스님을 뵙고, 배우고,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서울 청룡사에 스님이 주석하실 때에는 화엄경 · 장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에는 법불회 동기인 박준수, 전창열, 명호근, 김문웅, 김춘오 등과 함께 저녁마다 법회에 참석하여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탄허 스님의 법문이 있는 곳이면 대원암이건, 삼보법회건, 고려대학교 등지를 따라다니면서 학문과 영원에 대한 갈증을 풀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시절에 스님이 불교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신 것, 노장과 유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는군요. 특히 장자 소요유라든가, 성인에게는 두 마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 화엄경의 사사무애 중중무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탄허 스님은 1975년에 화엄경을 번역하여 책으로 출간하였는데요. 이 작업에 교수님이 관여하신 것은 없는가요?

저는 그 작업에 직접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스님을 특별히 도와 드린 것이 없어서, 해 드릴 것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그 〈신화엄경합론〉의 출간에 즈음하여 이병도 박사, 박길진 원광대총장, 천관우 선생을 찾아가 신간평, 추천사를 받아서 스님에게 갖다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청담 스님이 이차돈 순교 이래로 제일의 불사가 탄허 스님의 화엄경 번역 불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신간평을 받아서 드렸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증언입니다.

저는 신간평을 받아서 스님에게 드린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잡지 등에 실린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스님에게서 〈신화엄경합론〉 한 질을 받았어요. 그때 스님은 저에게 ‘군자유삼락이왕천하불여존언(君子有三樂而王天下不與存焉)’ 이라는 글을 함께 내려주셨어요. 저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책자와 이 유묵을 집안의 가보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심외무불(心外無佛)이라고 스님이 쓰신 액자도 보관하고 있어요. 스님은 사람들에게 책을 잘 주지 않았어요. 저를 주신 것이 제가 학자의 가능성이 있고, 저의 미래를 내다보시고서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평소에 스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평생 학생부군의 체질이고, 학문적인 것을 인정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탄허 스님의 수준에서는 멍텅구리 수준이지만.

–화엄경이 출간된 직후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수님이 고은, 여익구 등과 함께 대원암으로 탄허스님을 찾아가서 배우다가 경찰에 연행된 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독재 권력의 언론 탄압에 항의해서 해직되고, 이른바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했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저는 민족주의, 민주적인 것이 나라의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기 전에 저는 법조계 출입 기자를 하면서 박정희와 맞서서 감옥에 갔다 온 일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글을 쓰지 않고 던져주는 것만을 갖고 기사를 썼어요. 그러나 저는 기사도 역사의 기록이라는 입장에서 그러지 않고 취재를 해서 썼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국회의원 79명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빌미로 잡아넣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신직수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직전에 보도해서 입건 구속되었어요. 그래서 90일 동안 있다가 미결수로 나왔어요. 제가 그 무죄를 입증하는 데 8년이나 걸렸어요. 이런 이력이 있어서 해직이 되고, 언론투쟁을 할 때에 보니 기독교, 천주교 등은 사회봉사도 하고 독재정권과 맞서고 있는 활동이 많았어요. 그러나 불교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그때에 그런 입장에 있었던 법정 스님을 제가 동아방송에 모셔서 내보내고, 일부러 인터뷰해서 제가 자주 뵈었죠. 동아투위에 130여 명이 있었지만 불자는 별로 없었는데, 저는 스님들과 친하고 고기도 먹지 않고 불교적 입장이 뚜렷하여서 모든 사람이 저는 불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불교도 보살도의 입장에서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게 당연이 도와서 강한 것은 누르고, 약한 것은 북돋워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탄허 스님은 융통성도 많으시고, 얘기가 통하는 어른이어서 고은, 황석영, 용산고 후배인 여익구, 대학생인 전재성 그런 사람들을 제가 규합해서 탄허 스님을 찾아가 두 번인가를 배웠죠.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때에 탄허 스님이 하신 말씀은 어떠하였는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성북서에서 체크가 되어서 저는 4박 5일간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거기서 잤죠. 그러나 탄허 스님은 경찰서는 가시지 않고 예의상으로 대원암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동아투위의 기록에도 나와요. 그때 탄허 스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고, 원효 스님과 만해 스님에 대한 것을 들었지요. 원효 스님은 당대에서 가장 명석한 스님이었고, 깨달은 분으로서 백성과 중생의 편안함을 위해서 화쟁과 통일을 실천한 분으로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만해 스님은 지조가 있고, 독립운동가였고, 시도 쓰는 아주 멋있는 스님이 아니었습니까?

–탄허 스님은 인재양성을 무척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나요?

스님은 인재양성에 대한 말씀을 자주 했어요. 스님은 우리나라가 언제인가는 통일이 된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지하에서 뜨거운 것이 융기하여 동쪽과 남쪽은 내려가고, 서쪽은 융기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통일이 되어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래를 대비해야 하고, 나라를 이끌고 나가면서 세계를 지도할 인재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뇌리에 늘 있었지요.

–지금 교수님이 하시는 본각선교원도 그런 것과 연관되나요?

그렇지요. 저는 탄허 스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니 당연히 스님의 인재양성이라는 것과 무관할 수 없지요. 제가 이곳에서 하는 본각선교원은 시각(始覺)이 본각(本覺)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선과 교를 겸하는 것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의 시작은 작지만 앞으로 저는 대학원 대학이라든가, 불자마을 같은 것도 세우려고 합니다. 이미 저는 1994년도에 이런 것을 하려고 철원에 3만 8천 평을 마련해 놓았어요. 저는 우리의 일생을 살아나감에는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어요. 다만 자기에게 적합한 것을 택해 정진하다 보면 단박 깨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을 모셔서 일요일 법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목도 설강을 해 놓았습니다. 21세기는 복잡다단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각 인류문명을 창출하는 것을 지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깨달은 사람들이 문명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탄허 스님은 거사불교에 대한 입장도 밝히셨나요?

탄허 스님은 거사불교의 시대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님들 중심의 종단은 그것대로 잘 되면 좋고, 제가 추진하는 것은 거사불교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한국 거사회도 만들고, 세계불자연합 등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인류 문명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중흥시켜야 하는데, 불교라는 진리는 좋은데 불교는 사회적인 힘이 없어요. 이런 입장에서 나는 탄허 스님의 뜻을 따라서, 스님의 뜻을 부흥시키려고 내 인생의 후반부를 전력 질주하려고 합니다. 나는 스님만의 불교, 스님 중심의 불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조계종단은 2부대중의 불교입니다. 사부대중의 불교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구니의 역할은 1%밖에 안 돼요. 내가 그래서 혜암 종정과 월주 총무원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들도 내 말이 맞지만 지금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패거리가 무서워서 부처님 법을 실천 못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맞는 말을 하지, 교수로서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다가오는 거사불교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수님께는 탄허 스님의 영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의 생각 저변에는 탄허 스님의 사상이 깔려 있어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저의 일생을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것에 비유해서 스님, 거사 등 많은 사람이 저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영향을 준 분은 탄허 스님입니다. 그 다음은 법화경을 가르쳐 준 설송 스님이고, 혜암 종정, 화두를 주신 경봉 스님 등입니다.

–1980년에 나온 탄허 스님의 책인 〈부처님이 계신다면〉의 출간에 교수님이 관여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글쎄요. 제가 출간의 인연을 만들어 준 것은 어렴풋하게 기억되지만 구체적인 일은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제가 출간하게끔 권유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님의 생각과 사상이 많이 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고승대덕에게는 배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큰스님에게 일일이 물을 수도 없지요. 탄허 스님에게 잘못 물으면 멍텅구리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지요. 그러나 책을 통해서는 고승들의 인간적인 면을 이해하게 되고, 친근감이 가니까 대중들에게는 좋지요.

–탄허 스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교수님은 탄허 스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은 이름을 붙이는 것인데, 저는 부처님이나 탄허 스님을 한 인간으로 봅니다. 탄허 스님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은 불교적으로는 스님이지요. 다만 스님은 스케일이나 방향이 유불선을 종합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과 부처님은 종교의 테두리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내고 설명하신 분입니다. 부처에게는 주의나 이즘이 없어요. 우리들이 부처가 찾아내고 주장한 것에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이 말을 알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탄허 스님은 일체 경계에 머물지 않고, 자유자재로 진리를 찾고, 전달하는 것을 지향한 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허 스님을 선사라고 해도 맞고, 법사라고 해도 맞고, 선교를 아우른 대종사라 해도 맞습니다. 이름은 대명사에 불과합니다. 탄허 스님은 실상에 접근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염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초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dwbk.net

봉 ‘세계평화와 국태민안 기원 수륙대재’ 행

부처님의 진리를 홍포하여 평화로운 불국정토의 구현이 본 종단의 사명임을 알고 정법구현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범종단이 함께하는 **‘세계평화와 국태민안 기원 수륙대재’**를 성대하게 봉행하고자 하오니 종단을 불문하고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시 : 2013년 9월 29일 (음력 8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장 소 : 삼천포 대교 바닷가 야외무대 (경남 사천시 대방동 681-9)
문 의 : 010-3565-2462 총무원장 / 055)364-4747 종정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얻은바 있어도 일체 견해 버려라”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6〉



범어사 주지

이 같이 일심(一心) 중에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는 것이다.

모든 이룩되어진 모습은 시설된 것이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언제나 불이(不二)의 중도실상 가운데서 인연 따라 수처작주해야 한다. 위의 말은 《범망경》에 나오는 다음 게송의 일부분이다. “응당 고요히 관찰할지니, 제법의 실상은 불생불멸이며, 영원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하나도 아니며 다르지도 않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 같이 일심 중에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는 것이다.”

설혹 그대가 삼승십이분교(三乘十二分敎)를 배워 얻은 바가 있다 할지라도, 일체의 견해를 모두 버려야 한다.

‘버려라’ 하니까, 속인들은 이 말을 배워서 애써 버리려고 한다. 이것은 스스로의 착각에 속은 모습이다. 실상은 버리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무엇을 버리고 말고 할 것인가? 이런 입장에 나아간 사람이라야 ‘버려라’ 하는 말 자체를 알아듣는다.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소화하고, 애써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 취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취사(取捨)의 양변을 함께 내려놓는 것이다.

삼승십이분교는 부처님의 일대(一代) 교설이다. 삼승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말한다. 십이분교는 석존의 교설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 열두 가지로 나눈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모두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 남은 침상에 병들어 누워있다.”고 한 말은 바로 모든 견해를 일으키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유마거사가 한 말이다. 《유마경》 〈문수사리문질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유마거사는 가진 것에 구속당하거나 구애받지 않았다.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인연 따라서 살펴쓴 것뿐이다. 이 점은 물질 뿐만 아니라, 지견(知見)까지도 해당된다.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어서, 법의 장애를 받지 않고 삼계와 범성(凡聖)의 경계를 훌쩍 벗어나야만, 비로소 세간을 벗어난 부처라고 한다.

속인들은 ‘부처의 경지를 이루어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여 부처를 이루려고 애쓴다. 자꾸 차별 경계를 만들어서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이다. 하지만 성품을 자각한 도인들은 범부와 부처를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하고 내려놓고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의연하게 자기 갈 길을 갈뿐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허공처럼 의지할 곳 없는 데에 머리 숙여, 외도의 굴레를 벗어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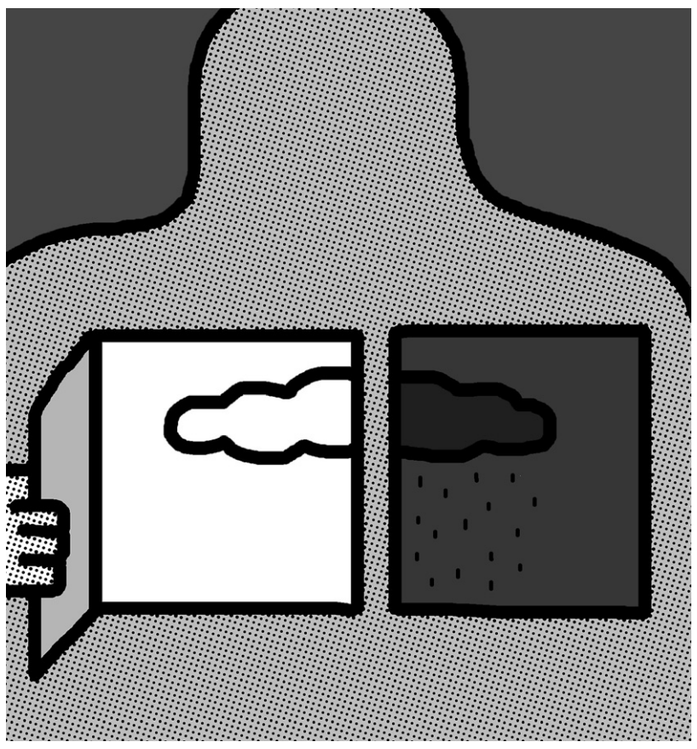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본래 없는데 무엇을 버리나
이런 경지의 사람은
취사의 양면 함께 내려놔

부처를 이루려고 애쓰면
경계 만들어 발등 찍는다
성품 자각한 도인들은
범부 · 부처 둘로 안 보기에
의연히 자기 길을 갈 뿐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
과거 · 현재 · 미래 없는 허공
마음도 그와 같아 하염없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일체가 마음에서 비롯된 것
마음을 깨달아야지
변화에 시비할 까닭 없어

외도의 어리석음은 늘 허망한 짓을 한다. 또 수레를 탔어도 성문승과 연각승의 어리석음 역시 허망한 짓을 한다. 대승도 경우 따라서 어리석은 짓을 하므로, 일불승만을 논한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분별심에 떨어지면, 허망하게 된다. 허공처럼 의지할 곳 없는 데란 바로 분별 시비가 끊어진 곳이다. 위의 말은 《유마경》의 〈불국품〉에 나오는 찬불게의 한 구절이다.

마음에 이미 차별상이 없으므로, 법 또한 차별상이 없다. 마음이 하염없으므로, 법 또한 하염없다.

마음과 법은 둘이 아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고 했다. 허공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마음 또한 그와 같다. 그러니까 하염없는 것이다.

만법은 모두 마음이 변화되어 나온 것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다. 일체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마음을 깨달으면 되지, 변화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시비할 까닭이 없다. 개는 돌을 따라가지만, 사자는 던진 사람을 문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공(空)하기 때문에 제법(諸法)이 공하며, 천 가지 만 가지가 모두 이와 같다.

성품을 탁 보는 순간에, “아, 제법이 본래 공했구나! 다 허망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야 한다. 그런 체험이 일어나는 순간에 완벽하게 믿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분별심이 다시 일어나 자꾸 착각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체 중생이 동일하므로, 한 번 성품을 봤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또 봐야 될 뭐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허망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온 시방의 허공계가 같은 한마음의 본체다. 마음이란 본래 서로 다르지 않고 법 또한 다르지 않건만, 다만 그대의 견해가 같지 않으므로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 생각이 천차만별로 옳니 그르니 크니 작니 하며 온갖 허망한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 성품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그 덕분에 우리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자각하고, ‘그렇구나!’ 하는 믿음을 내게 된다. 그 믿음이 방황을 멈추게 해준다.

비유하면 모든 천인(天人)들이 다 보배 그릇으로 음식을 받아먹지만, 각자의 복덕에 따라 밥의 빛깔이 다른 것과 같다.

좋은 그릇에 최상의 음식을 받아먹으면서도, 생각에 따라서 ‘맛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왜 맛이 이래?’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각자의 복덕에 따라, 그때그때의 입장들이 다른 것이다. 육조혜능 스님은 복덕이란 상(相)을 가지고 짓는 모습이고, 상을 여의고 쌓는 것은 공덕이라고 했다. 위의 비유 역시 〈불국품〉의 서문에 나오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㉘



그는 어머니의 태내에 있으면서 몸으로부터 빛을 발하였다

〈여래장경〉

빛의 발신자

우리 스승 중에 불연(不然) 이기영(李箕永) 선생님이 계신다. 그분은 평생 원효를 읽고, 원효를 쓰고, 또한 원효를 말하셨다. 원효는 말 그대로 다면불(多面佛)적인 면목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여래장’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다. 불연선생님은 바로 그 점을 주목하셨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도 많지만, 불연선생님은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교편을 잡으셨다. 물론 원효의 저술을 교재로 선택해서 강의하신 적도 있지만, 동시에 인도철학을 강의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인도철학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원효를 많이 생각하셨다는 점이다.

그런 증거가 하나 남아있다. 실제 선생님은 인도철학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을 남기신 것은 아니지만, 몇 편의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셨다. 그 중에 하나가 ‘가르바(garbha)’에 대한 것이다.

가르바는 우리 말로 번역하면, 태아(胎兒)이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경전인 〈여래장경〉의 여래장이라는 말에도 ‘가르바’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여래장은 산스크리트로는 tath?gata-garbha라고 한다. 타타가타는 ‘여래’라는 말이고, 가르바는 ‘장’이라 번역되었다. 태아는 감추어져 있는 것 아닌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그래서 ‘장’이라 번역된 것같다.

불연선생님의 논문은 이 여래장이라는 관념이 인도철학의 우파니샤드에서 말하고 있는 ‘황금의 태아(hira?ya-garbha)’와 관련된다는 점을 주장하신 글이다.

여래장은 여래의 태아이다. 여래가 될 태아를 수태(受胎)한다, 즉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모든 인간은 바로 빛의 발신자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모두 여래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방광을 하는 발광체임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만…. 그렇게 모른다고 해서,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님은 아니다.

빛의 수신자

상방광명여래(常方光明如來). 언제나 광명을 발하시는 여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부처님이다. 〈여래장경〉에 등장하는 부처님인데, 왜 이런 이름이 붙어있을까?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시자마자, 그는 빛의 발신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빛을 배달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상방광명여래’라 불리웠다.

상방광명여래가 과거의 부처라고 해서 우리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여래장경〉에서 그 부처님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렇게 부처님이 될 종자를 우리의 태내에 갖고 있는 이상 우리 모두 바로 상방광명여래임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여래장의 존재이다.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있는 존재가, 지금 이 세계에 한 둘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 수도 없이 많다. 우리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발광체(發光體)로서 여래장이다.



그림 · 박구원

그렇게 우리는 교착(交錯)하는 빛의 광선들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빛의 발신자이면서, 동시에 빛의 수신자다. 발신하면서 수신하고, 수신하면서 발신한다. 발신은 자력이고 수신은 타력일 터이지만, 여기에는 그러한 말들이 다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그 빛 속에서 존재할 뿐이다. 만약 우리가 빛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발신해줄 빛이 부족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럴 염려는 없다. 수없는 여래장의 존재들이 다 빛을 발해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 빛의 향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래가 태아로서, 지금의 우리에게 잠재(受胎)되어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상방광명여래가 아닌가. 상방광명여래로서 빛을 발해 주고 있고, 또한 또 다른 상방광명여래의 빛을 받으면서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는 빛과 빛으로서, 서로를 비추어 주면서 함께 존재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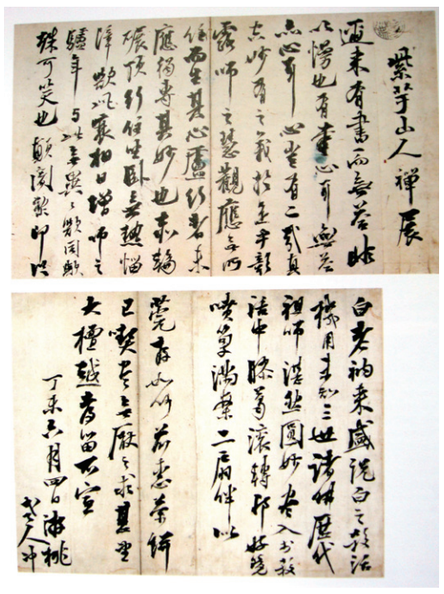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두자루 부채 짝지어 보내니…

무더운 여름,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두 자루의 부채는 백선(白扇)이었는지, 아니면 담박한 글귀를 적은 부채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사의 말처럼 "붉은 해가 이마 위를 맷돌질하는" 염복을 잘 견딜 수 있기를 기원한 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음이 분명하다. 당시 그는 초의가 보낸 차도 이미 떨어져 습하고 무더운 여름을 견딜 수 있는 차의 공덕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이는 그가 자신을 안정시켜주는 초의차를 걸명(乞茗)하면서 스스로 "싫증나지 않는 요구"였음을 고백한 이유이다. 따라서 늘 초의에게 "큰 시주"를 기대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이 편지는 〈완당전집〉〈여초의〉 26신과 〈영해타운첩〉, 〈나가묵연첩〉에 모두 수록되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인 〈나가묵연첩〉의 편지에 년대를 알 수 있는 간기가 있다. 이로 인해 이 편지가 1847년 6월 4일 쓴 것임이 확인된다. 당시 추사의 불교관이 불이선(不二禪)이었음을 드러낸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기가 있어 년대 알 수 있는 〈나가묵연첩〉

그동안 (그대가)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던 것은 태만해서가 아닙니다. 답신을 보내는 것도 마음이요, 답을 보내지 않은 것도 마음일 따름이니 마음이 어찌 둘이 있겠습니까. 진공과 묘유의 뜻이 이에서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대의 지혜로운 마음(관점)은 응당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일어나리니 노행자(혜능)도 그 묘법을 독차지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붉은 해가 이마 위를 맷돌질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뜨거운 번뇌의 장애는 없으신지요. 나는 쇠한 꼴이 날로 더해지는데 그대의 노년(당나귀 해: 간지에 없는 해)도 나와 더불어 다름이 없으리니 어떻습니까. 자못 웃을 만한 일입니다. 미혹된 중이 백파노납으로부터 와서 백파의 살활기용을 장황히 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삼세제불과 역대 조사의 담연한 원묘의 세계도 거의 살활 속에 들어가서는 이리저리 엉겨 붙는다는 것인가.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두 자루의 부채를 짝지어 보내니 웃으며 받아둠이 어떨지요. 전번에 보내준 차는 이미 다 먹었습니다. 싫증나지 않는 요구라서 큰 시주를 바랍니다. 모두 뒤로 미루고, 이만 줄입니다. 1847년 6월 4일 유도노인(邇來有書而無答 非以慢也 有書心耳 無答亦心耳 心豈有二哉 眞空妙有之義於是乎彰露 師之慧觀 應無所住而生其心 盧行者未應獨專其妙也 赤輪碾頂 行住坐臥 無熱惱障歟 此衰相日增 師之驢年與此無異 異歟同歟 殊可笑也 顚闍梨 即從白老衲來 盛說白之殺活機用 未知 三世諸佛 歷代祖師 湛然圓妙 盡入於殺活中 膠葛滾轉耶 好覺噴筍滿案二扇伴似 莞存如何 前惠茶餅已喫盡 無厭之求 其望大檀越 都留不宣 丁未 六月四日 游桃老人)

"마음이 어찌 둘이 있겠습니까"
답신못한 추사 변명 '불이선' 드러내

추사는 초의가 보낸 편지에 답신을 보내지 못한 듯하다. 이는 그의 마음이 태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답신을 보내는 것도 마음이요, 답을 보내지 않은 것도 마음일 따름이니 마음이 어찌 둘이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이런 이치가 곧 "진공과 묘유의 뜻이 이에서 환히 드러나는 것"이라 하였으니 답신을 못한 추사의 변명치곤 그의 불교관을 아울러 드러낸 희언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그대의 지혜로운 마음(관점)은 응당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일어날 것(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는 추사의 덕담이 장쾌하다. 이 구절은 원래 〈금강경〉의 일구로, 혜능 또한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이런 이치는 "노행자(혜능)도 그 묘법을 독차지하지는 못 할 것"이라는 추사의 변은 원래 본심이 그러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초의 또한 이런 경지에 도달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社團法人 세계 불교 법왕청

법왕 추대시까지 임시 중앙 정부 조직으로 추진위 활동
임시 중앙정부 10월 9일 선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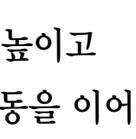
주관 – 법왕청 소속 각 종단 및 불교단체 총연합 협의회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 왕 청 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 옹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세계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고승 및 대종사 법왕청 내각 임명자
세계불교 고승단 1080명 인명 대사전
(1인 A4용지 분량 크기로 등재하며 비용 일체 없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가는 날까지 원고 쓰겠습니다"

작가 윤청광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위원장 · 인사클럽 회장)

원효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바가지에 담긴 물을 아주 맛있게 마셨다. 물을 마신 후, 길게 한숨을 토하고 있는데, 의상 스님도 잠결에 물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을 깨워서 그 물바가지를 건네주었다. "이 사람 자네도 목이 타는 모양이로구먼. 자, 자, 물 여기 있으니 어서 마시도록하게나."

'고승열전'

1990년 9월 1일 불교방송(BBS)에서 첫 전파를 탄 드라마 '고승열전'의 반응과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불자들은 한국불교의 역사를 지나간 고승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모였다. 아도화상, 겸익 스님, 원광법사, 자장율사…. 방송은 25권의 책으로 엮어진다.

"그 때 '고승열전'의 인기는 대단했죠. 불자라면 모두 그 시간에 라디오를 켰으니까요. 방송을 듣는 동안엔 화장실에 갈 때도 라디오를 들고 갔다는 불자도 있었어요."

1997년까지 장장 7년 동안 불교 방송사에 길이 남을 '고승열전'을 집필했던 작가 윤청광. 빗물에 젖은 우산을 털어내며 들어선 그는 기자 책상 위에 놓인 〈고승열전〉 5권 '원효대사' 편을 보자 마치 다른 시간은 필요 없다는 듯 그 시절로 돌아갔다. "정말 신나는 시절이었죠. 고승들의 숨겨진 이야기 한 줄을 듣기 위해 첩첩 산중도 반갑기만 했고, 폭설에 갇힌 산길도 망설일 수가 없었죠. 좋은 대본을 쓰기 위해 전국의 크고 작은 절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칠십을 넘긴 작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 시절을 이야기했다.

작가의 탄생

작가 윤청광. 그의 작가로서의 삶은 1965년 문화방송에 입사하면서 시작된다. 보도국 작가로 입사한 그는 당시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오발탄'과 문화방송 최장수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된 '전설 따라 삼천리'의 작가로 활동하게 된다. 오늘날 작가 윤청광의 이름 뒤에 대표적으로 따라 붙는 작품은 '오발탄'이지만 '전설 따라 삼천리'는 불자 윤청광으로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발굴해 선인들의 슬기와 지혜를 배우고 미풍양속과 경로사상, 충효사상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1965년 5월 1일 시작된 프로그램은 여러 명의 작가들이 집필을 맡았다. 작가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그는 다른 작가들과는 다르게 불교와 관련된 전설들만을 소재로 했다.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던 '전설 따라 삼천리'에는 산신령이 나타나는 소리, 마귀가 우는 소리, 조롱박이 황소로 변하는 소리 등 많은 효과음들이 등장했는데, 그의 작품에선 예불소리, 독경소리, 목탁소리, 산사의 풍경소리, 노승의 법문 소리가 들려왔다.

불교를 만나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바닷가 절벽 위엔 절이 하나 있었다. 축성암.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축성암에 다녔다. 그는 절에 다니는 게 좋았다. "그냥 좋았죠. 그 땐 그랬어요. 힘들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절에 가면 떡이며 과일이며 먹을 수 있었죠. 학교 소풍도 축성암으로 갔었죠."

작가 윤청광이 쓴 '전설 따라 삼천리' 속에 예불소리, 목탁소리, 스님의 법문 소리가 있어야만 했던 것은 아마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절에 다닌 그 시절이 작가 윤청광의 정신적인 뼈이고 살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불교'와 만나게 된다. 당시 동국대 불교대 학생회장이었던 박완일 회장이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강연 했던 '불교강연'을 듣게 된다.

"그 때 처음 불교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죠. 맛을 보게 됐다고 할까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늘 문예반 활동을 하며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워왔던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동국대 영문학과에 입학한다.

"영문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보니,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선 〈성경〉이 필수인 것을 알게 됐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다보니 고등학교 때 불교 강연에서 들었던 '불교'가 떠올랐어요. 불교 속에 있던 것들이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그때 불교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는 그 때부터 불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대 학보사 1기 기자로 활동하게 되는 그는 학교 신문을 만들면서 불교에 대해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대학을 마친 그는 문화방송에 입사하게 된다.

시련과 출판인으로의 새로운 삶

문화방송에서 '오발탄'과 '전설 따라 삼천리'의 작가로 맹활약 하던 그에게 시련이 닥친다. 1980년,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단했던 시절이다.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던 시절이었다. 언론은 말할 것도 없던 시절이었다. '언론통폐합', 1980년 11월 12일 신군부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강제로 언론매체를 폐지 또는 통합했다. 그 과정에서 윤청광의 '오발탄'은 문을 닫게 된다. 그리고 그도 문화방송을 떠나게 된다.

작가로서의 삶을 접어야만 했던 그는 출판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1980년, 그는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불교방송史에 남을 '고승열전' 집필
대표작 '오발탄', '전설따라 삼천리'
동국대 학보사 1기 기자
법정 스님 〈영혼의 모음〉 편집 인연
염주 팔것 아니라 '찰 사람' 만들어야
'인사클럽' 초대회장 취임, 남은 인생 회향

있는 동국출판사를 설립한다. 그는 이미 출판의 경험이 있었다. 1973년 법정 스님의 첫 번째 책 〈영혼의 모음〉의 편집장을 맡았었다. 훗날 법정 스님이 시작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의 본부장을 맡게 되는데, 그의 법정 스님과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 불교 출판 시장은 기독교의 20% 밖에 안 됩니다.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책 보는 문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출판 시장이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교'가 걱정스러워지는 것이죠. 염주를 팔 것이 아니라 염주를 찰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로서의 삶을 접고 출판인으로 사는 동안에도 그의 그림자는 늘 불교 안에 있었다. 그 동안 동국출판사는 불서를 비롯해 일반 경제서적, 심리서적 등 120여 종의 책을 출간했다.

다시, 작가 윤청광

출판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그였지만 '윤청광'은 작가였다. 그는 문화방송을 그만 두었던 1980년부터 박완일 회장이 발행인으로 있었던 월간지 〈법륜〉에 연재를 시작한다. 겉으로는 작가로서의 삶을 접은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는 '작가'였다. 연재는 한국불교 고승들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 때 〈법륜〉에 10년 동안 연재했던 고승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훗날 '고승열전'이 있을 수 있었죠."

그랬다.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고승열전'



불교방송史에 남을 '고승열전'은 25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사진은 1995년 출판기념회 모습



윤청광은 … 1942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문화방송에서 '오발탄', '신문고', '전설 따라 삼천리', '세계 속의 한국인' 등을 집필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와 부회장,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불교신문과 법보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법정 스님이 제창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본부장을 지냈다. 현재 동국출판사 대표, 출판연구소 이사장,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 인사클럽 회장을 맡고 있다. BBS불교방송을 통해 '고승열전'을 집필했고,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회색고무신〉 등의 저서가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다.

"그때 수집했던 기록들이 고승열전의 기초가 됐죠. 그 기록을 보안하고 수정해서 '고승열전'이 탄생한 거죠."

작가로서의 삶을 접고 출판인으로 삶을 시작했던 그는 1990년 '고승열전'으로 다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쉬운 불교'

"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알아먹는 불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한 것이 '고승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몸과 마음속에 '불교'가 가득차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겐 자신도 모르게 포교에 대한 원력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쉬운 불교'를 전할까 궁리했다. 주먹 하나와 '악!' 소리 하나로 끝나버리는 고승들의 선문답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지 작가 윤청광은 고민한다. 작가 윤청광의 고민과 희열은 거기에 있었다.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게 알릴까 고민했고, 그 고민의 끝이 그의 희열이고 보람이었다. 다음날 아침, 밤을 새운 그의 고민이 라디오의 전파를 탔던 것이다.

효과 : 풍경소리 땡그렁 울린다.
스승 : "저 소리를 듣느냐?"
제자 : "무슨 소리 말씀이십니까?"
효과 : 다시 풍경소리 땡그렁 울린다.
스승 ; "저 소리도 못 듣느냐?"
제자 : "풍경소리 말씀이십니까?"
스승 : "그래, 저 소리가 있다고 할 것이냐? 없다고 할 것이냐?"
효과 : 정적
제자 : "없습니다."
효과 : 다시 풍경소리 땡그렁 울린다.
스승 : 저 소리는 무엇이더냐?
제자 : "있습니다."
스승 : "허어! 저 풍경소리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고승열전은 말(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법문'이었다. 그가 작가로서 제2의 삶을 시작하면서 세운 원력은 작품을 통해 쉬운 불교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작가 윤청광이 홀로 일으킨 윤청광만의 '불교운동'이었던 것이었다.

회향

작가로서의 삶과 출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는 불자로서 또 다른 원력을 세웠다. 불교신문과 법보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낸 그는 '불교 언론인'이기도 하다. 불교 언론인으로서 그가 세운 원력은 불교 언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7월 22일, 동산불교대학 2층 법당에서는 불교전 · 현직 중진 언론인 모임인 '인사클럽'이 창립총회를 갖고 창립됐다. 그는 불교 언론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언론인 모임인 '인사클럽'의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불교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의 진정한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과 한국불교의 지표를 상정하는 사회적 토론을 위해 만들어진 '인사클럽'의 초대 회장을 맡은 그는 취임 인사말에서 "인사클럽이 종단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정론직필을 펴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며 "인사클럽이 후배 기자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바람막이가 되고 등불이며 후원자가 돼 오욕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한국불교 1600년을 펼 수 있게 밑거름이 되자."고 말했다.

"불교가 들어온 지 1600년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교'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불자들 모두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불교의 새로운 '1600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처님이 남기고 간 불교의 원형을 우리나라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 언론이 그 새로운 1600년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교 언론이 좀 더 튼튼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작가'라고 마무리하며 그는 말했다. "가는 날까지 원고를 쓸 겁니다. 새로운 한국불교의 1600년을 위해.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교방송史에 공헌한 윤청광은 2004년 보리방송문화상을 수상했다.

전법일기

부처님 말씀으로 내일을 열어가자

신도상담

사찰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신도상담"이다. 10여 년 째 소임을 살고 있지만 한 순간도 가벼이 할 수 없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친 신도들은 위로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또는 명쾌한 삶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스님을 찾는다. 상담을 원하는 신도들 중에 기쁘고 신명나는 일로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막히고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 묘책을 원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이야기는 가족이나 이웃 간의 갈등해결이다.

그 중에서 부부간의 이혼상담은 난제 중의 난제다. 언제인가의 일이다. 다저녁때 부부가 찾아왔다. 상담을 하고 싶다고. 내 앞에 앉은 부부는 각자 등을 돌리고 출발점을 알 수 없는 갈등은 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참을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을 소나기처럼 쏟아 붓던 부인은 뜬금없이 궁합을 봐달라고 했다. 그렇잖아도 당혹스런 나에게 이 무슨 황당함이란 말인가.

말이 없는 나에게 그 보살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주팔자를 봐달라고 재촉했다. 난감하기 그지없다. 슬하에 자녀들이 성년의 나이가 되었을 만큼 살아놓고 이제 와서 사주팔자 타령이라니….

스님과 상담을 신청해놓고 사주팔자와 신수 봐달라 할 때도 난감하다. 으래 당연하게 스님들은 역학정도는 우습게 할 줄 아는 것으로 안다. 그럴 때 마다 곤혹스럽다. 나는 역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배울 마음이 없었다. 배우면 써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꾼이 되는 것은 인지상정



그림 · 박구원

이다. 그렇다고 잡기가 있어 보면 척척 알아맞히는 능력(?)도 물론 없다. 그렇다보니 난처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론 얼마나 답답하면 절에 와서 이리도 매달릴까라는 생각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 정중히 '저는 그런거 못합니다'라고 하니 스님은 그런 거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웃는 얼굴로 핀잔을 주는 듯한 완곡한 충고를 하고 나가버린다. 아마도 잘 봐주는 다른 절로 갈 기세다.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주지자격미달인 셈이다.

어떤 분은 십년 넘게 자녀의 결혼상대자의 사주를 들고 찾아오는 이도 있다. 30대 초반부터 시작된 좋은 짝 찾기 노력은 올해도 여지없이 두 번의 상담을 거쳤다. 사주를 적어온 메모지를 내밀며 어떨 것 같으냐는 질문에 난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이제 자녀를 놓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결혼을 못합니다. 사주궁합보다 서로의 마음이 우선이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궁합이 맞아야한다며 묻기 시작한 것이 벌써 자녀의 나이가 내일모레면 오십이다.

요즘도 가끔 이런 분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어떨 것 같은지 묻는다. 마치 철학관이나 무속인에게 묻듯이 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힌다. 절에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는 태도를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안타깝다.

절은 그런 것 보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며 무엇이 궁금한 것인지 내용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지혜말씀과 자비실천으로 모두 담아 낼 수 있고 이룩할 수 있는 바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고 이해를 넓혀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 쉽게 사주팔자 신수를 통해 내일의 나를 알고 싶은 것이다. 한편으론 방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답을 해주곤 한다. 그렇다보니 스님들이 마치 내일을 알고 있는 신통한 도인처럼 오해하는 일이 생긴다.

살다가 어렵고 막힌 일을 풀기 위해서 또는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스님을 찾을 땐 부처님의 가르침을 물어야 한다. 우리들이 궁금한 내일은 사주팔자나 신점이 아닌 부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고 수행자들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섭 스님(조계종 교육국장, 경기 오포 불국사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태국 불교 TV, 영국 교회 인수해 포교 나서

담마 미디어채널, "명상원 개원해 지역 주민 심신 달랠 것"

영국의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South Tyneside county)에 있는 고풍스런 옛 교회 건물에서 7월 29일 첫 법회가 봉행됐다.

더쉴드가젯(The Shields Gazette)는 8월 2일 "세계적인 종교 케이블로 손꼽히는 '담마 미디어 채널(Dhamma Media Channel, 이하 DMC.TV)'가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성 엔드류 교회(St Andrew's Church)' 건물 일부를 인수·개축해 명상원(Meditation Center)을 개원하고 7월 29일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DMC.TV는 태국 불교계의 주축인 담마카야 재단(Dhammakaya Foundation)이 재정 지원하는 세계적인 불교 전문 종교채널로, 현재 북미·호주·유럽대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성 엔드류 교회가 들어선 엘리슨 거리(Ellison Street)는 빅토리아 시대(1837~1901) 최고의 조선소를 설립·경영했던 엔드류 레슬리(Andrew Leslie)에 의해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1800년대 조성된 곳으로, 지금까지 헵번 강변(Hebburn riverside)의 랜드마크로 주목받아 왔다.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 행정당국은 이 곳에서 관광지로 주목받지 못한 고 건축물에 대해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 임대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DMC.TV 측이 성 엔드류 교회 일부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The Shields Gazette〉 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명상원 원장 프라 니콜라스 타니사로(Phra Nicholas Thanissaro) 스님의 집전으로 처음 봉행된 법회에는 지역 주민,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의 행·정 관계자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료됐다.

개원 법회에서 프라 니콜라스 타니사로 스님은 "옛 교회 건물에 명상원을 설립하는 데 동의해준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 바란다"며 "DMC.TV 명상원은 지역 사회의 영적 활력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 Shields Gazette〉 지는 지역 주민들의 말을 인용, "동의에 앞서 멘체스터와 런던 등지에서 개원·운영되고 있는 명상원 수 곳을 방문하는 등의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태국의 세계적인 불교 전문 종교채널인 담마 미디어채널이 일부 인수하여 명상원을 개원한 영국의 빅토리아 풍의 '성 엔드류 교회'.

19C 고딕양식 교회 일부 인수
주민들 "긍정적으로 기대"

이날 법회에 참여한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 존 맥케이브(John McCabe) 지방의원은 "불교는 평화와 공존을 지향한다고 알고 있다"며 "이는 명상원의 인근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 버틀러(Mary Butler) 지방의원 역시 "성 엔드류 교회는 헵번 역사에 큰 역할을 했지만, 근래 고 건축물이라는 점 외에 다른 의미가 없었다는 게 아쉬웠다"며 "이곳에서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영적인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 측의 에드워드 존슨 홍보관은 "최근 DMC.TV 측이 최근 성 엔드류 교회 전체를 사용할 의사를 밝혀 왔다"며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 행정당국은 이 제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엔드류 교회의 경우, 지난해 제로우 브레웨이(Jarrow Brewery) 사가 교회 건물 일부를 양조장 시설로 개조할 계획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되질 못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대만 스님, 미국서 '스타 강사'로 인기

"구오씽 스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수행 각광"


미국 뉴욕서 스타강사로 인기를 끄는 구오씽 스님

명상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북미지역에서 대만 불교계의 한 스님이 '스타 강사'로 떠올랐다고 리치몬드뉴스 〈Richmond News〉 지가 최근 보도했다.

화제의 스님은 바로 뉴욕 소재 '달마 드럼 수행원(Dharma Drum Retreat Center)'과 '첸 명상원(Chan Meditation Center)'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구오 씽(Guo Xing) 스님이다.

〈Richmond News〉 지는 "구오씽 스님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수행론이 리치몬드를 비롯한 북미 지역 명상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 "북미 지역에 들어온 명상이나 요가는 동양의 정신문화이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그것이 실용문화이길 기대하며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구오 씽 스님이 주목 받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와 연민의 싹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한 구오 씽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게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거친 일터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움"이라고 강조하며 "명상은 그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비움'의 매개체"라고 말했다.

3년 전부터 구오 씽 스님에게 명상을 지도 받고 있는 젠니 쿠(Jenni Kuo·벤쿠버 수산부 직원) 씨는 "점심시간 때 스님의 '수행원'에서 매일 명상하고 있다"며 "20분 남짓한 명상 시간이지만, 그 효과는 휴일 하루 수려한 산을 찾을 때와 매한가지"라며, 구오 씽 스님의 지도에 깊은 신뢰를 보였다.

지난 1990년대 초 북미 지역에 발을 들인 구오 씽 스님은 대만불교의 고승인 성연(Sheng-yen) 스님의 제자이다.

"당시 처음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옛 일을 기억한 구오 씽 스님은 "그들은 지금도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결코 '예전의 그것'이 아니다"라며 "종교는 개인적인 경험이 더해져야 더욱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게 30년 가까이 지켜온 포교 현장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구오 씽 스님은 오는 9월 5일까지 리치몬드에서의 공개 명상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초까지 북미 지역 곳곳에서 '공개 명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 최대 행사, '요구르트 축제' 막 올라

예년과 달리 중국 경찰 경계태세 강화

많은 수의 불자들과 여행객들이 8월 6일 티베트에서 시작된 '쇼툰(Shoton)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였다.

8월 12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축제는 600년의 역사를 가진 드레풍(Drepung) 사원에서 서막을 올렸다. 티베트 겔룩파 최대 사원이기도 한 드레풍 사원은 라싸 주변에 위치해 포탈라 궁이 지어지기 전까지 달라이 라마의 거처로 이용되기도 했다. 해마다 개막식은 드레풍 사원에서 개최된다.

높이 30m, 폭 20m 크기의 화려한 실크로 수놓아진 석가모니 탱화가 100명의 스님들에 의해 장대한 규모를 드러낸다. 행사는 달라이 라마의 여름 별장지인 노블링카(Norbu Lingka)에서 전통극 공연과 음식 축제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환경 보호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경주도 열렸다.

이탈리아에서 왔다는 소피아씨는 "이번이 5번째 티베트 방문"이라며 "탱화에 그려진 석가모니 위로 해가 비추는 모습이 경이롭다. 그래서 올 때마다 쇼툰 축제 개막의식을 챙기게 된다"고 했다.

지난 몇 년간 관광객 숫자도 늘었다. 라싸시는 이번 축제기간 동안의 관광객 수가 2010년 축제 때 방문한 4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시당국은 드레풍 사원으로 가는 길을 넓히는 등 축제 준비를 위해 천 4백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5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툰축제는 티베트력으로 4월부터 6월까지 하안거를 끝낸 스님들에게 신도들이 요구르트를 공양하는 풍습에서 유래됐다. 요구르트를 의미하는 '쇼르'와 축제를 의미하는 '툰'이 결합된, 일명 요구르트 축제다. 지역 행사로 거듭돼오다 현재는 티베트에서 가장 성대한 축제로 자리잡았다.


8월 6일부터 열린 티베트 최대 축제인 쇼툰 축제. 대형 괘불을 사원 뒷산에 내거는 것으로 축제는 시작된다. 이 탱화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새벽부터 산에 올라 자리를 잡고 기다린다. 심지어는 며칠 전부터 맞은 편 산에 오른 티베트인들도 있다하니 그들의 신심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달리 사원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검문을 강화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전했다. 최근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승려들의 분신사고가 이어져 이를 방지하고자 경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원측도 혹시 일어날 미연의 사고에 대비해 경찰과 소방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배현진 기자



불교, 물질보다는 심성

불교는 물질보다는 심성에 더 가치를 둔다. 이는 호주의 불자들이 만다라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포토뉴스위크엔더 〈PhotoNews Weekender〉 지는 8월 4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더보(Dubbo)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모래 만다라 시연회'가 열려, 호주 불자들의 이목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서부평야문화센터(Western Plains Cultural Centre)가 마련한 이번 시연회에서 티벳하우스(Tibet House) 소속 스님들은 4일간 오색 빛깔의 세밀한 평면 구조물을 짓고, 망설임 없이 허물어버리는 '만다라 시연회'를 선보였다.

서부평야문화센터의 큐레이터 엔드류 그레숍(Andrew Glassop) 씨는 "7일 오전 오색의 모래 만다라를 허무는 순간에 일어난 탄성에서 '물질보다 심성에 가치를 둔' 불교의 참 뜻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만다라 시연회는 사우스웨일즈 지역의 불심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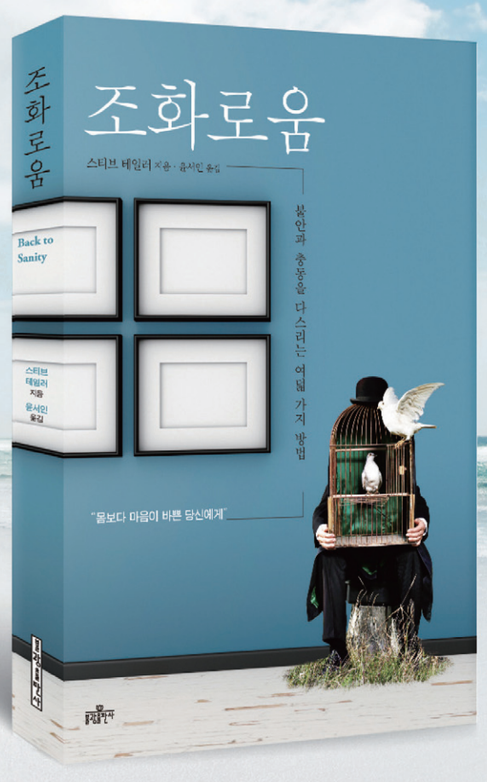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나와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
손기원 박사의
지혜인 명상지도사
제2기 지도사 과정 모집 (1급,2급)
늘어나는 '지혜인 명상'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혜인 명상 지도사' 양성 과정 오픈!
지혜인 명상은...
· 한국의 5천년 명상과 진리학습 전통 기반
한국인 명상법 + 서구의 장점 접목
우리 고유의 신명나는 인성,소통, 힐링 프로그램
· 선생님 임직원 청소년 일반인 대상 운영 중
▶2급 : 10~11월 60시간 ▶1급 : 11~12월 60시간
워크숍, 교재, DVD, 교육 참관, 자격증 수여
▶문의 :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340호

(사)동국불교 조계종
입 종 안 내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 정진하고 있는
본 종단은 부산광역시허가 2013-4호
사단법인체로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들을
본 종단 종도로써
초빙코저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동국불교 문화예술연합회
동국불교 협동조합
동국불교 조계종신도연합회
* 법인설립 하실 분 (종단) 문의 환영.
(사)동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산시 서구 천마로 113번길 16-1 (남부민동)
연락처 051) 256-1005
팩 스 051) 256-8005
직 통 010-3262-1005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불안과 충동을 다스리는
여덟 가지 방법

"산책을 할 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볼 때,
산을 오를 때 경험하는
고요한 행복과 늘 함께할 수 있다면"

조화로움

스테브 테일러 지음 | 288쪽 | 14,000원

**시간이 넉넉한데도 지나치게 빨리 걷는다,
한 번에 두 쪽 이상 책을 읽기 어렵다,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할까?
『조화로움』은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불안과 충동을 잠재우고,
고요한 평화와 존재의 조화로움을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를 선물한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조왕탱화 상세안내

1 정의 :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2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3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4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5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갑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6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7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한국전통채색학교 – 수강생모집

□ 모집기간 : 7월 ~ 9월 (90일간) / □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 □ 개강 : 10월 6일 (5개월 20회)
• 한 탱화과 (후불탱, 신중탱, 지장탱, 여래탱, 일로왕탱) 지원자격 – 사찰 스님
• 기초기반 (도안)과 지원자격 – 전문가 • 민화과 지원자격 – 전문가
• 수강장소 (선택) – 서울 목동 / 경북 경주 / 부산 서면

• 경주 054)774-0988 / • 부산 051)332-0045, 010-9388-0988




초안 (먹물 밑그림)


상호 (전통조왕상호)


문양 (고대문양)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싣기 – (11) 발미 (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 (평금), 안료, 가금 (금니)
■ 규격 : 가로 61cm ×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 유 불 화 원 금어 조성철 합장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출발일 : 2013년 8월 24일, 8월 31일 (단, 2회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 5일
출발일 : 2013년 8월 28일

■ 김해공항 출발 – 실속 (타이항공 초특가)
* 국내선 항공 이용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7일 1,590,000원

■ 김해공향 타이항공 – 베트남 항공 출발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 7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마하연 실속 팩 상품
• 양곤 / 바고 / 시리암 – 5일 (4인이상 출발가능)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7일 요금문의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19만원
• 대만	5일	11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전통문화유산 사진 콘텐츠로 확보한다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공모전'…9월 25일~10월 24일 응모

전통문화사진 디지털아카이브 사업을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공모전'이 열린다.

조계종 문화부는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표현한 사진 공모를 통해 전통문화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고 우수문화콘텐츠를 확보하고자 공모전을 마련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전통문화사진 디지털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전통문화유산 관련 사진 콘텐츠를 개발, 확보하고 국·내외에 적극적인 홍보하고 활용코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조계종은 △전통문화사진의 콘텐츠 확보 △전통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 발굴 △기록과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지속적 관심 유도 △신진 사진작가 발굴 및 양성 △전통문화사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홍보 등을 펼칠 생각이다.

작품은 전국의 유무형 문화재,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민속문화재, 전통문화체험 등 대한민국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잘 표현한 사진이어야 한다.

응모 기간은 9월 25일~10월 24일까지며 전통문화의 범주는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의 '문화유산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응모는 디지털 JPG 파일(5MB이하) 3000픽셀 이상 크기이며 사진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http://ktcphoto.kr)하면 된다.

필름은 '8×10' 인치 규격의 인화사진으로 접수신청서를 출력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디지털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 전법회관 5층 전통문화사진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출품수는 1인 3점 이내(디지털, 필름 통합)이며 출품료는 없다.

입상작과 상금은 각각 △대상 1명(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명(상금 300만원) △우수상 2명(상금 100만원) △장려상 3명(상금 50만원) △특선 10명(상금 30만원) △입선 30명(상금 10만원) 등이다. 입상작발표는 11월 초(예정) 개별통보 및 사진공모전 홈페이지(http:// ktcphoto.kr), 불교신문 홈페이지(www. ibulgyo.com)에서 공고한다. 시상식 및 전시회는 2013년 11월 중에 추후 통보된다. (02)730-4488

정혜숙 기자



조계종 문화부가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작품은 전통문화 관련 사진이면 가능하다. 사진은 불국사 전경. 〈현대불교 DB사진〉

분당 대광사 다문화가족 가을빛예술제

9월 1일 오후 7시, 야외 특설무대서 열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지역주민들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화합의 장이 열린다. 분당 대광사(주지 월도 스님)는 9월 1일 오후 7시 경내 야외 특설무대에서 '다문화 가족 및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빛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다문화 가족 장기자랑과 합창단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진다. 다문화 가족 장기자랑은 사전 오디션을 통과한 10개 팀의 경연으로 진행되며, 금·은·동상(2팀) 등 총 4팀에 시상한다. 2부에는 가수 송창식 씨를 비롯해 정태춘·박은옥 씨, 힐링명상가 김태곤 씨 등이 출연한다. 또 7인조 성악앙상블 '칸투스' 및 대광사합창단의 공연도 이어진다.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는 2009년 청소년을 위한 산사음악회로 시작돼 지난해까지 지역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로 봉행돼 왔다. 올해는 특히 지역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성남 시민 등 1,5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31)715-3000

김주일 기자

행복 바이러스 전파하는 '천진불 미소'

수진 스님 첫개인전 '천진불'展…8월 23일~29일 나무갤러리서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그리는 아기부처님, 자전거를 탄 동자승, 아기를 안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이 닥종이 공예로 되살아났다. 수진 스님(조계종 문화국장·사진)의 첫개인전 '천진불전'이 8월 23일~29일 조계사 경내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동자승과 불보살이 함께하는 모습을 한지공예로 표현했다. "5년전부터 한지 공예를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것을 한지로 표현하는 작품들이 많다 싶었는데 공방의 원장님께서 불보살님을 한지로 표현하는 것은 아직까지 못 보았다며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했어요."

스님은 그때까지 불보살을 한지 공예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공방 원장님의 조언에 힘입어 불보살을 닥종인 인형으로 표현해보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스님은 현재 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닥종이 공예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스님의 머릿속에는 살아 움직이는 불보살과 동자승으로 가득 찼고 천진불의 해맑을 미소를 떠올리게 되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작품으로 옮기니 동자승 아기부처님 나한 산신 비천 등 41점의 작품이 되었다.

닥종이로 만든 작품들은 그 동작 하나하나도 너무 섬세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그래서 피리를 불고 있는 아기 부처님은 곧 내 옆에서 음악을 들려줄 듯하고 동자승과 아기부처님이 함께 인라인을 타는 작품은 우리 동네 공원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는 얼굴 같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근엄하거나 딱딱하기만 한 절집의 불보살님이 아니라 친해지고 싶고 함께 뛰어놀고 싶은 동무 같은 느낌을 준다.

스님은 이 작품들을 통해 불교를 널리 알리고 대중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해주고자 했다. "사람들이 불교를 너무 근엄하고 딱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친근한 작품들을 일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면 대중들이 불교를 대하는 마음이 좀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저 또한 이렇게 원력을 세우고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다 보니 표정도 몸짓도 다 제 각각인 인형들을 보며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행복하기만 했어요. 많은 불자들이 제 작품을 보고 기쁨과 희망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친근한 불교 포교 원력 세워
불보살 닥종이 공예로 재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품 작업
"불교상징물로 희망 전하고파"

스님은 이번 전시가 모태가 되어 불보살을 닥종이로 만드는 대중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원력만 있으면 누구나 한지로도 부처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닥종이 공예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고 말한다.

"공방을 다니며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이 와서 닥종이 공예를 통해 치유를 받고 가는 경우를 꽤 봤어요. 스스로 힐링이 되고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닥종이 공예에요. 그러니 불보살님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일종의 명상이고 기도죠."

한국예원문화협회 권영인 이사장은 수진 스님의 이번 개인전이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권 이사장은 "부처님, 보살, 산신, 나한, 동자승 등 다양한 불교의 상징을 우리나라 전통한지에 담아낸 이전 전시는 닥종이공예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불교를 이해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전시는 한지공예가 불교포교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지로 절집에 있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스님은 불전함 화병 불기까지 한지로 만들만큼 한지공예품 만들기에 몰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스님은 한지를 통해 우리 불교를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010)6263-39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닥종이 공예로 불보살을 표현한 수진 스님의 첫개인전 '천진불'展이 8월 23일~29일 조계사 경내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불보살과 동자승의 다양한 표정과 동작을 닥종이로 표현했다.

이스탄불서 꽃피는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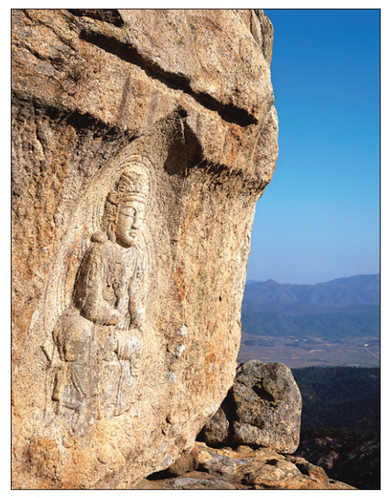
'ON KOREA·실크로드의 저편'展 …8월 31일~9월 22일 탁심공화국 갤러리서

경주의 마애불 삼층탑 등 한국 문화유산을 담은 사진들이 2013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선보인다.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조직위원회는 'ON KOREA·실크로드의 저편'展을 8월 31일~9월 22일 이스탄불 탁심공화국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현대 대표사진작가 8인의 사진 180여점을 통해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선보인다.

기획자 석재현 씨(대구 미래대 교수)는 "천년 고도 경주의 정신과 문화 유적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담은 이번 사진전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모습들을 담은 인물사진과 21세기 유일한 분단국가를 상징하는 DMZ를 촬영한 작품도 있다"고 전한다.

참여작가는 강운구, 구본창, 김중만, 박종우, 서헌강, 오형근, 육명심, 이갑철 등이며 특히 강운구 작가의 경주 남산 사진들은 눈길을 끈다. 탑골사방불, 봉화골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상, 용장골 용장사 터의 삼층석탑 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그리고 경이로움을 자아내게 한다.

한국 대표 사진가 8명이 펼쳐낼 'ON KOREA·실크로드 저편'은 때론 선명하게 때론 강렬하게 한국의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옛 모습과 천년 문화를 간직한 문화유산, 한국인이 발 딛고 사는 땅, 그리고 현재를 사는 한국의 젊은이들까지 한국의 이미지를 관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19)9021-3989 정혜숙 기자



강운구 작가의 경주 남산 '봉화골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상'



2013년 9월 제 4기 마음치유사 2급 지도자 과정 안내

마음치유사란?
마음공부를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며 다른 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치유와 예방, 그리고 교육과 수련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치유사 4기 모집 (1년 과정)

강 의 명	강 사		개 요	강의시간	요 일
자비명상과 긍정심리 Ⅰ, Ⅱ	1	마가스님	자기를 변화 시키는 강력한 프로그램인 자비명상은 모든 명상과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13:00 ~ 15:30	수요일
	2	이지원			
마음치유와 불교수행 Ⅰ, Ⅱ (불교상담과 알아차림 명상)	1	황수경	처음 시작하는 마음치유사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불교상담 및 수행 실습을 통해 스스로 치유를 경험케 하는 강좌	15:50 ~ 18:20	
	2	김열권			
마음치유의 실제 Ⅰ, Ⅱ (명상지도법, 미술치료)	1	이 운	실제 강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상지도법과 지도안 작성을 통한 강의 시연 및 미술치료를 활용한 자기 정화와 치유를 공부할 수 있는 강좌	13:00 ~ 15:30	목요일
	2	담소스님			
마음치유의 원리 Ⅰ, Ⅱ (현대심리학, 상담사례)	1	김잔디	마음 치유의 근간이 되는 현대 심리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필수 이론을 공부하는 강좌	15:50 ~ 18:20	
	2	김혜원			

마음치유사 지도자 과정 공개강좌 ▶일 시 : 8월 24일 (토) 2시 ~ 4시 ▶장 소 :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

스님들을 위한 자비명상 과정 (조계종 교육원 인증과정)

❶ 일 반 과 정 : 9월 매주 금요일 오후 2 ~ 5시 (15주)
❷ 지도자과정 : 매월 1회 1박 2일 (1년과정, 용인 행복선원)
▶ 공 개 강 좌 : 8월 28 ~ 29일 문의 : 070-4159-2456

차 명상 치유 지도자 과정 (1년 2학기, 30주 수업 + 3박4일 워크샵)

과정명	강 사	강의시간	요일	수 강 료
차 명상 치유 지도자 과정	심상숙, 마가스님, 박경준,조기형	14:00 ~ 16:00 (2시간)	월요일	130만원 (워크샵 비용 별도)

한국마음치유협회 Korea Mind Healing Association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의 및 접수 : 02)2260-3728~30 (동국대 평생교육원) / 홈페이지 : http://edulife.dongguk.edu

조형언어 해독은 진리의 문에 이르는 '제3의 길'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대좌(臺座), 수미좌(須彌座), 수미단(須彌壇)→불탁(佛卓), 불단(佛壇) (상)



위대한 예술작품은 위대한 경전

〈미술사 용어 바로잡기〉 연재에서 다루는 주제어들은 모두 논문으로 써야할 큰 주제들이다. 그만큼 용어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 많은 용어들을 논문으로 쓸 수 없으므로 비록 짧은 글로나마 바로잡고 있지만, 하나의 작은 소논문(小論文)의 성격을 지닌다. 그릇된 용어를 바로잡으려면 충분히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글이란 무릇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짧다고 부족한 것이 아니다. 〈반야심경〉은 극히 짧음에도 다른 긴 경전에 못지않으며 불교사상의 중요한 핵심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재는 단지 틀린 용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한국미술문화를 올바로 잡아가고 있으나, 더 아나가 진리의 세계에 이르는 즉, 법계(法界)에 이르는 길고 긴 역정(歷程)이라 하겠다. 그 용어 하나하나가 단지 용어가 아니고 각각 절대적 진리를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용어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올바른 여래의 본질과 법계의 올바른 본질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사에서 혁명적이라 할 선종(禪宗)은 불립문자(不立文字)의 기치를 드높이 들고 있으나 인간은 문자언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경전과 참선을 병행하는 대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누구나 고려 시대의 고승 지눌(知訥)을 알고 있다. 당시의 불교계가 선종과 교종의 대립으로 극심하던 때, 교종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선종의 가르침을 섭렵하였고, 그 합일점과 조화를 모색하여 꾸준한 구도 끝에 '마음이 부처' 라는 선종의 종지에 의거하여 먼저 깨닫고 수행하는 돈오점수(頓悟漸修)와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하였다. 마침내 그의 뜻이 이어져서 선종과 교종을 조계종에 통합하여 불교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지눌이 열반에 들자 왕은 '보조국사(普照國師)' 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보조국사'의 보조(普照)는 어디든 평등하게 비추는 햇빛의 의미여서 바로 비로자나(毘盧遮那)라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10년 전부터 조형언어를 해독하면서 조형미술에서 문자언어나 불입문자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 진리를 읽어낼 수 있었다. 조형미술은 단지 불교를 설명하는 것이나 장식이 아니라 아니고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를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조형언어임을 깨닫게 되어 세계의 보편적인 조형언어를 해독하는 작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형미술품은 여래나 보살의 현현(顯現)' 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 펴낸 〈수월관음의 탄생〉(글항아리 펴냄)이라는 저서는 고려시대의 수월관음 그림 한 편으로 수월관음의 본질을 밝힌 것이어서, '하나의 위대한 예술작품은 하나의 위대한 경전' 이라고 감히 선언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조형언어에서 조형문법을 찾아낼 수 있고 새로이 해석할 수 있고 새로이 창조적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연재는 바로 조형언어를 해독해 가면서 여래를 찾아가는 길고도 긴 역정(歷程)이라 할 수 있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天路歷程: The Pilgrim's Progress) 이라는 책은 19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의 베스트셀러였다.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길은 협소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다.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고독하고 유혹과 미혹이 많은 어려운 길이라고 믿었다.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읽는 사람은 적다. 이에 대응하여 이 연재는 〈법계역정〉(法界歷程: 법계에 이르는 여정)이라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데, 조형언어를 해독하여 가는 과정에서 그 궁극의 길은 고난의 길이나 좁은 문이 아니고, 환희의 길이며 넓은 문임을 알았다.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는 여래가 계시는 법당으로 가려면 수많은 문(門)을 거쳐야 한다. 여래를 만나려면 수많은 문을 거쳐야 하는데, 그 수많은 문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문들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는 여래를 만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용어(用語)라는 것은 문(門)과 같다.

옛 예술가들은 고승들에 못지않게 조형미술에 고귀한 진리를 조형언어로 알차게 담아왔다. 그런데 우리는 조형미술을 온갖 오류로 더럽혀 왔기 때문에 진리에 접근할 수 없었다. 틀린 용어들인 악마 파순들 때문에 올바른 접근이 차단되어 왔으며 제3의 길을 개척할 수 없었다. 우리는 조형미술을 올바로 해독하여 '진리에 이르는 제3의 길' 을 개척하여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려한다.

대좌 · 연화대좌 · 수미좌 · 수미단이 아니다

여래가 정좌하여 앉거나 서 있는 자리를 사람들은 단지 대좌(臺座)라고 하거나 수미좌(須彌座)라 한다. 공양물을 놓기 위해 좀 넓으면 수미단(須彌壇)이라 한다. 대좌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연화대좌(蓮花臺座)이나 이 용어도 앞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용어이다. 그런데 대좌가 수미산을 본 딴 모양이라는 일본학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미좌나 수미단이란 용어를 많이 쓴다. 이 용어는 일본 식민지시대에 들어온 말이다. 즉 수미산 정상에는 도리천이 있으며 제석천이 머물고 있는 것이지 여래가 머물러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 정상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다.

수미산은 불교 이전부터 있던 인도 본래의 우주관의 산물인데 그 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불교의 모든 것으로 설명하려니 그 오류가 산처럼 쌓여가는 것이다. 문자언어로 쓰여진 모든 이야기에는 오류들이 엄청나게 많다. 지금까지의 길은 반야의 길이 아니라 파멸에 이르는 길이다. 여래가 앉거나 서있는 자리를 대좌라고 부르는 것은 여래를 바라보고 사람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

여래가 앉아 계시는 자리는 대좌나 수미좌나 수미단이 아니라, 여래가 영기화생(靈氣化生)하는 극적인 광경을 보여주는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자리를 잘못 부르고 있거나 기록이 있어도 의미가 없으므로 결국 대부분의 용어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기에 필자가 숙고 끝에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용어들을 올바로 잡아가는 보편적 방법론은 바로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이다. 그 이론이 정립되자 수많은 용어들의 오류가 수면 위로 또 올랐기 때문에 그 이론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다. 고대문헌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모든 기록은 조형미술이 만들어진 다음, 훨씬 후대에 잘못 기록된 것이 많다.

여기 경주 황복사 석탑에서 발견한 금제 여래입상이 있다. 692년 이전에 제작한 삼국시대 양식을 보여주는 불상으로 높이는 14센티에 지나지 않으나 우리나라 불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 가운데 하나다. 자, 이 여래상은 단지 대좌에 서 계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다고 연화대좌위에 서 계시는 것도 아니다. 수미좌나 수미단에 서 계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래는 우리에게 어떤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경주 황복사 석탑에서 발견한 '금제 여래입상'

藥이 되는 사찰음식

호박에 꽃이 피면 영양도 만점



호박꽃 만두

△재료(4인 기준)

○ 호박꽃, 두부 50g, 마 100g, 표고버섯 3장, 홍고추 1개, 청량고추 1개

○ 초간장 - 간장 1큰술, 다시마국물 1큰술, 감식초 1/2큰술,

△만드는 법

① 호박꽃은 잎이 살짝 벌어진 것을 준비하여 엷은 소금물에 헹궈 씻어 물기를 뺀다.

② 소에 들어갈 두부는 면보에 물기를 꼭 짠 다음 곱게 으깨어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한다.

③ 표고버섯, 청홍고추는 곱게 다진다.

④ 마는 강판에 곱게 갈은 후 소금, 참기름으로 간을 맞춘 후 젓가락으로 많이 저어 부드러운 기포가 형성되도록 한다.

⑤ 준비된 소는 모두 섞어 젓가락으로 섞어 부드러운 상태로 준비한다.

⑥ 호박꽃에 소를 채워 넣고 김오른 찜솥에 5분 정도 쪄 낸 다음 초간장 곁들여 낸다.

애호박 표고버섯 구이

△재료(4인 기준)

○ 애호박 1/2개, 표고버섯 10장, 홍고추 1/2개, 청고추 1개

○ 양념장 - 국간장 1큰술, 매실액 2큰술, 다진청량고추 1작은술, 통깨 1작은술, 들기름 1큰술



△만드는 법

① 애호박은 소금으로 밑간을 한 후 수분이 적당하게 빠지면 물기를 닦아내고 프라이팬에 구워낸다.

② 버섯은 크기에 따라 2~3등분 한 후 팬에 볶아 색이나고 쫄깃한 질감이 날 때쯤 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③ 양념장은 분량대로 섞는다.

④ 구운 애호박 위에 표고버섯과 양념장을 올려 낸다.

식용 호박꽃은 당뇨 예방

호박은 우리네 밥상의 단골 재료중 하나로 그 쓰임새가 다양하게 이용된다. 반면 호박꽃으로 요리를 해 먹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흔히들 못생긴 사람을 호박꽃에 비유하지만 순박하고 은은한 그 모습은 어느 꽃에도 뒤지지 않는 것처럼 좋은 맛과 효능도 지니고 있다.

호박은 카로틴이 풍부해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므로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다. 또한 호박꽃은 달고 따뜻하며 독이 없고 소변에 이롭고 당뇨에 도움이 된다. 호박꽃 가루 속에는 35%의 단백질과 22종의 필수 아미노산, 12종의 비타민, 16종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그 밖에 사람의 생명현상에 불가사의한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호박꽃잎 자체에도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 있다.

호박꽃에 소를 채워 넣어 쪄서 만두로 먹어도 좋고, 튀김옷을 입혀 튀기거나 구워먹어도 좋다. 단 요리시 손질 할 때 마지막에 엷은 소금물에 헹궈야 고운 색을 유지할 수 있다. 소를 만들 때 젓가락으로 많이 저어 기포가 형성되도록 해야 아주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 할 수 있다. 그 외에 호박꽃을 말려 볶은 후 차로 이용해도 좋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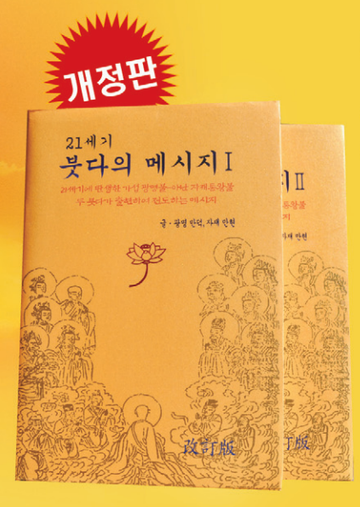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茶'의 절대적 두 고전 깊이 연구한 '성과'



육우다경 육우 지음 | 한유미 주해 | 5만7천원
동다송 초의 지음 | 한유미 주해 | 3만6천원

'차(茶)'의 고전 〈다경(茶經)〉과 〈동다송(東多頌)〉의 연구서다. '차(茶)'의 원전(原典)을 논할 때 〈다경(茶經)〉과 〈동다송(東多頌)〉은 빼놓을 수도, 두 번째로 생각할 수도 없다. 두 고전은 차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 저변에서도 절대적인 텍스트이다. 하지만 차 문화를 상징하는 두 고전의 중요성과는 달리 두 책에 대한 국내의 연구 성과는 미약하다. 특히 그것은 일본이나 중국학자들의 일방적인 견해를 옮겨 놓은 것이 대부분이라서 깊이 있는 연구서라 부를 만한 것 역시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번에 나온 〈다경(茶經)〉과 〈동다송(東多頌)〉은 이런 열악한 상황을 만회하는 연구서로 저자가 6년여의 작업 끝에 내놓은 역작이다. 차의 가공과 심평의 전문인으로, 차 품평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평(心評)'이란 용어를 알렸던 저자는 "중국 차 문화의 역사적 두께에 밀리고 일본의 탄탄한 사회적 기반과 학문적 기세에 밀려 누구도 우리만의 생각을 드러낼 연구에 엄두를 내지 않는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책이 사용되기 바라는 것이 첫 번째 집필 목적이다."고 출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다경〉은 1200여 년 전에 나온 차 문명의 시발점이 된 책이다. 차의 가치와 차 전반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전문 서적으로, 3권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 전반을 다루고 있는 전문서적이지만 육우의 독창적 정신이 종합적 발전 형태로 기록된 실용서이다. 〈다경〉은 정통 사관의 저술이 아닌 문화라는, 조금은 변방이라 할 분야의 지극히 개인적인 저술이다. 하지만 그 내용과 형식을 보면 그 시대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분야에 대한 사명감을 충분히 발휘했고 더욱이 '경(經)'이라는 글자까지 붙이며 시대적, 역사적 사명에 부합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다경〉은 득차를 위한 전제 조건인 성차(成茶·자연과학적 관점의 물질적인 차를 이루는 것)를 위한 책이다. 득차(내면)의 열망이 외부의 발전을 불러일으킨 물증을 수중(守中)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수중은 성차의 완결이다. 이 완결이 차의 근본을 지키는 일을 향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육우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다. .

책은 〈다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과 지명에 대한 주석을 상세하게 달았으며, 토씨 하나에서 시작된 의문을 당대의 생활상으로 확장시키고 육우의 정신세계로까지 연결 짓고 있는 대목은 연구서로서의 성과로 보인다. 더구나 차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누메노(일본)의 학설을 반박하는 저자의 새로운 시각은 연구실에 익힌 지식과, 차 가공과 심평의 전문인으로 차와 더불어 살아온 일반적인 차인이라는 사람들의 시선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육우의 차 정신의 백미를 수중(守中)이라 단언함에 있어서 '배꼽이 긴 차솥'을 근거로 제시하는 치밀함이나, 가끔씩 던져놓은 한국 차계를 향한 고언 등을 보면 차와 하나 된 삶을 살아온 차인의 엄정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엿볼 수 있다.

〈동다송〉은 '우리나라 차를 칭송한다'라는 뜻을 가진 서사형식의 다시(茶詩)이다. 서울 살던 정조의 사위 홍현주가 진도부사 변지화에게 차에 관해 물어본 것이 계기가 되어 초의가 1837년(52세)에 〈동다행(東茶行)〉이라는 제목을 붙여 저술하여 바친 글이다.

초의의 〈동다송〉은 원본이 없다. 지금 우리가 판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필사본이다. 책은 오탈자가 가장 적고 원본에 가깝다는 개인 소장의 〈석경각본〉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전서〉에 실린 것과 정영선의 〈경암등초본〉을 참고 하여 쓰여졌다. 초의가 인용을 했거나 영감을 받았을 것 같은 자료들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해에 달아놓았다.

초의의 〈동다송〉에는 시구를 이해를 돕기 위해 협주를 달았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짧지 않은 시구에다 협주가 길고 많아 시(詩)로서 감상하는 편집을 하지 못했다. 저자는 "시의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차에 대한 정보전달이 목적인 협주의 분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구로 감상하는 것이 형태상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으며, "어쨌든 시구와 협주만을 따로 모아 감상의 효과를 맛볼 수도 있었고, 협주 때문에 끊어지는 시구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협주 자체만이라도 한문은 한문대로 해석은 해석대로 따로 모은 편집을 했더라면 시각적으로 보다 집중이 되었을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초의가 차에 일가견을 지녔다하나 중국의 다서를 보고 차 만드는 것을 책으로 배우다시피 한 것이어서 일관성 있는 제다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초의가 차에 대해 명성이 있었던 것은 품질보다는 중국에서 차를 구해다 먹는 것이 어려운 사대부들이 국내에서 조달하게 되었으니, 품질이니 뭐니 따지는 것은 둘째였을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초의는 실학자인 정약용과의 뜻하지 않았던 인연과 또 그로 인한 사대부들과의 인맥과 학문, 자신의 문학적 재능 등이 어우러져 지적 목마름을 맘껏 충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초의에 대한 생각에서도 저자는 거침없는 직설과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음이 지금까지의 저술들과는 차별되는 점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아이들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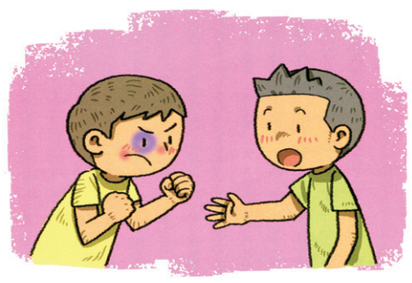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 마음거울 108' 앱 개발 지원 스님 엮음 | 너울북 펴냄 | 각 권 1만6천원

자녀를 키우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려운 일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특히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단순히 '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우리들의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일은 가정이나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책은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커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서로 몇 해전 조계종 포교원(원장·지원)에서 개발하고 배포한 모바일 앱 '어린이·청소년 마음거울 108'이 모티브이다.

아이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고 아픈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아이들은 지금 아프다.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성장기에 따라 문제의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인터넷이나 게임, 스마트폰, 채팅 등 각종 중독현상을 비롯하여, 폭력성이나 정서불안, 행동장애, 왕따, 반사회성 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점점 더 삭막하고 황폐해져 가는 아이들의 정신세계, 문제는 알지만 막상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책은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두 책은 각각 108개의 다짐말(주제어)과 주제에 맞는 예화와 일러스트, 그리고 생각거리와 토론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핵심이자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다짐말은 단순 명쾌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화는 동서양의 각종 고전이나 철학, 종교, 유명한 이야기들, 혹은 인류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의 일화 등을 통해 주제어에 대한 설득력을 부여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생각 및 토론거리는, 아이들이 각각의 경구와 예화를 읽고 나서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몇몇 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좀 더 성숙해지고 사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경구는 간단히 읽고 새김으로써 하루의 다짐이나 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예화는 아이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야기책으로, 생각 및 토론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의 주제로 활용할 수 있다.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존감이다. 자기 스스로를 믿고 아끼고 존중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이야말로 아이들이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건강한 자존감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확장되는데, 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변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도록 이끌어준다. 책에 실린 다양한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처럼 책을 통해 아이들은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갖추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헤쳐 나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생활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기는 모든 것이 형성되어 가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때의 경험과 마음가짐은 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심성 계발에 관심을 두고 꾸며진 책은 이 시기의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간추려, 맑은 심성과 건전한 사고방식, 따뜻한 정서를 갖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서이자 지침서의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한 일이다. 아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의 행복이다. 책은 사회 전체가 읽어야 할 책이다.

박재완 기자

시대가 뺏어간 본연의 감각을 찾아서

유쾌한 먹탱이의 문자로 보는 세상

권상호 지음 | 푸른영토 펴냄 | 1만2천8백원



수많은 한자가 등장하는 책으로, 서예가이고 국문학도인 저자가 예술에 대해, 문자라는 학문에 대해, 그리고 일상에 대해 이야기 한다. 책은 '서예의 향기', '문자의 향기', '생활의 향기'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말한다. 왜 책을 썼는지.

"우리는 잃은 게 너무 많다. / 텔레비전을 얻은 대신에 대화를 잃었다. / 컴퓨터를 얻은 대신에 생각하는 힘을 잃었다. / 휴대전화를 얻은 대신에 독서를 잃었다. / 인터넷을 얻은 대신에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잃었다. / 키보드를 얻은 대신에 붓마저 잃어버렸다. 〈중략〉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다시 말한다.

"생각과 느낌의 씨앗인 말, 글에서 빛바랜 이성과 감성을 되찾고 느림의 미학인 서예를 통하여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고.

'서예의 향기'에서는 느림의 미학인 서예와 글자에 대해 이야기 한다.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시대가 빼앗아 간 우리들 본연의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속에 녹아 있는 옛 선조들의 인생살이에 대한 지혜를 배울 때 우리는 윤택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먹을 통해 느릿느릿 그려지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잠시 잊고 있었던 소중한 인생의 가치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자의 향기'에서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한자와 문자를 가지고 인생을 이야기 한다. 정통 문자학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문장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정통 문자학을 뛰어넘는 유쾌한 문자학을 선보인다.

'생활의 향기'에서는 문자를 풀이하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유식의 활동도 얼마든지 재미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또 학문과 예술은 어울릴 수 없다는 선입견을 깬다.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그 절묘한 조화의 매력에 빠지게 한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31 ~ 8/6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6	이 길의 끝에서 자유에 이르기를	원택	조계종출판사
7	이해하고 내려놓기 (팔정도)	일묵	궁리
8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너울북
9	걷기 명상	조성래	알아차림
10	우리 모두는 부처다(불교의 네가지 진리)	종서은 잠앙 켄체	팡세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원로의장 보 운
원로총무 송 담 원로위원 월 현
원로위원 월 각 원로위원 정 인
원로위원 수 덕

총무원장 법 정
행정원장 도 경 사정원장 법 륜 문화원장 진 송
교육원장 청 담 포교원장 동 화 비구니원장 법화 청명
비구니부원장 설 봉

총무원
총무부장 우 담 재무부장 월 산
교무부장 선 각 문화부장 한 담
규정부장 혜 오 법규위원장 설 산
환경위원장 혜 득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청 명

종무원
경북1종무원장 월 정 경북2종무원장 성 덕 경북3종무원장 혜 득
경북4종무원장 해 산 대구1종무원장 광 덕 대구2종무원장 해 산
서울1종무원장 일 휴 경기1종무원장 원 담 충청1종무원장 계 현
강원1종무원장 연 정 전라1종무원장 법 도

구족계 및 포살 보살수계 산림대법회 안내
일시 : 불기 2557년 8월 25일 일요일(음 7월 19일) 오후 1시
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90 SCO 구관 3층 306호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095 동명사 054)974-2605 053)942-4546

"간화선은 부처님처럼 사는법 강조한 수행법"



이것이 간화선이다
대혜종고 원저
무비 스님 역
민족사 펴냄
2만9500원

간화선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참구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을 알고 생사 굴레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시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큰 정신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최상승 수행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티베트 불교의 금강승 수행과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등에 밀려 간화선의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장(書狀)은 당대 지식인들의 수행 질문에 대해 대혜종고(1089-1163) 선사가 간화선은 무엇이고, 어떻게 참구해야 하는지 간화선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편지글 65편을 모은 것이다. 그래서 간화선의 교과서, 지침서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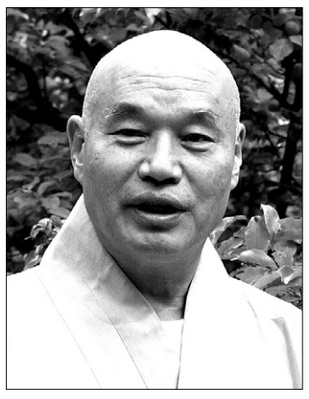
이 책은 〈이것이 간화선이다〉라는 책 제목처럼 간화선의 창시자인 대혜종고 선사가 강조한 간화선법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대혜종고 선사는 지식인들의 복잡한 사량 분별을 지혜의 칼로 끊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여 지식의 오염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대혜(大慧), 큰 지혜라는 이름처럼, 이 책은 번뇌 망상을 부수고 바른 안목을 갖춰서 화두를 제대로 참구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최고의 간화선 지침서다.

대혜 선사는 "이 무(無)자 화두야말로 모든 번뇌 망념과 삿된 지견(惡知), 삿된 생각(惡覺)을 타파하는 무기이며 지혜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다. 머리에 오직 이 '무(無)' 한 글자만 각인시켜 둔다면 모든 번뇌 망상이 소멸되어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무자 화두'를 들고 있지만 다른 여타 화두의 참구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화두는 기본적으로 의문형 구조로 되어 있다. '뭘까?' 하고 물음표(?)를 붙여서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인데, 요즘의 보편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탐구심' 또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두를 참구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왜' 또는 '뭘까'라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화두를 참구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한마디로 일체의 사량분별심(분별의식)이나 알음알이(분석), 또는 논리적 · 학문적 접근을 중지하고 오로지 '왜 무일까?' '무엇이 본래면목일까?' 하고 줄기차게 의문만 제기해야 한다.

끝까지 물음표(?)를 던져서 '뭘까?' 하고 탐구(생각, 상념)만 할 뿐, 절대 갖가지로 머리를 굴려서 화두에 대하여 알음알이를 내거나 분석 · 분별 ·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혜 선사는 절대 사량 분별심(알음알음, 알음알이)으로 화두를 참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유는 화두란 관념적인 이해, 지식적인 이해, 지능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혜종고선사 간화선법 총 망라
'무' 자만 각인시켜도 번뇌 소멸
사량 분별심으로 화두 참구 안돼

무비 스님의 명쾌한 번역과 통쾌한 해설이 돋보이는 이 책은 제목처럼 그동안 간화선에 대해 명료하게 알 수 있다. 무비 스님은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서장의 내용과 간화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선사들의 일화와 그때그때 적절한 소재를 인용해 간화선의 진면목을 드러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세계 유일의 간화선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한국 간화선 부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비 스님은 머리말을 통해 "깨달아서 무엇 하자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삶의 모습으로 자신을 감동하게 하고 타인을 감동하게 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천만 번을 깨닫고 1천 7백 공안들을 마치 염주를 꿰듯이 꿴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면 그는 선(禪)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비스님은 이 책에서 강설을 통해 "총명한 사람들의 병이란 자신을 향해 참구하지 않고 자신 밖을 향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점이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자신을 향해서 참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방편을 들었다. 그것이 화두라는 것이다. 선불교 초기에는 없었던 방법이지만, 근기가 날로 하열해지면서 그 하열한 근기를 무르익고 성숙하게 하도록 만든 것이 간화선법(看話禪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선불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선법(禪法)은 곧 간화선법이다."라고 설명한다.

무비 스님이 말하듯 간화선은 우리 삶의 드러난 작용 그대로가 깨달음이요, 우리 스스로가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임을 알고 부처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수행법이다. 요즘처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간화선은 더욱 더 필요하다는게 무비 스님의 생각이다. 사람들 하나하나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닫고 주체적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일깨워주는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선 중기 무경 자수 선사의 시 문집 및 선어록 세 권 출간



무경집
무경 자수 지음 | 김재희 옮김
동국대 출판부 펴냄 | 2만6천원

무경실중어록
무경 자수 지음 | 성재헌 옮김
동국대 출판부 펴냄 | 2만원

불조진심선격초
무경 자수 지음 | 성재헌 옮김
동국대 출판부 펴냄 | 1만1천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의 결과물이 차례로 출간되는 가운데 조선 중기의 스님 무경 자수(1664~1737) 선사의 저서 세 권이 나란히 출간됐다. 스님의 시문집인 〈무경집〉과 법어와 게송을 엮은 〈무경실중어록〉, 그리고 스님이 찬집한 〈불조선격〉의 초록인 〈불조진심선격초〉의 교감/해제본이〈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시리즈로 출간된 것이다.

▲ 〈무경집〉

다양한 시체 자유롭게 구사한 탁월한 시승

〈무경집〉은 조선 중기 때 스님인 무경 자수의 문집이다. 무경 자수는 추계 대사에게 배우고 유가와 도가의 서적까지 통달한 인물이며, 30세에 벌써 사방에서 문도가 모여들어 내원암서 강석을 열기도 했다.

대사는 시에 있어 고체 / 근체 / 잡체를 두루 하면서도 잡체시에서는 옥련환체니 투춘체니 봉요체 등 여러 형식을 능숙하게 구사하였고, 각 시체에 '변체'라 하여 자유롭게 변화를 주기도 했다. 더구나 회문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잡저 11편은 유가 문집에서도 보기 힘든 시 형식들이다.

제자를 애도하는 시 〈금화를 애도하다〉는 제자의 죽음을 차라리 자신의 죽음으로 바꿨더라면 이런 슬픔은 없었을 거라는 스승으로서의 간절한 슬픔을 보여주어, 제문 〈죽은 제자 금화를 화장하고 제사 지내는 글〉과 함께 심금을 울린다.

시 〈윤 석사에게 올리다〉에서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구부려 본 적이 없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준다.

▲ 〈무경실중어록〉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선문 방편 자유자재 구사

추계 유문(1614~1689)의 법계를 이은 무경 자수 선사의 법어와 게송을 엮은 어록이다.

젊어서 불교 외에도 유교와 도교의 전적을 두루 섭렵한 스님은 이 모두를 일심의 이치로 회통시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스님의 적극적 행보는 사회적 주도권뿐만 아니라 사상적 주도권마저 빼앗겼던 조선 중후기 불교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무경실중어록〉은 제자들에게 내린 법어, 대중법회에서의 법어, 납자들과의 거량,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표명, 수행 과정에서의 지침, 선과 교의 차이에 대한 논설 등 기존 선종 어록의 양식과 성격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어, 유학자들과의 인간적 교류에 치중하던 동시대 승려들의 문집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불조진심선격초〉

일심 주제로 원융무애 진여 방안 논설한 이론서

〈불조선격〉(1734년)의 초록이다. 선사는 부용 영관-청허 휴정-정관 일선-임성 충언-원응 지근-추계 유문으로 이어지는 조선 임제종의 정맥을 계승하였다.

이 책에는 총 19편의 문장과 다섯 편의 논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법신/반야/해탈의 삼덕을 구비한 일심'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쓰였다. 기존 선종 어록에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설명이 시도되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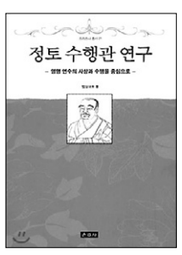
이런 독특한 이론과 설명은 삼교를 회통하는 원리 연구에 평생 주력하였던 스님의 사상적 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사회적 주도권뿐만 아니라 사상적 주도권마저 유교에 빼앗겼던 조선 중후기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불교를 중심에 두고 기존의 모든 이론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새롭게 인재를 양성하며 활발히 활동했던 스님의 행적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겠다.

김주일 기자

정토 수행 체계적으로 탐구한 연구물

정토수행관연구
법상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5천원



영명 연수는 중국불교의 대내외적 격동기인 당말 오대에 활동한 법안종의 3대 조사다.

제교융합과 제행겸수, 이사원융, 선정쌍수 등 회통불교를 주창함으로써 중국과 한국불교의 사상과 수행풍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선종의 종장임에도 천태, 화엄, 유식 등의 교학이 선과 다르지 않다는 선교일치를 표방했다. 또한 자력과 타력이라는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 선과 정토를 융합하는 선정쌍수를 적극 실천했으며, 〈종경록〉 등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이 책은 이런 영명연수의 원융한 사상과 정토 수행관, 그리고 그것이 후세에 끼친 영향과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탐구한 연구물이다. 연수의 정토사상과 수행관은 워낙 다양하고 원융무애하며 그 범위도 방대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자력과 타력을 대표하는 선과 염불을 겸수하고 일치시키는 연수의 관점을 주목하고 이를 중점 고찰하였다.

연수의 정토관과 수행관은 선의 성도문적 주체성의 자력과 염불의 정토문적 신앙성의 타력이 조화를 이루는 종교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그의 선정쌍수는 선과 염불의 장점을 상실하지 않고 단점을 보완한 수행으로서 불교 수행의 목적인 성불에 이르는 가장 이상적이고 원만한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책은 총 다섯 단원으로 구성돼있다.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연수의 생애와 저술에 대해 검토했는데, 먼저 연수의 사상과 수행관의 형성 배경을 조망했다. 이어 제 3장에서는 영명연수의 정토관과 수행론의 바탕이 되는 그의 원융 심성론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제 4장에서는 연수의 정토관과 수행관에 대해, 제 5장에서는 연수의 정토 신행을, 마지막 제 6장에서는 영명 연수의 사상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김주일 기자**

'개'의 윤회서 배우는 자비심

삼사라이야기
헬렌 마노스 지음 | 줄리 비스 그림 | 김선희 번역
담앤북스 펴냄 | 1만2천원



삼사라는 개의 모습으로 여러 생을 살았다. 어떤 생은 꽤 길었고, 어떤 생은 고작 며칠뿐이었다. 하지만 삼사라는 그런 생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 너머 나지막한 소리가 지나쳐 갈 때면 문득 당황스럽기도 했다. 삼사라는 거리의 개로 태어난 적도 있었다.

누군가 삼사라를 불렀지만 삼사라는 누런 눈을 가늘게 뜨고 노려보다가 휑하니 돌아섰다. 삼사라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어느 날 밤, 낡은 부대 자루 안에서 기지개를 켜던 삼사라는 여느 때보다 몸이 피곤함을 느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삼사라는 냄새 탐지견으로 태어난 적도 있고, 태어나 자그마한 눈을 뜨기도 전에 짧은 생을 마감한 적도 있다. 그의 생은 그렇게 반복 되었다. 그러다 어느 생, 길거리에 있던 삼사라는 어느 가난한 집 아이의 손에 이끌려 소년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하지만 소년은 불의의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삼사라는 그 소년의 눈이 되어 준다. 이전 생들과는 무척 달랐다. 삼사라는 그 소년의 눈이 되어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베푸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어느 날 삼사라는 소년의 품에 안겨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삼사라는 '윤회'라는 뜻이다.

이 책에서 삼사라는 처음에는 폭력과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마침내 여러 생을 살면서 우정과 사랑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고 행복한 곳으로 떠난다.

이 책의 저자는 삼사라라는 개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과 자비심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불교도인 저자는 그 소재를 윤회(samsara)에서 발견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 더욱 따뜻한 그림을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94년도 보이차 茶

본초강목습우(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데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남견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뚫고, 풍한(風漢)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쪄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飮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 × 지름 7㎝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신라 백성들이 「풍요」를 부른 까닭은?

노동의 고됨과 서러움 담아 공덕을 환기

1. 양지와 사석

일찍이 붓다는 이 세계를 '고해'(苦海)라고 하였다. 갖은 굴욕과 모멸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바세계를 세상살이의 괴로움과 서러움을 껴안고 살아가는 바다라고 본 것이다. 고통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불만족'과, '앞으로 펼쳐지는 세계를 다 살필 수 없는 불안정'을 가리킨다. 마치 '두 바퀴 중 하나가 찌그러지거나 부서져서 삐그덕 거리며 굴러가는 수레'처럼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붓다는 세상살이의 본질을 고통이라고 적확하게 제시하고 현실에 대한 부정의 성찰이 아닌 진실의 통찰을 보여주었다. 붓다는 고통이란 욕망하는 인간인 우리들 존재 그 자체의 기반이자 존재의 본질이라고 갈파하였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수행을 하여 극복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보살을 향해 지극한 공덕으로 고통을 덜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고통을 스스로 해쳐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살이의 고됨과 서러움을 담아 노래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공덕가와 찬불가 및 노동요와 민요들이 탄생하였다. 노래에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 및 그리움과 희망을 담아내었다. 아이들은 이들 노래를 귀담아 듣고 흥에 겨워 따라 불렀다. 〈삼국유사〉「의해」편에 실린 유일한 향가인 '양지사석'(良志使錫)조의 「풍요」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공덕가'라고 할 수 있다.

선덕여왕 때 활동하였던 양지(良志)의 조상과 고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양주동과 김사엽은 '양지'는 '아치'의 차자(借字)이며 아치는 공장(工匠)을 뜻하는 '바치'의 음전(音轉)이라고 하였다. 아마도 양지는 불상을 전문으로 만드는 조각승, 즉 '불모'(佛母)를 일컫는 통칭으로 짐작된다.

양지는 절에 재(齋)가 있을 때면 늘 지팡이 머리에 포대 하나를 걸어 놓았다. 그러면 지팡이가 저절로 시주하는 집으로 날아가 흔들거리며 소리를 내었다. 그 집에서 이것을 알고 재에 쓸 비용을 넣어 주었고 포대가 차면 날아서 되돌아 왔다. 이 때문에 양지가 머물고 있던 절을 석장사(錫杖寺)라고 불렀다.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신이한 행적은 늘 이렇게 이루어졌다. 양지는 여러 가지 기예(技藝)에도 두루 능통하여 신묘함이 견줄 데가 없었다. 또 글씨와 그림을 잘 그려 영묘사(靈廟寺)의 장륙 삼존 및 사천왕상과 아울러 전각과 탑의 기와와 사천왕사 탑 아래의 8부 신장과 법림사(法林寺)의 주불삼존 및 좌우 금강신 등이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양지는 영묘사와 법림사 두 절의 현판을 썼다. 그는 일찍이 벽돌을 다듬어 작은 탑 하나를 만들었다. 아울러 불상 3천구를 조각하여 그 탑 안에 안치하고 그 탑을 절 가운데 모시고 나서 예를 올렸다. 양지가 영묘사의 장륙삼존을 만들 때 스스로 선정에 들어가 삼매에서 뵌 부처의 모형으로 하였다. 그래서 온 성안의 남녀들이 다투어 진흙을 나르면서 「풍요」(風謠)를 불렀다. 이 노래는 선덕여왕 4년(635) 때 지어진 것으로 보아 사뇌가(詞腦歌) 가운데 「서동요」와 「혜성가」 다음으로 오래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풍요」는 양지가 영묘사의 장륙존상을 흙으로 빚어 낼[塑造] 때 성안에 가득한 남녀들이 젖은 흙을 운반하면서 부른 민요라고 할 수 있다.

2. 노동요와 불가

본디 노동요란 사람들이 함께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가리킨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 중의 하나인 상주시 공검면의 「모내기 노래」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풍요」는 신라 선덕여왕 때 불상 주조에 쓸 진흙을 나르던 이들이 부르

노동요와 공덕가 입장 나뉘어
'풍요' 양지 법사가 만든 민요
불사 노동자들이 부르기 시작

는 노동요이다. 당시 신라인들은 이러한 노력의 공덕으로 세상살이의 고됨과 서러움을 잊으려 했다. 때문에 「공덕가」라고도 부른다. 균여대사가 지은 향가 「보현십종원왕가」(11수)는 여러 부처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칭찬하는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노래는 붓다를 경배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찬탄하고 칭찬하는 구도로 지어졌다. 반면 「풍요」는 붓다를 향한 경배와 찬탄과 칭찬이 아니라 불상 주조에 쓸 진흙을 나르는 자신들의 고됨과 서러움을 담아 공덕의 닦음을 환기시키는 노래이다.

"오다 오다 오다[來如來如來如]/ 오다 셔럽다라[來如哀反多羅]/ 셔럽다 의내여[哀反多矣徒良]/ 공덕 닷?라 오다[功德修叱如良來如]" (양주동 역).

"왔구나. 왔구나./ 아 인생이란 일장춘몽이다./ 과연 서럽더라./ 그래서 왕생극락하기 위해, 절로 공덕을 닦으러 모여 들었다." (이재호 역)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서러운 이 많아라./ 서러운 중생의 무리여./ 공덕 닦으러 온다." (김완진 역)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서러운 곳이라./ 서러운 곳의 무리여!/ 공덕 닦으러 오다."(신재홍 역)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슬픔 많아라/ 슬픔 많은 우리 무리여/ 공덕 닦으러 오다." (황패강 역)



양지가 머물던 석장사에서 출토된 문양토우

여기서 '래여'(來如)는 '이와 같이 가신 따타가타'(tathaa+gatha) 즉 '여거'(如去)의 다른 표현인 '이와 같이 오신 따타가타'(tatha+agatha) 즉 '여래'(如來)의 어순을 뒤집어 '오다'를 뜻하고 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오는구나' 혹은 '왔도다' 또는 '오라' 등의 표현으로 읽어도 무방해 보인다.

연구자들마다 해독(解讀)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크게 노동요(勞動謠)로 보는 관점과 불가(佛歌)로 보는 관점으로 나뉘고 있다.

노동요로 보는 관점들은 "방아찧기(도구질) 노래의 발생 설화"(지헌영), "피지배계층의 불사와 관련된 불만 섞인 노동요"(윤영옥), "신심이 두터운 사녀들이 불사에 참여하며 부른 노래"(박노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불가로 보는 관점들은 "재에 드는 비용을 얻고자 시주의 문전에서 불렀던 불가"(김종우), "불사에 참여하며 불교의 영적 체험을 노래화한 것"(황패강), "허망한 현실을 살면서 공덕을 쌓자는 공덕가"(최철) 등이다.

양주동은 민요 즉 자신의 서러움과 괴로움을 노동을 통해 극복하려는 공덕가로 보고 있다. '양지사석' 조목의 내용과 연관지어 보면 이 노래는 가사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덕가'라는 맥락에서 불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주동의 관점은 노동요와 불가를 아우르되 그 형식이나 내용이 민요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본 것 같다. 「풍요」는 「도솔가」와 「서동요」와 함께 4구체 향가이며 4구의 형식 속에 밀도 있게 내용을 담고 있다. 일연이 "지금까지 이 지방 사람들이 방아를 찧을 때나 힘든 일을 할 때에 다들 이 노래를 부른 것은 대개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불상을 만들 때 든 비용은 곡식 2만 3,700석이었다(혹은 금색을 다시 칠할 때 든 비용이라고 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보면 「풍요」는 '노동요'이자 '불가' 즉 '공덕가'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 역사를 보는 눈

흔히 고대의 대형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매우 경직된 관점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 이를테면 왕실은 황룡사의 그 넓은 절터에 들어선 수많은 전각과 구층 목탑을 조성하기 위해 수많은 민중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억압하였다고 보는 시각이다.

즉 당시의 지배계급은 백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불교의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는 관점은 사안을 지나치게 정치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다. 물론 당시에 그런 점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

당시 민중 불사 자율 참여도 많아
이분법적 시야 옳지 않아
대중교화 방편 재조명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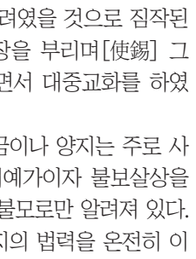
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직장' 개념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또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륙 불상 조성에 필요한 진흙 운송에 참여한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배제한 채 오직 지배자와 비피지배자의 이분법으로 전선을 긋고 바라보는 관점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당시에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관광차' 혹은 '연구차'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밟고 있는 물적 토대 즉 역사 문화적 기반을 인정하지 않고서 모든 것을 대상화해서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면 진정한 역사관을 세울 수 없게 된다. 당시의 백성들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그곳의 역사에 참여하였기에 오늘의 우리가 그곳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과거의 역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당시 양지는 「풍요」의 창작 계기가 된 영묘사 장륙 존상을 조성하기 위해 몸소 선정에 들어가 삼매에서 붓다를 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친견한 붓다를 모형으로 장육 존상의 설계도를 그려냈다. 황룡사 장륙 존상과 마찬가지로 영묘사 장륙 존상은 1장 6척 즉 4미터 80센티의 거대한 소조상이었다. 이런 불상을 모시기 위한 전각은 적어도 화엄사 각황전(覺皇殿)과 같은 중층의 대법당이었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 보면 장육 존상에 들어간 진흙을 비롯해 좌우 보처의 보살상을 비롯한 사천왕상, 전각과 탑의 기와와 사천왕사 탑 아래의 8부 신장에 들어간 진흙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이었을 것이다. 거기에다 또 그가 조성한 법림사 주불 삼존 및 좌우 금강신에 이르면 소요된 진흙은 셈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을 것이다. 양지는 선덕여왕 당시 신라 원광과 안함과 자장에 필적하는 법력을 지닌 최고 승려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자신의 석장을 부리며[使錫] 그 법력을 자유자재 펴면서 대중교화를 하였다.

하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양지는 주로 사찰의 편액을 쓰는 서예가이자 불보살상을 조성하는 조각가 즉 불모로만 알려져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양지의 법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해서 일연은 "양지법사는 재주를 다 갖추었고 덕행이 충만한 큰 인물이었지만 하찮은 재주만 드러내고 자기의 실력은 숨긴 것이라고 할 만하다"고 하였다. 그런 뒤에 일연은 이렇게 기리고 있다. "재 마치면 법당 앞에 석장은 한가한데,/ 정적 깃든 오리 모양 향로에 홀로 향불 피우네./ 남은 불경 읽고 나니 더 할 일 없어,/ 부처님 모습 빚어 합장하고 비오리." 일연의 찬시에 이은 현대의 시인 이성복은 「래여애만다라 3」에서 "이 순간은 남의 순간이었던가/ 봄바람은 낡은 베니어판/ 덜 빠진 못에 걸려 있기도 하고/ 깊은 숨 들여 마시고 불어도/ 고운 먼지는 날아가지 않는다/ 깨우지 마라, 고운 잠/ 눈 감으면 벌건 살코기와/ 오돌토돌한 간처녑을 먹고 싶은 날들/ 깨우지 마라, 고운 잠, 아무래도/ 나는 남의 순간을 사는 것만 같다"고 하였다. 일연의 '더 할 일 없는 석장'이나 이성복의 '고운 잠 속에서 남의 순간을 사는 것' 같은 '오다 서럽더라'의 한 구절 그리고 「풍요」의 풍요로움은 '진실에 닿은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민족문화추진회, 『삼국유사』(민족문화문고, 1976).
권상로 역해,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65; 1990 중판).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수 강 료 : 무료
■ 문 의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각종 상담활동을 비롯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75-3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첫 번째 계단을 거쳐야만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단을 차례로 거쳐 전당에 오를 수 있다.
그것을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첫 번째 계단을 거쳐야만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단을 거쳐 전당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진시장 앞)
010-6569-1010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010-8677-286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모든 고민은 네이버에서
"샤먼노트"를 검색해 보세요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묘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강원도 원주에 절터 부지 약 1만평을 소유하고 있는50대 비구입니다.

절을 지어서 같이 운영할 분이나
절을 지어주고 공사비를
1년 동안 분할로 나누어 받으실
인연을 찾습니다.
법적 담보해 드립니다.
심흔스님 합장
010-8459-147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 목탁, 송주북, 정근북, 법고)
– 천수바라, 작법(나비무), 49재, 천도재, 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실전위주 교육(재가불자가능)
불공의식,천도재,49재,점안식
천수바라,나비무
010-9263-8057
부산 은진사. 인호, 수법 합장

지장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서 영가천도 환자의 몸속에 숨어있는 빙의령 확인

빙의,우울증,신병,대인기피,암,원인불명,
질환,악성피부질환,아토피,인생상담
지장보살님의 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낀다
스님,보살님,법사,일반인 치유 및 제자양성
인체전기파동의학원
010-9242-5259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0-4793-9777
051)721-6444

악성피부질환 해결

전통의약 자연치유비법으로 악성 무좀, 악성종기, 악성골수염, 악성 피부염,재발하는 축농증, 아주심한 아토피염, 버거씨병, 기타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 어려운 분에게 해당됩니다. 아픈스님께는 무료 보시합니다.
010-3028-6579

최 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우울증,각종심리치료와 최면의 전과정 실기위주 속성요점 강의
• 배웠으나 활용 안되는 분 환영
• 교재 제공, 개인, 그룹 (출장가)
• 사주명리학도 개인지도함
부산 현불사
010-9342-9794

강원도 설악산 조용한 암자입니다

기도 수행하면서
가족같이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원합니다
(초보자 환영, 보수 절충 됨)
033)463-3150

목불조각상 제작 및 보유

은행나무 60여점
갤러리(장소)
제공하실 분 찾습니다
010-7153-9998

향기도의 비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도법을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신심있는 사무장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경기지역
010-8954-8033

사찰에서 함께 하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50대~60대 초반)
011-826-5037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총무스님 010-5511-7000

무료공개강좌 (영가찾는법 강좌)

생년월일시로 간단하게 찾는 법과 사주로 쉽게 찾는 법 등과 운에서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왕초보라도 가능함.
※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찾아 기도를 해주어야 모든 일이 풀린다.
무료공개강좌 –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 명리기초 및 영가특강반 :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통신강의 ☞ 지방거주나 시간이 없는 분 – 통신강의는 DVD 보내드림
백암역리원 ☎ 597-1101. 010-9150-2284
1. 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천일기도 부전스님 인연을 모십니다

(계룡산 조실스님 도량)
010-8776-12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214-0509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자성주(자성사리) 수익사업

친환경 납골문화의 21C 선두기업
고인의 유골을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
대도시 및 종교시설. 문중사당. 가정에서 모심
전국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 보은의 사랑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3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신심있으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아늑한 조계종 사찰)
02)877-7514

인연있는 분께 미륵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10-4630-8005

육임CD프로그램 효 사 비 결

정확합니다
당면사 / 일생사 / 성부단정이
확실 합니다.
정가 600만원
고복자 효사
02)738-8680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
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 비 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빙의(신병) 퇴마

9월 수강생 모집

퇴마 및 최면요법 과정 (전생과 미래를 본다)
1. 개강 : 2013. 9. 7 (토요일) 오전 11시 개강
2013. 9. 2 (월요일) 오후 2시 개강
2. 참가비 : 200만원 (8회, 과정별 교재제공)
3. 선착순 5명 그룹지도 (상담 후 수강결정)

퇴마특별과정 : 배웠으나 퇴마 못하는 분
1. 개강 : 2013. 9. 1 (일요일) 오후 2시 개강
2. 참가비 : 100만원 (4회, 문답식 교육, 문제해결)
3. 선착순 5명 그룹지도 (상담 후 수강결정)

개 인 지 도
1. 기문둔갑, 성명학, 빙의 퇴마와 최면요법
2. 시간, 장소 (서울과 의정부) 상담 후 결정
3. 지방출장 지도 2명이상

상담 : 예약상담
* 사주상담 * 심리상담, 우울증, 공포증 * 빙의퇴마
* 무 속 인 :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빙의 (신병) : 출장상담 및 출장 퇴마

• 신간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 주문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 비룡정사
• 저자 : 제행 스님 직접상담 및 지도
• 전화 : 011-772-4606. 02)588-4606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수륙영가천도

조상영가 태아영가 천도
부산 ↔ 일본오사카
일본오사카 ↔ 부산
우환,우울증,신경쇠약,불면증,비만,알콜중독,
가족갈등,변비,악몽,가위눌림,중풍,치매,암예방 등
모든 어려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수륙천도재
선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관광이 아니고 천도가 목적임. 좋은 일이 일어남.

조상 제사 잘 모시는 방법 지도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010-3815-7162 (소원양초 주문환영)
풍수지리 수맥탐지 정 태 철
010-2797-1633
인터넷 : 꿈바위 불교교육원 검색. 불교 TV 꿈바위 활동
지역사회 활동할 분 특별기도. 가정집에서 포교활동 하실 분
노인점심식사, 쌀, 라면 보시자는 기도해 드림
꿈 바 위 불 교 교 육 원
010-6789-5008 대전 · 서울 · 부산 · 대구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상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에 진흙이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안한 사람' 이다.
- 숫타니파타 -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위치 : 서울
- 대지 : 20
- 법당 : 50*2동
- 대지 : 1000
- 가액 : 6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및 토 굴 안 내

경주 토굴 안내

- 총부지 : 730평
- 법당 요사채 60평
- 야생화가 어울러진 아름다운 토굴
- 마을 앞 넓은 호수, 텃밭 100평
- 양도가 : 3억 2천만원

아 름 다 운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 역사와 정원수 다량
- 나비형 큰 호수
- 양도가 : 1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강원도 토굴 다량확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농가주택(바위굴집 동굴집 포함) 구합니다

- 저는 여성불자로서 기도할 공간을 구합니다
- 지역은 충북 옥천군, 영동군이나 충남 계룡시, 세종시, 천안시 등으로 농가주택, 바위굴집, 동굴집 등을 빌려주거나 보시할분을 찾습니다

041)552-5037

사 찰 안 내

- 위치 : 유구읍 신달 1구
- 전체 1,150평 산신각 6평, 대웅전 26평 요사채 30평, 가건물 17평
- 주차장 완비, 연못 있음 양쪽 계곡, 경관좋음
- 가액 : 5억(가격절충가)
- 전세가능

011-425-6911

토굴(급)안내

-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 한옥
- 토지임야포함 7,000㎡
- 한옥건물 약 80㎡, 황토차방 등
- 청정계곡접합, 경관수려함
- 가액: 3억 8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010-4904-3988(건물주)

불교용품 전문점

- 위치: 서울 급 양도함
- 점포 30평
- 창고 20평
- 가격은 상담 후 결정 현재 성업중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4055-12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 시내 중심가
- 상가 3층, 38평
- 삼존불, 집기시설 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 7년째 운영중

010-2020-189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도심속의 작은암자

- 위치 : 부산시내(북구) 주차용이
- 1층 와가 방2칸 약 26~30평정도
- 법당 : 삼존불, 신중, 영가단. 산신용왕별도
- 국유지 : 사용료 내고 있습
- 6천 8백만원(조절가)

011-575-97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안산 터미널 부근
- 대로변 2층 약 35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보증금1000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3111-90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 4층 건물에 4층 45평
- 시설완비. 주차장
- 석가모니 삼존불(백옥)
- 보증금 1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1-592-9599

암 자 안 내

- 경남 거제시~도심속에 산사를 풍기는 도량
- 암자 앞에는 대금산하에서 사시사철 내려오는 맑은 계곡 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 한 곳으로 모이는 도량
- 거가대교 부산~거제 톨게이트
- 내리면 10분거리, 마당까지 주차진입
- 부처님과 탱화,집기류는 모두 가져갑니다
- 일반전원주택 123평,가액3억2천만원
- 현시세 땅값만 평당 200만원 함

010-8538-4458

포 교 원 안 내

- 경남 진주시 유곡동 78-47번지 주택 4층
- 절에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조계종스님께서 계셨습니다
- 건평 100평정도 시설비는 없습니다 전세 1억이고 달세는 없습니다

010-9892-3435
055)748-6345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방문은 오후1시 이후로 오시면 가능합니다.

암자(임법당) 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온양 온천) 점양동 호수가
- 대지 70평, 건평 약 45평
- 2층 법당, 1층 요사(시설완비)
- 주차장 100평 완비
- 보증금 1500만원, 월50만원 조절가 (대지 213평, 양도 2억 7천만원)

010-7764-20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 대지 80평, 2층 법당 아래층 요사채, 앞텃밭
- 평수 : 32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 꼭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723-6640

양관(토굴)안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 대지 : 약 100평(차고 완비)
- 건평 : 약 35평
- 수행하기 매우 적합 (사 두실분 환영)
- 상담 후 꼭 필요하신분께 양도 또는 임대

010-5407-8034

암자(터) 안내

- 위치 : 밀양 IC 바로 앞
- 현 약초 재배로 암자시설 적임지
- 2천6백평
- 가액 : 평당 6만원

011-9323-86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1동 아양전철역 100m 지점
- 3층건물의 2층, 전체 68평
- 삼존불, 내부수리 및 주방 집기 세트 교체 완료, 방3칸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2천6백만원

053)248-4443
010-4474-82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상가주택 2층 28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20만원
- 저렴하게 양도해드립니다

041)552-3476
010-9497-347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동부리
- 포교원 3층 (약 50 평)
- 5층의 3층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세 2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2304-682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아파트상가 2층 약 60평
- 큰법당, 공양간, 샤워실 방3개, 시설 특A급
- 보증금10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3800만원(조절불가능)
- 스님이 운영하기 좋은 포교원
- 개원한지 약 6년

010-7576-1727

사 찰 안 내

- 공주시 유구읍 신달1구
- 전체 1150평
- 산신각 6평, 대웅전 26평
- 요사채 30평, 가건물 17평
- 주차장완비, 연못 있음
- 양쪽 계곡. 경관 좋음
- 가액: 5억 (가격 절충가)
- 전세 가능

011-425-69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350
- 기본적인 법당시설
- 4층 약 60평, 탱화없음
- 아파트 밀집지역, 포교 적합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
- 전세 6천만원

010-2880-44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상가주택 2층 28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20만원
- 저렴하게 양도해드립니다

041)552-3476
010-9497-3476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면적 : 150평
- 법당 : 40
- 요사 : 60평
- 가액 : 16억5천

- 위치 : 경기
- 면적 : 2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5천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지리산 청학동 사찰 양도

- 위치 : 청암면 묵계리(계곡접)
- 면적: 1815평,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 7평
-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난방,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수도(자가 및 마을공동겸용)
- 양도가: 13억원, 최상의 명당터 동향임
- 부지조성완료

010-3403-3355

선 ~ 정 토 터 안 내

-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과수원)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포장(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원)(금/토/일 중 방문예약)

016 - 573 - 2032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북영천IC 3분거리
- 부지 : 1,740㎡(527평)
- 법당 : 109㎡(33평) 철근콘크리트조 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 요사채 : 132㎡(40평) 방3, 거실1, 다용도실2, 치고, 창고, 야외화장실
- 가액 : 2억 6천만원(답사 후 조절가능)

010-2544-4848

신축 사찰 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5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 전세 6천만원
- 양도 : 3억 5천(대출금 1억 포함)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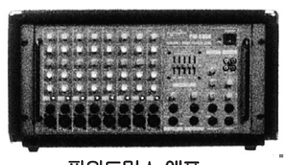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硏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자비심 일깨우기

초걈 트룽파 (승려 · 티베트)

〈3〉 상대적 보리심

나의 행복은 내쉬고 상대의 고통은 들이 쉬어라

보내기와 받아들이기 수행

보내기와 받아들이기는 보디사트바의 길을 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행이다. 티베트에서는 그 수행을 통렌(tonglen)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통(tong)은 '내보내기', 또는 '내려놓기'란 의미를 지니고, 렌(len)은 '받아들이기', 또는 '허용하기'라는 뜻을 지닌다. 이 '통렌'이란 용어는 매우 중요하므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상대적 보리심을 계발하기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수행이다.

사마타 수행을 할 때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통렌 수행은 매우 직접적이다. 그것은 앉아서 하는 실제적 수행이다. 당신은 행복과 쾌락 등 좋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든 내보낸다. 이 모든 것이 날숨과 함께 나아간다. 그리고 들숨과 함께 원망과 문제 등과 같이 나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든 들이 쉰다. 이 전 수행의 요점은 영역개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통렌 수행은 아주 단순하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교리상의 정의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없다. 그저 단순히 좋게 여겼던 것들을 내쉬고 나쁘게 여겼던 것들을 들이쉬면 된다. 처음에는 주로 좋음과 나쁨에 대한 '개념'들과 관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해 나아가다 보면 수행이 더 실제적으로 된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독을 들이마시면서 좋은 것들을 내쉬는 행위가 가끔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아주 실용적이지 못해 보이지만 일단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전보다 더 많은 선(善)이 있고, 들이쉴 것도 더 많음을 깨닫게 된다.

통렌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지각 있는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떠맡고자 열망한다. 이 의도는 그 자체만으로 수행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담파(Kadampa)의 한 위대한 스승에 대한 일화가 있다. 그는 통렌을 수행하던 중 다른 존재의 고통을 실제로 떠맡았다. 스승의 집 밖에서 누군가가 개에게 돌을 던졌는데, 이 스승 자신이 상처를 입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통렌은 어떤 해독제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 당신은 수행을 한 뒤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수행을 하고는 내려놓는다. 효과가 있건 없건 상관없다.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내쉬고, 효과가 없으면 그것을 들이쉰다. 그러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좋은 것은 움켜 쥘 필요가 없다

당신은 보통 당신이 지닌 좋은 것들을 움켜쥐고 싶어 한다. 자기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나쁜 것들은 죄다 밖으로 내높고 싶어한다. 외국인이든 이웃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그것들을 안으로 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웃집 개가 잔디를 망칠까봐 이웃이 집근처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도 싫어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삼사라의 일상에서 당신은 내보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자신을 위해 사소한 쾌락의 상황들을 만들어낸 뒤 그것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당신은 자기 영역 바깥에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당신은 유행하는 감기나 설사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계속 피해 다니려고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닐까? 기본적으로 말해, 대승의 길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우리는 밖으로 조금, 아니 상당히 많이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 보내고 받아들이는 수행의 기본 의도는 열망 없음(passionlessness)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역개념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영역개념을 극복하는 것은 날숨과 함께 나아가는 것, 내어주고 내보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고뇌를 들숨과 함께 가능한 많이 들여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는 타인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훈련시켜주는 방편이 있다.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호흡에다 실어 보내면서 연습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통렌의 첫 번째 단계는 보내고 받아들이는 수행을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부터 서서히 진행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주제의 주된 요점은 자신을 타인과 바꿔 생각하는 심리적 태도를 계발하라는 것이다. 자존심이 엄청 세고 정신적 자산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런 태도를 연습하기 시작할 수 있다.

통렌을 실제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우리는 부모님이나 친구, 또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했는지 깨닫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나는 원해"라고 말해왔고 그들은 아무 불평 없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당신은 대가를 염두에 두지 말고 당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준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그런 경험들을 기억해내서 통렌 수행의 재료로 활용해야 한다. 당신은 숨을 내쉬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냄으로써 친절에 보답한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좋게 생각하는 모든 것, 당신이 지닌 최상의 것을 내어주고, 대신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고통, 고뇌를 들이마신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들의 고통을 떠맡는 것이다. 이것이 상대적 보리심 수행의 기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닌 문제는 항상 나쁜 것을 내어주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는 점이다. 이런 태도는 사회 전반과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켜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대승의 길에 들어섰고, 논리는 역전됐다. 이것은 환상적이고 엄청난 사건이다! 우리는 불성과 관련된 최고의 이해를 내면으로부터 직접 퍼 올리기 시작했다. 부디 이 점에 대해 숙고해보기 바란다. 이 수행은 당신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은 통렌을 수행한 뒤 효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냥하고 떨쳐버린다. 결과는 관심사가 아니다. 효과가 있든 없든, 그냥 하고 떨쳐내고, 하고 떨쳐낸다. 만일 효과가 없다면 그것을 들이쉬고,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내쉰다. 그러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을 밖으로 내어주고, 잘 안풀리면 그것을 안으로 받아들인다.



'통렌수행' 보디사트바의 지름길
타인 우선시 하는 들숨 날숨 수행
해방 · 정화 시켜주는 대승의 길
부모님 · 친구 등에 '감사' 부터 시작

세 가지 대상 · 독 · 덕의 씨앗 찾기

통렌이라는 주요 수행을 하면서 열망, 공격성, 무지와 관계하는 과정은 매우 강렬하지만, 명상 후 수행에서는 그 강도가 다소 약화된다. 여기서 세 가지 대상이란 친구와 적과 중립적 타인을 의미하고, 세 가지 독이란 열망과 공격성과 무지, 또는 현혹을 뜻한다. 그리고 세 가지 덕의 씨앗이란 열망의 부재와 공격성의 부재, 그리고 무지의 부재 상태를 지칭한다.

이 주제의 수행은 다른 사람들의 열망, 공격성, 현혹을 스스로 떠맡음으로써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정화시켜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적들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공격성이 자극된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공격성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 공격성이 우리것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적들이 모든 종류의 공격성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준다. 우리의 친구들로 인해 일어난 열망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 신경증을 우리 자신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친구들이 열망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준다.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독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면 당신은 항상 보내기와 받아들이기 수행을 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열망과 공격성과 현혹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그들을 문제로 여기지도 않고 기대를 품지도 말아야 한다. 만약 공격성을 품은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이 공격성이 작업의 기반이 되기를. 내가 이 공격성을 스스로에게 불들어두는 법을 배우고, 그로 인해 지각 있는 모든 존재들이 공격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를."이라고 말한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당신이 세 가지 독을 자신의 것으로 불들어두기 시작할 때, 당신이 그들을 완전히 전적으로 소유할 때,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떠맡을 때, 모든 논리가 역전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독을 불들어 둠으로써 당신은 그 독의 대상이나 목적을 내려놓게 된다. 보통 당신은 세 가지 독을 대상과 함께 지닌다. 예를 들어, 공격성의 대상이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향해 화를 느낀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만일 그 화가 무언가를 '향해' 방향 지어져 있지 않다면 그 공격성의 대상은 무너져 내리게 된다. 그런데 당신은 화의 대상을 지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화는 그 대상이 아니라 당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대상이 당신의 화를 자극하지 않도록 자비를 비춰 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인가? 당신은 자신이 화를 낼 대상도 없이 그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이처럼 당신은 당신 자신과 관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함으로써 세 가지 독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다. 이것은 흥미로운 역설이다.

기억하며 행동하기

수행을 위해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는 우리 자신에게 가르침을 다시 환기시킬 수 있도록 벽마다 주제들을 붙여놓는다. 이 방편의 핵심 의도는 처음 와 닿은 이해를 다시 붙잡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다지 소박한 접근법이 아니다. 최초의 이해를 다시 일으키려면 그 이해를 지시해주는 단어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당신은 자신의 이기적 성향을 감지하거나 '나'라는 감각을 느낄 때마다 다음 두 가지 경구를 기억해 내야 한다. ① 내게 모든 악을,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덕을, ② 이익과 승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실과 패배는 나 자신에게.

이 경구를 소리 내어 말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하나의 사고 과정이다. 즉 구역질을 느낄 때 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느낌이나 고양된 기분을 느낄 때 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면 된다. '나'가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음'이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내어준다. 이건 아주 커다란 과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대승을 대승(큰 수레)이라 부르는 이유도 그것이 이처럼 엄청난 과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드넓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라면 곯아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엄청난 주의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수행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는 없다. 이러한 긴장감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 중 가장 탁월한 종류의 긴장감이다.

보내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자기 자신

당신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그 경험의 고통스런 측면을 자발적으로 떠맡는 것이다. 그런 뒤 당신은 남아있는 나머지 것들, 기분 좋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야 한다. 여기서 기분 좋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느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 이외의 모든 느낌을 내어주라는 말이다.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를 기쁘게 하거나 자신을 잘 대접하거나 하는 것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원하거나 원치 않는 태도와 연관된 모든 것이 움켜쥐며 내어주지 않으려는 욕구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취해야할 올바른 접근법은 자신의 영역을 완전히 열어 젖히고 모든 것을 놓아 보내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당신 거실에서 합숙하고 싶어 하는 히피 백여명과 마주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뒤에는 그 히피 놈들도 당신과 함께 수행을 해야 한다.

이 수행은 사실 아주 기분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이 자기 사생활의 가장 은밀한 구석마저 내어놓고, 이를 통해 온갖 것들에 대한 집착을 완벽히 떨쳐내려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건 매우 대범한 행위다. 그것이야 말로 보디사트바 세계, 전사의 세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참글세상'에서 펴낸 〈자비심 일깨우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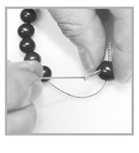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탐욕은 배고픈 들개가 똥을 먹고 똥을 싸는 것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33)

조달이 눈앞의 이익만 구하다

조달이라는 비구가 있었다. 총명하고 학문이 넓었으며, 12년 동안 죄선하여 정(定)에 들어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다. 열두 가지 두타(頭陀)에 애초부터 모자람이 없었고, 부정관(不淨觀)에 들어 들숨 날숨까지 분명하게 볼 수 있었으며, 세간 제일법으로부터 정법까지를 모두 낱낱이 분별하여 외우고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도 들은 바대로 그 때그때 익혀서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뒤에 그 뜻이 점차 퇴보하면서 점차로 나쁜 생각을 내기 시작하여 남들의 공양이나 바라고 세간의 이익만을 탐내 집착하게 되었다. 어느 날, 조달은 세존 앞에 가서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신족(神足)의 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들은 뒤에 잘 수행하겠으며, 저로 하여금 신족을 얻게만 해주신다면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법을 전하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신족은 그만 두어라. 너는 어찌하여 나의 법 중에 중요하고 중요한 무상의 이치와 괴로움의 이치와 공의 이치와 무아의 이치, 이 네 가지 이치는 배우려 하지 않느냐?"

조달은 생각했다.

'여래가 내게 신족의 이치를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은 내가 자기보다 훌륭해지고자기가 나보다 못하게 되면 창피할까봐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래를 버리고 사리불을 찾아가 신족의 도를 구하려 했다. 그러자 사리불은 조달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좀 그만 두시오. 그대는 왜 세존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조달은 또 생각했다.

'이 사리불이란 자를 모두들 지혜제일이라고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저 반딧불을 해나 달에 견주는 것과 같다. 외우고 익힌 것으로 본다면야 감히 나를 비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나도 신족의 도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리불 따위가 어찌 알겠는가.'

그렇게 조달은 사리불을 떠나 이번엔 목련을 찾아가 신족의 도를 구했다.

조달의 얘기를 들은 목련이 말했다.

"제발 그만 하시오. 그대의 이야기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범행을 닦기로 한 사람이 어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생각만 하는 것이오? 부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이치를 깨닫고, 다시 4선(禪)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족의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련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조달이 생각했다.

'목련이란 사람이 신족으로는 자기를 따를 자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까닭은 아마도 자기가 나보다 못해질까봐 두려워서일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의 명성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신족의 도를 배우려 했지만 모두가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구나. 아우 아난이 들은 것도 많고 학문이 깊으니 덕망을 두루 갖추었으니 이제 그에게 신족의 도를 물어야겠다.'

조달은 아난을 찾아가 물었다.

"재가 듣자하니 그대가 신족을 도를 잘 안다 하니 나에게 그 도를 알려 주시오. 내가 신족을 얻게 되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곳곳에 불법을 전하겠습니다."

조달의 얘기를 들은 아난이 신족의 도를 조달에게 말했다. 조달은 아난의 설명을 들은 뒤에 고요한 곳에 머무르면서 아난의 말대로 신족의 도를 닦기 시작했다. 허공 안에 머물 수 있을 정도로 도



삽화 · 강병호

를 닦은 조달은 젖먹이 아이로 변하여 아사세 태자의 무릎에 나타나 젖먹이 짓을 했다. 그러자 태자는 이것이 조달의 몸임을 알면서도 하루 종일 장난을 치며 놀아주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짝짜궁을 하기도 하면서 태자는 생각했다.

'조달의 신족이야말로 부처님보다도 훌륭하구나. 이렇게 수없이 여러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으니 말이다.'

아사세 태자는 조달에게 날마다 5백 가마의 밥을 공양하고 때마다 모자람이 없게 공양을 했다. 그때 비구들이 아사세 태자가 조달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 조달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조달의 공양을 부러워하지 마라. 조달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다른 사람도 함정에 빠지게 하니, 둘이 다 같이 업을 짓게 될 것이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아직 때도 아닌 때에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것과 같고, 버새가 새끼를 배면 두 생명이 모두 위험한 것과 같다. 옛날에 한 무리의 수리 떼가 저마다 알을 까고서 새끼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만약 날기를 배워 허공을 날게 되었을 때, 땅이 쟁반만 하게 보이면 그 때부터는 더 높이 올라가지 마라. 사나운 바람을 만나면 너희들은 몸뚱이가 산산 조각나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끼들은 어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너무 높이 날아올라가 날다가 목숨을 잃거나 집을 잃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 비구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비구들아, 그러므로 마치 거북 떼와 같이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거북이 새끼들에게 말하곤 했다. '너희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어디어디에는 절대 가지 마라. 거기에는 사냥꾼이 숨어 있어서 너희들을 잡아 갈 것이다.' 그렇지만 거북 새끼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그곳에 가서 함께 즐기며 재미있게 놀다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간신히 돌아온 새끼에게 거북은 물었다. '너는 지금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들은 서로서로 손을 잡고 그곳에서 놀았는데, 사냥꾼은 보이지 않고 긴 올가미가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거북이 새끼에게 말했다. '너희와 같은 선조들도 모두 그 올가미에 걸려 사냥꾼에게 잡혀가 죽었단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마치 배고픈 들개가 다른 짐승의 똥을 먹고 다시 똥을 누는 것처럼 조달 비구가 공양을 탐내는 것 또한 그와 같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㉝



한 여름의 단상

삶과 죽음

무더위가 한창이던 며칠 전, 지병으로 투병해오던 제부가 운명을 달리 했다. 10여 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을 전전하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전화만 와도 늘 나쁜 소식일까 싶어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는데, 기어이 부고를 접하고 말았다.

우리 내외는 함께 빈소가 마련된 서울로 갔다. 동생의 시댁은 시어른께서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같은 가정에서 자란 나와 동생이었지만 종교에 관해서만은 인연이 달랐다. 하지만 나는 동생에게 종교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힘들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장례식은 생각대로 기독교식으로 치러졌다. 문상객 역시 교회 신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불교식이든 기독교식이든 고인 앞에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빈소를 지키다보니 영가전에 차 한 잔 올리지 않고 밥 한 그릇 올리지 않는 것은 왠지 좀 쓸쓸해 보였다.

죽음을 육신의 죽음만으로 생각한다면 내 생각이 쓸 데 없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죽음을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음은 너나없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일 것이다. 넋이라는 게 있고 영혼이라 부르는 것이 그것일 것인데, 생전에 하던 일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길을 가야 하는 고인에게 차 한 잔, 밥 한 그릇은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 생전의 제부가 눈에 자꾸 밟혔다.

자꾸만 솟아오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돌아오는 길에 내 머릿속엔 온통 삶과 죽음에 관한 의문들이 들어찼다. 숙제였다. 부처님이 그렇게 궁금해 했던 생사의 의문이 아니던가.

언젠가는 나도 죽음을 맞을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회향해야 할까. 불국토 상조회의 증서를 휴가 온 아들 내외에게 건네며 "만약에 우리 두 사람 중 무슨 일이 생기면 놀라지 말고 이곳에 연락해서 일을 치르라"고 했더니 아들이 나무란다. '죽음' 앞에서 '나'를 생각하니 절실하게 생사의 뜻이 궁금해지는 하루였다.

휴가를 산사에서

아들 가족 딸 가족이 휴가라고 부산 우리 집으로 왔다. 해마다 여름이면 늘 그래왔던 터였다. 이번엔 절에 가서 쉬면 어떨까 싶어 아이들 가족에게 물었다. 모두 좋다고 해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혜해 스님이 계시는 경산의 반룡사(盤龍寺)로 갔다. 법당 참배를 마치고 도량 곳곳을 돌아보며 뛰어다니는 꼬마 손자들과 처음 와본 아들 딸 가족들도 좋아했다. 스님은 어릴 때 보았던 애들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셨다.

반룡사는 원효 스님과 요석 공주와의 사이에 태어난 설총이 자란 도량이다. 아담하고 평안한 도량은 멀리 내려다보는 경관이 절경이다. 우선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아도 걱정 할 일이 없고 누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겨 탈 수 있는 해머도 달아놓았다. 스님 지어주신 공양으로 저녁을 먹고 나니 어느덧 밤이 찾아왔다. 절에서 맞는 밤은 어느 때보다 한가롭고 편안했다. 어느 휴가지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기분이었다. 도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의 별이며, 숲속에서 건너오는 밤바람, 밤바람 속에 나부끼는 풍경소리, 그야말로 휴가다운 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이 삶은 옥수수와 직접 키운 것이라며 방울토마토를 가득 내오셨다. 오랜만에 뵌 스님과 우리 식구들은 그동안의 쌓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든 것 같다. 시원한 바람과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행복한 밤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각자 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절 텃밭으로 갔다. 밭엔 갖가지 채소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고추도 따고 방울토마토도 따고 오이, 가지, 호박, 깻잎도 땄다.

어린 손주들이 신기한 듯 신이 났다. 무엇보다 맘껏 놀 수 없는 요즘 아이들이다. 손주들에게 모처럼 좋은 선물을 한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손주들뿐만 아니라 점점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모처럼 근사한 휴가를 보낸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스님이 밭에서 딴 채소들을 선물로 싸주셨다. 우리는 감사의 뜻으로 법당에 등을 달았다. 어린 손자들까지 고사리 손으로 부처님 전에 절을 했다. 억지로 불교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말없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포교라는 생각을 했다.

달맞이꽃과 법정 스님

반룡사 마당에 노오란 달맞이꽃이 한창 보기 좋게 피어있다. 나는 이 꽃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다. 오늘 이곳에서 보게 되니 너무나 반가웠다. 이유는 옛날에 송광사 불일암에 갔을 때 법정 스님께서 해가 막 질 무렵인데 마당에 자리를 깔고 우리 일행과 차 한 잔 하기로 했던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보았던 달맞이꽃의 기억 때문이다.

작은 언덕에 쭉쭉 뻗어 서 있던 달맞이꽃들이 동시에 피기 시작했다. 한 장의 꽃잎이 파르르 떨면서 피어나고 또 다음 꽃잎이 그렇게 피어 순식간에 다섯 장이 꽃잎이 피어났다. 마치 나비 떼가 동시에 날아 앉은 듯한 광경이었다. 달맞이꽃이 피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된 우리 일행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 달맞이꽃은 다른 꽃들과는 달리 순식간에 꽃을 피워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피어 있다가 낮이 되면 마른 꽃처럼 말려서 잠든다.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고, 법정 스님이 생각났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나눔투어모집]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공식과 함께하는 나눔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 31일까지)

[후원참여]
[벽돌 한장] 10,000원
[책상 · 의자] 50,000원
[땅 한평] 100,000원
[식수대] 300,000원
[컴퓨터] 1,000,000원
[교실 한동] 10,000,000원
[법당(10명)] 50,000,000원

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대행 스님

내게 일일이 다가온는 것 그저 근본에다 맡겨놓으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천도를 스님네들한테 청하되 무엇을 많이 차려놓는 걸 바라지 마십시오. 찹쌀가루를 해서 재사 지낼 때 똥그렇게 그냥 부쳐서 아홉 조각 아니면 일곱 조각, 일곱 조각 아니면 세 조각 이렇게 해서 놓고, 초 향 물 이렇게 해놓고 지내신다면 그것으로써 족합니다. 환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나물 먹고 떡 먹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하는 의식들은 벌써 그건 아주 하의 중생들의 얘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상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떡, 밥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 의식을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마음속으로 예배를 올리면, 그리고 절 삼정례(三頂禮)를 할 때에, 맨 끄트머리에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내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걸 맡겨놓고 일어난다면 아주 그것이 극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천도를 시켜달라고 할 때 스님네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떡 한 그릇을 놓고 하든지 물 한 그릇을 놓고 하든지. 외국에서 천도를 시켜달라고 그래서요, 초하고 물하고 향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라도 되는데 그거라도 방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틀림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벌써 영령들은 알거든. 그렇게 해서 지내주고 다녔지. 그 뭐, 다니면서 목탁 들고 다녀, 무슨 뭘 들고 다녀?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한국에서 천도해 달라고 보내도 "알았다."고. 그게 천도지 뭐 다른 건가. 내 마음이면, 이 마음이라는 이 자체는 아주 작다면 작고, 없다면 없고, 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싸고도 남아.

그러니 그 관습에 젖어서 무슨 이사를 갈래도 못 가고 날짜를 봐야 하고, 제사를 지내도 왕창 차려놓고 해야 하니까 "아휴, 그냥 바쁘기는 한데 이런 거 해야 하고 아휴, 제사가 왜 이렇게 많아?" 하고 그냥 잔소리 군소리 죄 할 거 다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군소리 할 것도 없고, 바쁠 것도 없고 그리고 정성은 정성대로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처럼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에. 그러니 시대가 발전이 되고 과학, 의학 모든 것이 발전이 된다 하면은 우리 인간도 좀 달라져야 그 발전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발전이 돼야 모든 게 물질도 발전이 돼서 나오죠. 마음의 발전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이 발전이 돼서 나오겠습니까?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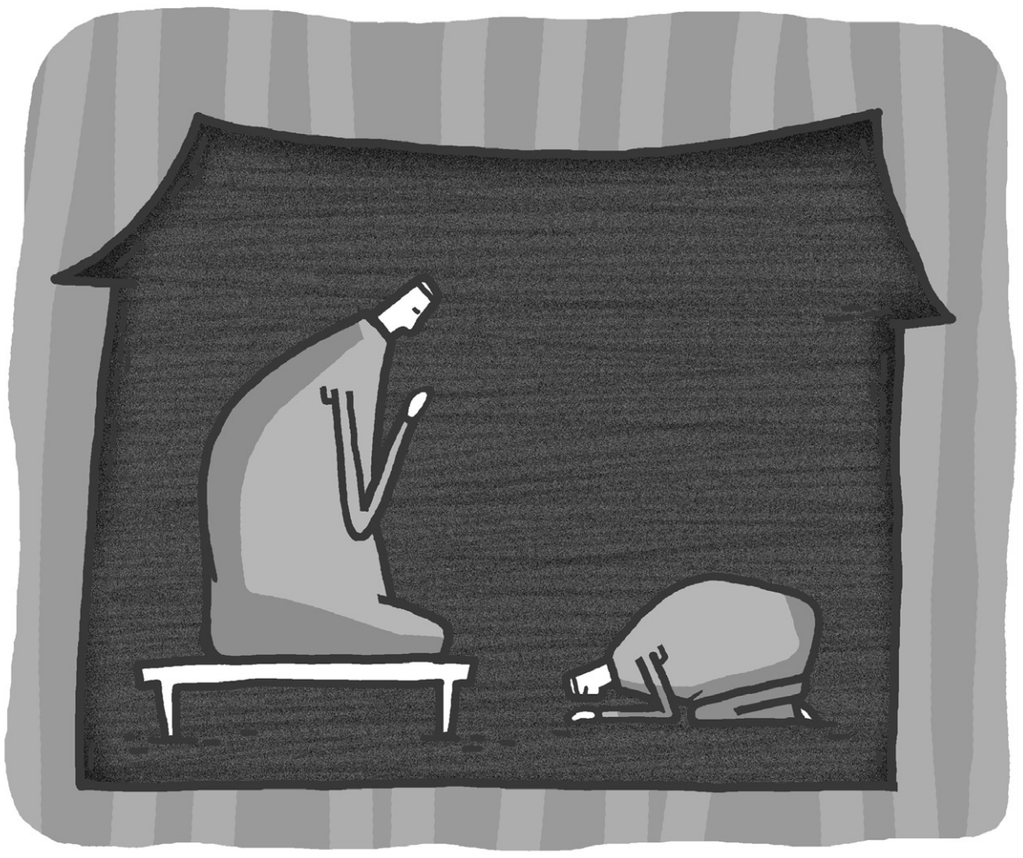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오늘 네 가지를 스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고 맡기는 것 외에는 별도의 수행 방법을 강조하시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선이 좋은 수행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생활이 곧 참선이다 하는데, 과연 생활 중의 모든 언행을 곧 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얼른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생활이 곧 참선이라는 스님 말씀의 참뜻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아이 참, 그저 평상시에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건데….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면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죠. 일상생활의 일거일동 말입니다. 이 세상이 형성된 것부터 죽는 것 사는 것,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 전체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자기, 자기가 하죠. 자기가 하고 자기가 내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앉아도 참선이요, 서도 참선이요, 누워도 참선이요, 또 일을 해도 참선이요, 행선 · 와선 · 입선 · 좌선 다 한데 합쳐서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따지지 마시고 일상생활의 모든 걸 내 마음속에서 한다, 그냥 들이고 내는 것이 한마음이다 이런다면은, 그냥 거기다가 놓고 돌아가면은, 믿고 놓으면은 그냥 이것저것 따로따로 챙길 게 없이 그대로 놓고 가면 그것이 참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그렇게 놓는 반면에 그렇게 놓고 지켜보고, 지켜보는 게 바로 관하는 겁니다. 지켜보고 체험하는 그것이 참선입니다. 뭐 별다른 게 참선이 아닙니다. 내게 일일이 다가오는 거 그저 거기다 맡겨놓고…. 즉 말하자면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봤는데요, 차가 망가져도 운전수 탓이고, 차가 받혀도 운전수 탓이지, 차를 가지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 차 운전수 붙들고 야단이지. 하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운전수. 그러니깐 그 운전수가 모든 걸 해나가는 거니까 운전수에다 모든 거를 한데 모아서, 그냥 모으고 안 모으고도 없어요. 거기 놓고 그냥 돌아가는 그것이, 그러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나 몰라라 거기다가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이러고 가도 아니 되고, 허허허.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어. 가고 오는 것도 다 너만이 알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어. 이끌어가게 할 수 있어. 이끌어갈 수 있어.' 하는 거지.

질문자1(남): 두번째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여여하게 자유인으로 행하라는 뜻으로 사려되옵니다마는 그렇다면 마구니가 온다 해도 막지 않고 부처가 간다 해도 붙잡지 않는 것인지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큰스님: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요. 가는 것 일부러 그냥 쫓아가서 잡고 이러기보다는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고 무조건, 하다못해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고 또는 마구니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뭐든지, 하다못해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그 도리를 납득을 못합니다.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는다, 이 뜻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을 하자면, 즉 말하자면 지금 말했듯이 어떠한 거든지 걸려서 안 된다. 그냥 놓고 가는데, 그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법인데 뭣 때문에 간다 온다 야단법석을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도중의 수행자는 그렇다 이겁니다.

질문자1(남): 세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에게 맡긴다, 주인공을 관한다고 할 때에는 맡기는 자와 맡는 자, 관하는 자와 관하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주인공 당신'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주인공이라는 대상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맡기고 그것을 관하는 줄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인공' 자주 생각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을 대상화하여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큰스님: 그러게 누가 상대를 두고 해달라고, '주인공 해주시오.' 하라고 했습니까? '네 몸뚱이 네가 고장 냈으면 네가 고쳐서 끌고 가라.'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가는것도 오는것도 그대로 법인데 뭣 때문에 야단법석입니까

☞ 29면에서 계속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지. 하하하. 아니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해결해라.' 그러고 놓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네가 벌여놓은 거니까 네가 수습해라.' 하고 놓으라고 그랬지. 하하하. 그것이 마음 없는 마음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 모두를 둘로 보지 마세요. 이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해달라고 한다면은 아니 됩니다. 그거는 벌써 잘못 들어가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네 몸뚱이 이렇게 만든 것도 너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너니까 네 몸뚱이 네가 끌고 가려면 건강하게 끌고 다녀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놓을 수 있고, 그 놓을 수 있는 마음이 믿음직해야 됩니다. 그냥 장난기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그런 거는 핀트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말고 열심히들, 어떠한 거든지 둘로 보지 마시라 하는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드렸습니다.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광력을 찾고, 이 모든 진화를 찾고 형상을 찾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이 자체를 볼 때에 만나서 헤어졌으면 또 딴 걸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해왔으니, 지금 생각을 한대도 어떠한 부모가 됐을 때 부모라고 하고 어떠한 자식이 됐을 때 자식이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거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질문자1(남): 네번째는 오조 홍인 대사께서 육조 스님께 의발을 전하신 뒤 길을 떠나라고 하시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품을 회(懷)자가 든 고장에서는 머물고 모을 회(會) 같은 데는 감추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인 대사께서 하신 말씀을 큰스님의 뜻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큰스님: 이거를 뜻으로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는 그건 자기가 가는 거지 누구가 대신 가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음에 뿌리와 나무 가지, 잎새, 열매가 모두 익어서 제대로 맛을 아는 자에게, 그 도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행해주고, 즉 행하고 거기 머무르고, 또 그냥 겉탕으로 이렇게 모일 때는 감추어라.

즉, 자기가 행하지 마라 이 소립니다. 이게 이 속마음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앞에는, 듣고 받아들이고 하는 자에게는 머무르지만 이게 겉탕으로 모여서 흉이나 하고 그러는 자에게는, 겉탕으로 하는 자에게는 아예 말문을 열지 마라, 감추어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 어디 간다 하더라도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해라. 그 자리가 바로 네 자리니라." 이런 거거든. 말은 할 줄 몰라도 뜻은 알지 않습니까? 하하하.

그러게 이 마음공부를 이끌어가는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알고보면 오히려 더 쉬운 일이죠. 세세생생에 끄달리고 돌아가면서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저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도 거기에서 그냥, 여러분이 오신통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도 훌쩍 벗어난다면 견우와 직녀 속에서 훌쩍 벗어나는 겁니다.

질문자2(남): 지난번에 주지 스님께서 울산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적에 불상인 부처가 탁 나타났습니다. 도로를 건너는데, 한길을 건너는데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 '이게 뭔가.' 하고 찾으려는데, 계속 찾으려는데 못 찾았습니다. 오늘 들어와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엄마가 저를 낳고 일찍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게 한 네 살쯤 되었습니다. 그래 한 네 살쯤 돼서 혼자 걸어다니면서 놀잖아요. 노는데 새로 처녀가 시집을 와서 나를 키웁니다, 이제. 키우는데 노는 걸 보면 혼자면서, 누가 꼭 둘인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하더랍니다.

가보면 혼자 있는데 얘기는 둘이 한다 이거야. 아, 이게 뭔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알았다 이겁니다. 집안에서는 엄마 없이 혼자서 큰다고 맨날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거야. 만날 불쌍해라, 불쌍해라 이거야.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아, 그거를 이 도리를 오늘 스님한테 받아들지 못하였으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둘로 안 보고 하나로 딱 볼 적에는 전부가 나의 화신이요, 보살이라 미리미리 보여줬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맞습니까?

큰스님: 하하하. 예.

질문자2(남): 어쨌든 간에 지금 알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잊었는데 '불쌍해라, 불쌍해라' 하는 게 그게 도로를 건널 적에 부처가 나타난 거하고 그때 '불쌍해라, 불쌍해라' 한 그 소리가 '불상을 네가 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큰스님: 허허. 그것도 아니에요.

질문자2(남): 그것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쭉 있다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는 머리 깎고 스님이 돼야 네 소원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가만히 연관시켜보면 그것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내가 불법을 늦게 만났더라도 이 길을 난 분명히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 정리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돼갑니다, 이제.

큰스님: 이거 보세요. 앞의 거를 해결을 못하고, 저 먼데 거를 해결을 하려면 안 되십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렇게 갈 거는 간다 하더라도 지금 댁에 가족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버리고 뭘 찾으러 가십니까?

>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고 무조건,
>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고
> 마구니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질문자2(남): 아뇨. 곧 다 됐습니다. 스님은 여기 앉아계셔도요, 우리집 형편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 그리고 그 마음에서 지금 그러한 도리를 아신다니깐 망정이지, 만약에 화(化)해서 자꾸자꾸,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됐다 남편이 됐다 이러듯이 그 마음속에서도, 이 주인공 속에서도 그저 이게 됐다가 저게 됐다가, 거지가 됐다가 마귀가 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에 자꾸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질문자2(남):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요 며칠 전에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두 남매가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모릅니다. 부아를 돋우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일이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내 생각을 했습니다. '요놈, 또 내 화신(化身)들이 나를 속이는구나.' 하고 돌리니까 조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있데요.

큰스님: 하하하. 예, 참 잘됐습니다.

질문자2(남): 오늘 밧데리 보충 멋들어지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백지 한 장에 그림 한 장 그려가지고 울산에서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그림 그릴 것도 없습니다. 잘하고 가시는군요.

질문자3(남): 저는 지금 자연과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자연과학을 공부하다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불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진리를 얻는 방편이 세상에 있습니까?

큰스님: 이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야. 어떠한 벌레도 생명이 있으니깐 불이야. 그래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운용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법이야. 생활이 그냥 법이야. 그러니까 불법이야. 너의 생명 근본. 영원한 근본. 근본이자 생활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 생활을 벗어나서 불법이 있을 수가 있나? 모두가 불법인데.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질문자3(남): 그럼 다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모든 것이 문명을 받기 전에 불성(佛性) 그 자체가 있었다고 배웠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불성 자체로 보면 그것도 불성입니까? 애초에 불성 자체로 볼 때요, 그것 자체에도 불성이 있는 겁니까? 애초에 있었던 불성에.

큰스님: 불성이라는 것은 어느 것에도 불성이 없는 게 없어. 우리가 이 세상 나기 전 암흑세계에서도 이 바람과 흙과 물과 이렇게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거야. 그 불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인연이 된 거야. 삼합(三合)이 한데 합쳐지자 거기서 온기가 생기니까 불도 거기서 그냥 생긴 거지.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생긴 거지. 한데 합쳐서 생명이 생긴 거야,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생명이 생기니까 광력을 얻은 거야. 그래서 광력이 얻어지니까 그 생산이 된 거지. 미생물에서부터 생산이 돼가지고 그 수없이 겪어왔잖아. 뭐 무슨 시대, 무슨 시대, 공룡시대, 무슨 시대 하고 겪어오면서 발전이 된 거지. 그러다 인간까지 발전이 된 거지. 그래서 인간은 맨 나중에 나왔다 하지.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불성 없는 것은 없어. 생명이 있다 하면은 다 불성이 있는 거지.

질문자3(남): 알았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이런 컵도 이것이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이 되고 인연이 돼서 이것도 살아 있는 거지. 컵이라는 거를 봐주고 써주는 인연이 있고, 물을 담고 이렇게 써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 있는 거죠.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거예요. 움죽거리고 있다고요.

질문자4(여): 오늘 스님을 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요,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어서 이럽니다. 스님, 조금만 용기를 좀 주옵소서.

큰스님: 몸하고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데. 물론 이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 허황돼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진짜로 믿고 진짜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그냥 맡겨놔버리고 그대로 '네 몸뚱이, 네가 형성시킨 네 몸뚱이 네가 끌고 다니는 건데 건강하게 끌고 다니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놓고 가는 길이지 뭐, 공부하는 데 무슨 뭐가 그렇게 걸립니까?

질문자4(여): 예. 조금만 용기를 주옵소서.

큰스님: 용기를 누가 주고 자시고 할 겁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이것을 하는 데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재료로 알고, 어떠한 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모든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모든 거를 해나간다면 정말 용기 잃지 않게끔 벌어질 겁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의 조사들과 부처님이 그렇게 일컬어서 길을 인도하신 이 마음의 공부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체험하고 나가다보면은 이 세상살이가 전부 팔만대장경입니다. 어떻게 다 써놓겠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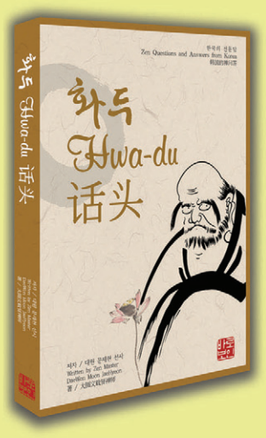
여러분, 모두 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살아나가는 데 어떠한 고통, 어떠한 병고, 어떠한 재난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모두 커버해나가면서 내 진짜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나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 열심히들 하십시오.

※위 법문은 92년 8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1번째 저서 출간!

* 화두 〈한영중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바로보인 선문염송 22권

전 30권 중 제 2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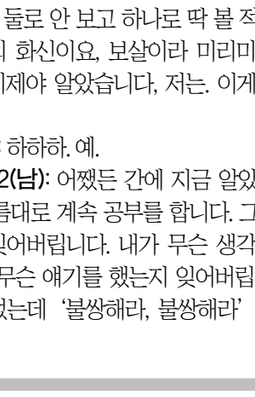
현재 31종 61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바로보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닙바나 화제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요,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퇴현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 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닙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지리산 토암사 검색

주소_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광복절 논단

우리를 다시 위협하는 日 제국주의 망령

광복절에 또 다시 일본을 본다

彌山(수필가)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자민당이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벌여 온 아베 총리의 개헌운동에도 앞으로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최대 목표는 평화헌법 제 9조를 바꾸어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은 맥아더의 미 군정하에서 만들어져 1946년 11월 3일 공포된 것으로, 제9조는 1항에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원히 포기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같은 2항에서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 해 공군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 하고 있다. 1항에서는 전쟁과 무력의 포기를, 2항에서는 교전권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무력 전쟁을 포기하는 이 9조로 말미암아 전후 일본 헌법은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려왔던 것이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이 9조를 없애거나 적당히 바꾸어서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세계에 우뚝 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극우 군국세력들은 천황을 실권 없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만 규정하고, 무력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를 표방하는 이 평화헌법에 적개심을 가지고 일찍부터 헌법의 개정을 주장해 왔다. 엊그제 아소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이 독일 나치 정권이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한 수법을 배워 개헌을 추진하자고 한 것은 이들 극우세력들의 '혼네(本音-속내)'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동안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과 민간단체들은 이런 극우들의 헌법개정 주장에 반대하여 싸워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국민들이 개정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일본인들의 가슴 속에는 지금도 여전히 '덴노(天皇)'가 살아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나오는 초대 진무(神武) 천황의 말 '팔굉일우(八紘一宇-학꼬이찌우)'가 아직도 국가 이념처럼 남아있다. '팔굉일우'는 "천지사방을 (천황의) 한 지붕으로 덮는다" 뜻으로 원래는 "엄인굉이위우(掩人紘而爲宇-천하를 덮어 내집으로 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는가)"라는 구절인데, 일본 일련종의 국주회(國柱會)를 창립한(1914) 다나카 지카구(田中智學 1861-1939)가 이런 용어로 만들었다.

다나카 지카구는 일련종 사람으로 1911년 '일본국체학'을 주창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의를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 불교와 국가는 하나라

일본 극우 평화헌법 개정
'팔굉일우' 야심…경계해야

고 하면서 일본 제일주의를 내세웠고, 특히 〈불교부부론〉〈승려육식대처론〉을 저술하여 이의 국가공인을 주장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과거 일본인들은 '팔굉일우(八紘一宇)'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우면서 조선, 만주, 대만, 중국을 침략했던 것이다. 이것이 '대동아전쟁'으로 '팔굉일우'라는 그들 나름의 세계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지른 만행이다.

1940년에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1891-1945 왕실최고가문 출신) 일본 총리가 "황국(일본제국)의 국시는 팔굉일우로서 천황을 위해 전세계(八紘)를 하나의 집(一宇)으로 만드는데 있다"고한 시정 방침 연설에서 그들이 대동아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 할 수가 있다.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덴노의 신국(神國)이라 믿고 이처럼 '팔굉일우'를 국가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그들의 덴노 치하에 두고져 하는 야심을 영원히 버리지 못할 것이다.

아베 총리 개헌의 속셈도 이러한 '팔굉일우'의 황국사관에 철저히 의존해 있다. 8월은 우리 한국인에게 광복의 달이다. 일본 제국주의 '팔굉일우'의 사슬에서 풀려난 달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고, 공산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다시 '팔굉일우'의 야망을 펼치려한다.

싸움질에 정신나간 우리의 정치인들이여, 아베의 야심과 일본 군국세력들의 성장을 그대들은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불자 세상보기

위기는 기회…새로운 삶 '시작'



선업 스님
차담명상치유센터 원장

최근 유명 PD의 자살 사건과 함께 단체 활동금 마련을 위해 '자살 이벤트 및 퍼포먼스'를 하다가 불귀의 객이 된 모 단체 대표의 사례는 '위기와 자살 그리고 생명경시 해소'라는 과제를 사회에 던지고 있다.

위기는 사전적으로는 "어떤 안정된 상태에 있어서 위급한 상황 또는 위험한 경우"를 말하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사건이나 발달단계마다 요구되는 발달과업에 의한 새로운 대처자원이 필요한 성숙위기를 발달적 위기라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증오하는 사람과의 동거, 내 맘대로 안 되는 일 등 상황과 관련된 위기를 상황적 위기라고 하며 독립성, 자유, 정체성 등 인간에게 중요한 이슈를 동반하는 내적 갈등이나 불안과 관련된 위기를 실존적 위기라고 한다.

이런 위기에 처한 개인은 낮은 자존감을 기반으로 "혼돈, 걱정, 절망, 분노와 같은 감정을 동반하는 격심한 정서적 혼란"과 더불어 심리적 약화, 방어기제의 위축, 문제해결 및 대처능력의 심각한 와해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살 예고'의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 의지를 드러내거나, 분노·슬픔 등의 감정을 죽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드러내거나, 나의 힘든 상황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며 하는 마음으로 드러내거나, 주변과 지인에 대한 심경을 정리하려는 생각에서 자살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결심에 대한 재확인을 하고 결국에는 실행에 옮기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위기(危機)라는 단어는 동양에서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공존하는 현상, 즉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영어로 위기(crisis)는 상황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 구분이라는 뜻을 갖는 'Krinein'에서 유래되어 위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대처하기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뜻하고 있다.

위기의 순간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된 예는 초기불전의 《장노니게》에 나오는 사하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게송에 의하면 사하 비구니는 "정견을 갖지 못하고 번뇌에 사로잡혀 쾌락적인 생각만 ㊍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라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다가 새끼줄을 구해 들고 숲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는 '비참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이만 목을 매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자살을 시도한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 마음의 해탈을 얻는 큰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자살 위기에서 벗어나 모범이 되는 수행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스님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숨이 콱 막히는 위기의 순간에 꽉 쥐고 있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불살생의 의미와 스스로의 존귀함을 자각하는 기회가 된 것은 아닐까?

또한 부처님 재세 시에도 교단 내에 자살이 늘어나는 위기 상황에 부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있다. 율장에 의하면 당시 수행자들 중에 부정관수행에 대한 오해로 자살한 이들의 숫자가 무려 6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즉각 부정관 수행의 목적을 바로 잡아 주시고 스스로 자신이나 남의 목숨을 해치거나, 남을 시켜 그렇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모두 금하는 불살생계(不殺生戒)를 제정하여 교단의 혼란을 막고 대중들이 다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있다.

사회가 위기를 강제하는 요즈음, 위기에 접촉한 이들이 "풀 한 포기에도 존엄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삶이 있음"을 자각하고 또 다른 삶이라는 선택적 기회를 살려 빛나는 날들을 누리고 살았으면 한다.

社說

템플스테이 세계속으로 발돋움하자

한국불교의 대표적 아이콘 템플스테이가 사회공익적 가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최근 발간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조사, 연구한 것으로 객관적 조사 결과라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한국적 전통문화체험, 생태 친화적인 식생활 습관 형성, 한국 전통문화 및 역사 이해 증진 등도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가치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시말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중심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중요도 조사에서도 템플스테이는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경쟁과 하루가 다르게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그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다. 이런 이들을 보듬고 위로해주는게 종교 본연의 역할이다. 특히 우리 불교에서 개발한 템플스테이가 이런 역할을 튼실하게 해주고 있어 앞으로도 포교 수단으로 거는 기대가 크다. 실질적으로 템플스테이는 시행한지 10년을 넘어서면서 프로그램들도 다채로워지고, 참가자들도 국적을 초월해 다양해졌다.

참가자들도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산사체험 수준을 넘어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쉼(休)의 계기로 삼고 있다. 그렇다보니 아예 여름 휴가를 템플스테이로 보내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런 반응과 추세라면 이제 템플스테이는 우리 한국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닌 세계속에서 한국불교를 포교하는 방편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성이 생겼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한다면 세계인들에게 남방불교의 위빠사나나, 티베트 불교의 오체투지 및 명상 등과 견줘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다.

'나눔의집·평화의집' 더 해야 할 일

68주년 광복절이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외친 지도 반세기하고 18년이 지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일 간의 해묵은 역사 청산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이후 급속히 보수화되고 있고, 극우세력들의 망언과 망동도 이전 시기보다 수위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 사회를 살펴봐도 안타까운 점이 많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디자인이 예쁘다는 이유로 버젓이 사용하고, 독도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청소년들은 우리네 역사의식의 현실이다.

그나마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원폭 피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불교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쉼터인 나눔의 집은 1992년 설립해 불교계가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합천 평화의 집은 2010년 3월 불교계 구호단체인 위드아시아가 원폭 피해 자녀들을 위한 지원과 의료 복지 등을 위해 창립됐으며, 최근에는 비핵운동으로 활동을 넓혀 매년 국제 평화대회를 개최 중이다.

두 단체의 공통점은 한국불교가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위안부 쉼터의 경우 기독교는 지난해가 돼서야 별도의 시설을 만들었으며, 원폭 피해 자녀를 위한 지원 시설은 국내에서 불교계가 유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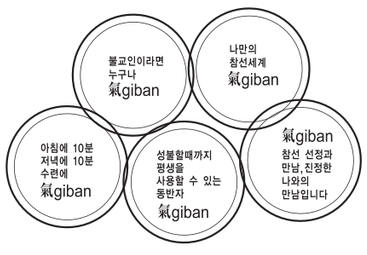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경우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그들의 '한(恨)'을 풀 수 있는 역사적 평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보상과 복지 제도가 빈약한 원폭 피해 2, 3세들을 위해서는 지원을 명문화한 특별법과 요양센터가 절실하다.

불교계 역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본 불교계의 양심적 인사들과 함께 역사 청산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특허 제 10-1179171호 산삼줄기세포 간질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특허 제 10-126315호 산삼줄기세포 노화방지 및 용도 특허
특허 제 10-1128953호 산삼줄기세포 암의 예방 및 치료용도 특허 외 다수

당신은 지금까지 '진짜 산삼'을 드셨습니까?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7일이면 몸이 달라지고 한달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 **전설 속의 명약 '산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초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 바로 산삼이다. 산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거나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삼은 전설속에 존재하는 약초인양 멀게만 느껴져 왔다.

동양의학 최고의 신약(神藥)으로 칭송받는 산삼은 몸을 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막힌 곳을 트여 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수십년 묵은 산삼을 찾았다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산삼은 그야말로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전설 곳의 명약인 셈이다.

◆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심마니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조차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라고 외칠 만큼 산삼은 발견하기 힘들다. 산세가 좋고 풍수가 뛰어난 심산유곡에서 일조량, 토양, 고도, 지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고귀한 존재인 산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식물이며 그 효과 또한 무궁무진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따르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항암작용, 노화예방, 정력증진, 동맥경화, 갱년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진



"식물줄기세포는 분열조직이라 불리는 특수 구조안에 존재하며, 매우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다. 이들은 수백년동안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기관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nature 415, 751-754(2002)

▲ 국내에서 개발한 식물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은 2010년 11월 (네이처)지 표지논문으로 살렸습니다. 네이처지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분야 학술지입니다.

각종 특허와 언론보도를 통해 효과 입증
'한국산삼감정협회'에서 인증한 50년근 산삼
산삼 줄기세포 - 산삼의 효과 100%일치

세노사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포닌 또한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이상 함유되어 있다.

◆ **50년근 산삼의 신비!**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 과 '장뇌삼' 이다. 그리고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산삼배양근' 이 있다. 하지만 산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특허 제 10-1064518호)저장근을 가지는 초본식물의 형성층 유래식물 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 방법) 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 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 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효과를 유전적 변이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 있는 '셀원' 은 그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셀원'은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하여 한병 한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인 '셀원' 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뿌리씩' 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임금님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 을 통해 하루 산삼 한뿌리를 먹는 감동을 느껴보자.

출시를 기념하여 선착순 300분에 한정하여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문의 : 080-810-8100

노화방지 기력회복 면역력강화 위·간보호 등에 탁월!

세계가 놀란 '산삼 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속속 들어나...

산삼은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정력 증진, 위·간 보호 등에 뛰어나며 사포닌이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과거부터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며 신성시된 약초로 시중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뿐더러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최근 식물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분리 배양한 특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적으 로권위있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의 표지 논문으로도 게재된 바 있는 이 기술을 동양의 신비로 불리는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에 접목한 것이다. 그결과 산삼의 줄기세포인 '산삼 배양세포' 에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신규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이 산삼배양 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 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 관심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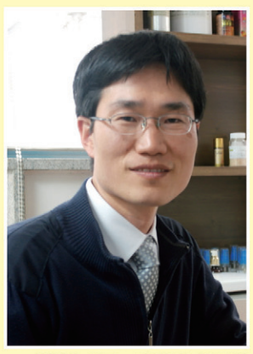
SBS KBS MBC YTN Discovery CHANNEL

SBS 8시 뉴스 |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한국이 해냈다."
KBS 9시 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세계 첫 성공"
MBC 9시 뉴스 | "나무도 복제·식물줄기세포로 항암제 생산"
YTN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첫 성공"
디스커버리채널 | 2011년 다큐멘터리 3편 제작, 세계 30여개국에 방영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표지 논문 게재 (2010년 11월호 표지논문)

다 좋지만 '산삼' 만 하겠습니까?

장뇌삼, 산삼배양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 대한민국 사람 중 산삼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있나?



▲ '셀원'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위, 간 보호등에 탁월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셀원'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은 식물 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산삼배양세포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섭취할수 있는 훌륭한 개발품이다. 산삼배양세포를 먹으면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많은 유효 성분들이 피를 말끔하게 풀어주고, 상처난 곳의 회복을 도우며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몸을 지켜준다" 며 '셀원' 의 산삼배양세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산삼배양세포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많은 분들이 산삼배양세포를 먹어 산삼의 영양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특히, 출시를 기념하여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특별한 기회에 산삼줄기세포를 느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항상 지치고 피곤하신 분
- ☑ 기력이 떨어지고 힘에 부치는 분
- ☑ 병이나 수술 후 기력회복이 필요하신 분
- ☑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 ☑ 평소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 ☑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년 12월

Green Certification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인정 2011년 2월

NET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1년 12월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8년 8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9001

(ISO 9001 품질인증) 2007년 9월



한국산삼감정협회 50년근 삼삼인증서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

50년근 산삼의 신비 「셀원」 의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웠던 50년근 산삼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분에 한정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산삼줄기세포 셀원으로 만나는 확실한 변화!

면역력 강화, 기력향상, 「셀원」 한박스에는 50년근 산삼 24뿌리의 산삼배양세포가 들어있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지칠줄 모르는 강한 체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제품명 : 셀원 · 주요원료 : 산삼배양세포 추출물, 가피타히보추출물, 영지추출물, 참당귀추출물, 솔 잎 추출물, 복합황금추출물 외 · 제품구성 : 1박스 20ml×30병 · 제조원 : (주)에이지아이생명과학

상담문의 080-810-8100